BECHDEL DAY 2024

DGK 한국영화감독조합
DIRECTORS GUILD OF KOREA




벡델
데이
2024

목차

04 **벡델데이 2024**

07 행사 개요
참여 인력
08 행사 소개
올해의 주안점
09 포스터 & 슬로건
10 리더필름 & 트레일러

12 **벡델초이스10 & 벡델리안**

14 영화 부문 벡델초이스10
26 영화 부문 벡델리안
30 시리즈 부문 벡델초이스10
42 시리즈 부문 벡델리안

46 **프로그램**

54 **벡델 토크 1.**
벡델리안과의 만남:
위기의 산업,
양성평등 콘텐츠가 돌파한 것들

84 **스페셜 토크 2.**
임순례 28년, 여성감독 뉴웨이브

110 **협업**

112 돌아온 방구석1열
114 부산국제영화제

118 **홍보 및 마케팅**

120 언론 보도
130 온라인 홍보
144 오프라인 홍보

149 **관객 설문**

벡델데이 2024

E좁게
GENDER
E퀄리티

벡델데이 2024

개요

행사 개요

명칭	벡델데이 2024
기간	2024. 9. 7. (토)
장소	인디스페이스
주최/주관	DGK(한국영화감독조합)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영화진흥위원회

참여 인력

조직위원장	민규동, 윤제균
프로그래머	이화정
행사연출	정승구
영상연출	성시흡
DGK 사무국	최우리, 진보라, 박효은, 김석태
프로그램 코디네이터	유한나
홍보 코디네이터	박선정(로컬단)
홍보 지원	박소민, 이선아
숏츠 제작	고지수
상영관 운영	김민선, 이연정
영사 관리	양상헌
현장 스틸	김승환(STUDIO DADA)
영상 촬영	류승진, 최민서, 이희찬, 김용기(땅도프로덕션)
광고 디자인	이관용, 김다슬, 배은별, 박채영, 한누리(스푸트닉)

행사 소개

보다 평등한 세상을 꿈꾸며,
한국 영상콘텐츠의 현재를 점검하다

벡델데이는 한국영화 속 성평등 현황을 돌아보고 문화적 다양성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2020년 첫선을 보였다. 미국 만화가 앨리슨 벡델이 고안한 세 개의 벡델테스트 기준에 네 개를 더한 '벡델테스트 7'을 만들고 이에 기반해 그해의 가장 성평등한 영화와 시리즈 각 10편씩을 '벡델초이스10'으로, 성평등에 기여한 영상 창작자들을 감독(연출), 작가, 배우, 제작자 등 네 개 부문으로 나눠 '벡델리안'으로 선정함으로써 성평등 인식은 물론 문화 다양성 제고에 힘쓰고 있다.

올해의 주안점

관객과 호흡하며,
벡델데이의 영역을 확장하다

올해로 다섯 번째를 맞이한 벡델데이는 9월 7일(토) 인디스페이스에서 다양한 토크 프로그램으로 관객들을 만났다. 올해도 홍대입구역에 근방에 위치한 인디스페이스에서 열릴 이벤트를 준비해 다채로운 관객과 더욱 가까이 만나는 것을 목표로 했다. 또한 2022년부터 벡델데이의 시선을 시리즈 부문으로 확장해 K-콘텐츠 전반을 아우르며, 다양한 목소리를 내는 더 많은 K-콘텐츠를 격려하고 응원하는 기회를 마련했다.

슬로건 & 포스터

E롭게 GENDER E퀄리티

벡델데이 2024의 슬로건 'E롭게 GENDER E퀄리티'를 담은 포스터에서 가장 돋보이는 것은 극장과 관객을 비추는 여러 개의 눈을 가진 핫핑크의 벡델 크리처다. 여러 개의 눈으로 영화와 시리즈를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다는 벡델데이의 의지와 다짐이 담긴 상징과도 같은 캐릭터다. 여기에 차근차근 다음 계단을 밟고 나아가는 청록 빛깔의 길은 보다 나은 세상을 향하여 포스터 밖으로 무한하게 이어진다. 벡델 크리처의 시선 역시 뻗어나간 길을 향해 있어 벡델데이가 추구하는 세상을 상상하게 만든다. 올해의 슬로건에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알파벳 'E'는 차별 없이 동등하다는 의미의 '이퀄(Equal)'을 의미하며, 대문자와 소문자가 섞인 채로 자유롭게 떠다니는 알파벳은 창의성과 다양성에 대한 메시지를 시각적으로 구현하며 시선을 사로잡는다.



포스터 디자인
스푸트닉

리더 필름






벡델데이는 2022년에 공개한 벡델데이만의 아이덴티티를 보여주는 리더필름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리더필름에는 신비로운 숲 안에서 문을 여는 벡델이의 모습이 보인다. 벡델의 눈 형상을 한 문을 열고 밝은 곳으로 나아가는 벡델이의 모습에는 성평등 관점으로 미래를 밝히고자 하는 벡델데이의 의지가 담겼다. 영상은 권정록, 김현수, 이규민이 작업했다.

트레일러









벡델데이 2024 트레일러는 ‘여러 개의 눈으로 한국 영화영상 미디어 콘텐츠를 자세히 들여다보겠다’는 벡델데이의 의지와 다짐을 상징하는 벡델 크리처가 극장을 채워가는 것으로 시작된다. 이어 양성평등 콘텐츠의 가치를 논하는 장을 열고, 관객들에게 다양한 시각과 목소리를 제공하여 ‘성평등한 영화·시리즈가 만드는 보다 나은 세상’을 향해 나아가기를 기대하는 벡델데이의 바람처럼 경쾌하게 흘러간다. 이후에는 9월 7일(토) 인디스페이스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을 소개한다.

벡델초이스10 & 벡델리안

ELDER

벡델초이스10

영화 부문

성평등한 가치를 실천한 영화와 시리즈를 조명하는 벡델데이가 올해로 5회를 맞았다. 지난 시간 벡델데이는 '성평등 구현'이라는 테스트 항목을 가지고 한국영화의 성취와 발전을 점검해 왔다. 그 시작에는, 한국영화 콘텐츠와 제작진의 구성에 있어 가시적인 성비 불균형에서 오는 문제점을 점검하고 앞으로 나가고자 하는 뚜렷한 목표지점이 있었다. 더불어 미투운동으로 촉발된 성평등의 사회적 인식 개선, 여성 창작자의 참여도와 목소리의 증가 같은 가시적인 변화를 수렴함으로써 벡델데이가 성평등한 콘텐츠를 만드는데 긍정적으로 역할 하기를 바랐다.

올해는 지난 1년간 개봉한 영화, 공개된 OTT 오리지널 영화 총 108편의 영화를 대상으로 벡델초이스 10과 벡델리안을 선정했다. 심사에서도 우선, 한국영화 산업의 부진한 토대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커다란 이슈였다. 영화진흥위원회가 발표한 '2024년 6월 한국 영화산업 결산 보고서'에 따르면 올 상반기 극장 매출, 흥행 부진, 한국영화 제작 위축 등 제작부터 상영 단계 모두 경고등이 켜진 상황이 수치로 확인되고 현실화되고 있다.

이같은 분위기가 제작과 투자, 창작에 영향을 미치고 관객과의 만남으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영화진흥위원회가 발표한 '2023년 한국영화 성인지 결산'에 따르면 순제작비 30억 이상의 상업영화 시장은 판데믹 이후 '고예산·남성' 중심으로 편성되고, 저예산 및 독립·예술영화의 편수가 줄어드는 가운데, 상업영화 안에서 여성 주연의 감소, 뿐만 아니라 고예산 영화의 여성 감독의 저조, 여성 감독의 상업영화 진출 감소 등 여성 핵심 창작 인력들의 기회 감소 등도 어느 해 보다 도드라지고 있다.

이렇게 상황이 어렵다 보니 우선은 한국영화의 회복, 관객 유입이라는 목표가 무엇보다 우선시 되는 분위기다. 투자, 제작에 있어서 흥행을 담보로 한 보수적인 기준의 적용은 결국 다양한 가치의 실종, 위축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 이 가운데 당장의 위기 극복보다 한 발 더 나가, 미래적인 영화의 가치를 점검하는 벡델데이의 시각이 더 많이 요구되는 때이자, 창작 단계의 성평등한 구조를 점검하는 우리의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이유일 것이다.

창작자와 대중이 만나 함께 성평등의 가치를 실천하는데 앞장선 이들에게 우리의 행사는 작지만, 성평등한 가치를 실현하는 데 있어 수상자들의 기여와 공로가 결코 작지 않음을 알리고자 한다. 벡델데이가 단순 수상에 그치지 않고 보다 성평등한 콘텐츠를 만들기 위한 쟁점을 논의하는 자리를 만들어 가는 것도 이곳이야말로 더 큰 목표에 자칫 미뤄질 성평등의 가치를 위한 의견 교환의 장으로 역할 하기를 바라서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성평등한 가치를 잃지 않고 관객들에게 다양한 시각을 제공하며, 주제의식을 견지한 영화들을 심사 과정에서 다수 만날 수 있었다. 다양해진 목소리로 고군분투한 영화들에 대해 심사위원들의 가치 평가가 앞으로의 영화를 만드는데 더 많은 에너지를 전달해 주길 바란다.

이화정(벡델데이 2024 프로그래머)

교토에서 온 편지

감독 김민주 | 출연 한선화 차미경 한채아 송지현 | 작가 김민주 | 101min | ⑫



사진 제공 한국영화아카데미



영화는 식민주의와 근대화 등 거대 역사 기술에서 지워져 저 깊은 장롱 속 어딘가로 파묻혀 버린 일상 속으로 카메라를 들고 들어가 가려졌던 것들을 하나하나 스크린 위로 길어 올린다. 과거에는 이런 기록들이 지엽적이고 사소한 것들이라고 폄하되곤 했지만, 기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이야말로 역사다.

손희정(영화평론가)

책임감 때문에 집을 떠날 수 없었던 첫째 혜진(한채아), 작가를 꿈꿨지만 빈 손으로 돌아온 둘째 혜영(한선화), 가족을 떠나 서울에서 자유를 꿈꾸는 막내 혜주(송지현), 그리고 혼자서 세 자매를 키운 엄마 화자(차미경). 좋든 싫든 떠나기 어려웠던 고향, 부산 영도에서 나고 자란 세 자매는 우연히 오래된 일본어 편지 꾸러미를 발견하고 50년간 엄마가 가슴 속에만 묻어왔던 비밀을 알게 된다.

너와 나

감독 조현철 | 출연 박혜수 김시은 | 작가 정미영 조현철 | 118min | ⑫



사진 제공 (주)필름영



영화는 모두가 파국을 말할 때에도 끝까지 사랑을 말한다. 어쩌면 '정상성에의 강요'가 이미 파국인 이들에게는 고통 속에서도 '함께'를 상상하고 그로부터 일종의 피난처를 구축하는 힘이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그렇게 편견은 물론 종차(種差)조차 넘어 서로를 돌보는 퀴어한 피난처를 만드는 일이 우리를 구원할 수도.

손희정(영화평론가)

"오늘은 너한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수학여행을 하루 앞둔 오후, 세미는 이상한 꿈에서 깨어나 하은에게로 향한다. 오랫동안 눌러왔던 마음을 오늘은 반드시 전해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들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넘쳐 흐르는 마음과 달리 자꾸만 어긋나는 두 사람. 서툰 오해와 상처를 뒤로하고, 세미는 하은에게 진심을 고백할 수 있을까?

물비늘

감독 임승현 | 출연 김자영 홍예서 정애화 | 작가 임승현 김승현 | 99min | ⑫



사진 제공 플라시보 픽쳐스



<물비늘>은 특별한 이야기를 보여주겠다는 욕심보다는 “묵묵히 마음 한구석에 덩어리를 간직한 채 살아가는 이들의 이야기로 만들고 싶었다”는 감독의 말처럼 묵묵하게, 묵직하게 그들의 삶의 무게를 고스란히 전달함으로써 특별한 영화가 된다. 영화가 끝나고 나서도 계속 이어질 그들의 삶이 지금만큼은 힘들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게 된다.

이언희(영화감독)

‘예분’은 손녀 ‘수정’을 사고로 잃은 뒤 삶이 1년 전 그날에 멈춰버렸다. 손녀의 유해를 찾기 위해 매일 같이 강가에 나가는 ‘예분’ 앞에 손녀의 절친 ‘지윤’이 나타난다. 두 사람에겐 들어야 할 진실이 있고, 삼켜야 할 비밀이 있는데… 진실과 비밀 사이 깊은 슬픔이 일렁인다

밀수

감독 류승완 | 출연 김혜수 염정아 조인성 박정민 김종수 고민시 | 작가 류승완 김정연 최차원 | 129min | ⑮



사진 제공 (주)외유내강



여성의 연대라는 보편적인 주제를 한국 여성으로만 존재 가능한 해녀라는 특수성 안에서 풀어냈다. 김혜수, 염정아 등 각기 다른 경로로 한국영화계를 관통하는 배우들의 활약까지 화룡점정. ‘한국’, ‘여성’, ‘영화’, 어떤 키워드를 우위에 두더라도 충족시켜줄 영화.

성찬얼(씨네플레이 기자)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 평화롭던 바닷가 마을 군천에 화학 공장이 들어서면서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은 해녀들. 먹고 살기 위한 방법을 찾던 승부사 ‘춘자’(김혜수)는 바다 속에 던진 물건을 건져 올리기만 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는 밀수의 세계를 알게 되고 해녀들의 리더 ‘진숙’(염정아)에게 솔깃한 제안을 한다. 위험한 일임을 알면서도 생계를 위해 과감히 결단을 내린 해녀 ‘진숙’은 전국구 밀수왕 ‘권 상사’를 만나게 되면서 확 커진 밀수판에 본격적으로 빠지게 된다. 그러던 어느 날, 일확천금을 얻을 수 있는 일생일대의 기회가 찾아오고 사람들은 서로를 속고 속이며 거대한 밀수판 속으로 휩쓸려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물길을 아는 자가 돈길의 주인이 된다!

비밀의 언덕

감독 이지은 | 출연 문승아 임선우 | 작가 이지은 | 122min | ⓖ



사진 제공 오스프링 필름



12살 여자아이 명은은 완벽하지 않다. 제 욕심에 거짓말도 일삼는다. 한국영화에 이토록 '나쁜' 소녀는 처음이다. 영화는 다크한 명은을 비난하거나 다그치지 않는다. 스스로 잘못된 궤도를 수정할 수 있도록 명은의 시공간을 만들어 준다. 남성 성장 서사의 부수적 역할에 그쳤던 여자아이들에게도 이로써 '기댈' 언덕이 생겼다. <우리들>과 <벌새>를 보유한 한국 여성 성장영화의 계보를 잇는 기록할 만한 작품의 출현이다.

이화정(벡델데이 2024 프로그래머)

가족은 무엇일까요? 저에게 가족은 물음표에요 모두에게 사랑받고 싶은 감수성이 풍부하고 예민한 5학년 소녀 '명은'이 글쓰기 대회에 나가 숨기고 싶었던 진실과 마주하는, 그 시절 나만 아는 이 여름 우리가 꺼내 보는 비밀스러운 이야기

소풍

감독 김용균 | 출연 나문희 김영옥 박근형 | 작가 조현미 | 114min | ⑫



사진 제공 (주)로케트필름



벡델초이스에 이 영화가 선정된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듯하다. 이 영화는 우리가 너무 사랑하고 존경해 마지않는 배우분들이 본인들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하는 영화다. 한국 사회가 고령화되며 노인 인구가 늘고 있다는 걱정 섞인 소식에 비해 나이가 드는 것은 이상하게도 소수자가 되게 만들고 그만큼의 소외감을 느끼게 한다. 그런 소외감을 더더욱 부추기는 한국영화계에서 <소풍>은 그야말로 반가운 영화다. 관객들의 공감까지 얻어내었다는 것에 대해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

이언희(영화감독)

60년 만에 찾아간 고향, 16살의 추억을 만났다. 요즘 들어 돌아가신 엄마가 자꾸 꿈에 보이는 은심(나문희). 마침 절친이자 사돈 지간인 금순(김영옥)이 연락도 없이 불쑥 찾아오자, 은심은 금순과 함께 고향 남해로 떠나기로 한다. 그곳에서 우연히 자신을 짝사랑하던 태호(박근형)를 만나며 잊고 지낸 추억을 하나둘씩 떠올리게 되는데… "다음에 다시 태어나도 네 친구 할 끼야" 한 편의 시가 되는 우정, 어쩌면 마지막 소풍이 시작된다.

시민덕희

감독 박영주 | 출연 라미란 공명 염혜란 박병은 | 작가 박영주 | 114min | ⑮



사진 제공 (주)씨제스 스튜디오



범죄 피해를 직접 해결한다는 것. 즉, 범죄자와 직접 맞서겠다는 것은 사실… 무섭다. 한 평범한 여성이 이 두려움을 이겨내고 앞으로 나아간다. 보이스피싱 앞에 한없이 작아지는 공권력. 다 비켜! 내가 직접 해결한다! 영화 속 허구에서만 존재할 것 같은 얘기가 실화라는 게 더 아이러니. 심각한 수사물임에도 웃음을 잃지 않는 연출과 여성 4인방의 캐릭터는 가히 볼매라 하겠다.

최정화(문샷필름 대표)

내 돈을 사기 친 그 놈이 구조 요청을 해왔다! 세탁소 화재로 인해 대출상품을 알아보던 생활력 만렙 덕희에게 어느 날, 거래은행의 손대리가 합리적인 대출상품을 제안하겠다며 전화를 걸어온다. 대출에 필요하다며 이런저런 수수료를 요구한 손대리에게 돈을 보낸 덕희는 이 모든 과정이 보이스피싱이었음을 뒤늦게 인지하고 충격에 빠진다. 전 재산을 잃고 아이들과 거리로 나앉게 생긴 덕희에게 어느 날 손대리가 다시 전화를 걸어오는데… 이번엔 살려달라는 전화다! 경찰도 포기한 사건, 덕희는 손대리도 구출하고 잃어버린 돈도 찾겠다는 일념으로 필살기 하나씩 장착한 직장 동료들과 함께 중국 칭다오로 직접 날아간다.

잠

감독 유재선 | 출연 정유미 이선균 | 작가 유재선 | 94min | ⑮



사진 제공 (주)루이스픽쳐스



<잠>은 미스터리 호러영화의 획기적인 한국적 변주다. 더불어 그간 장르 안에서 수동적이라서, 전개를 지연시킨다는 이유로 지탄받아 온 여성 캐릭터들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캐릭터의 완벽한 변주다. 부부의 일상이 깨질 무시무시한 침범 앞에서 잠의 여성 캐릭터 수진은 뒷걸음치지 않는다. 두렵지만 맞서고 깨져도 나아간다. 그렇게 장르의 고정관념을 깨는 캐릭터를 만나는 쾌감을 선물처럼 선사한다.

이화정(벡델데이 2024 프로그래머)

행복한 신혼부부 '현수'(이선균)와 '수진'(정유미). 어느 날, 옆에 잠든 남편 '현수'가 이상한 말을 중얼거린다. "누가 들어왔어" 그날 이후, 잠들면 마치 다른 사람처럼 변하는 '현수'. 깨어나면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현수'는 잠들면 가족들을 해칠까 두려움을 느끼고 '수진'은 매일 잠드는 순간 시작되는 끔찍한 공포 때문에 잠들지 못한다. 치료도 받아보지만 '현수'의 수면 중 이상 행동은 점점 더 위험해져가고 '수진'은 곧 태어날 아이까지 위험에 빠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갖은 노력을 다해보는데…

정순

감독 정지혜 | 출연 김금순 윤금선아 조현우 | 작가 정지혜 | 105min | ⑮



사진 제공 시네마루



연민으로 시작된 사랑. 배신으로 돌아오다… 남은 건 복수다! 가해자 앞에 당당히 서는 순간, 응징은 시작된다! 성범죄 피해 여성이 일상으로 복귀하여 가해 남성 앞에 당당히 선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응징이 가능하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영화. 피해자인 당신은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최정화(문샷필름 대표)

하루아침에 평화로운 일상을 빼앗긴 정순. 딸 유진을 비롯한 모두가 정순을 대신해 분노할 때, 그녀는 여전히 곧고 다정하게 '정순'다운 내일을 시작하려 한다. 전 세계를 감동시킨 세상 가장 빛나는 이름 <정순>

지옥만세

감독 임오정 | 출연 오우리 방효린 정이주 박성훈 | 작가 임오정 | 109min | ⑫



사진 제공 한국영화아카데미



증오와 혐오로 점철된 세상에서 살아남기에, 이상은 때때로 걸림돌이다. <지옥만세>는 공감대 형성과 연대에서 살짝 비껴간다. 완벽한 용서도, 이해도 불가능하다고 인정한다. 그래서 온갖 난잡함에도 자신을 잃지 않고 세상에 다시 발 딛는 나미(오우리)와 선우(방효린)의 모습은 세상 가장 아름다운 부화로 보인다. 세 배우와 임오정 감독이 앞으로도 좋은 작품으로 "웰컴 백 투 헬"하길.

성찬얼(씨네플레이 기자)

K-지옥의 정점에서 세상의 종말을 외치는 쏭남 그리고 종말을 외칠 기력도 남지 않은 황구라 두 소녀의 급발진은 박채린의 유학 소식으로부터 시작됐다. 우릴 지옥으로 내몰고 한국을 떠? 그 X 앞길을 막을 수 없다면, 두고두고 거슬릴 기스 정돈 낼 수 있겠지! 그런데… 오히려 우리가 박채린의 구원이라니? 이게 무슨 불온한 소리람? 구원? 누가 누굴? 믿어? 누가 누굴! 복수가 구원이 되어버릴 위기에 처한 쏭남과 황구라의 지옥행 수학여행기! 오키오키! 가보자고!

감독 이지은



영화는 각자 하나의 세계지만, 보통은 현실에 뿌리를 둔다. 드라마라면 특히 다른 요소가 세계를 잡아먹지 않도록 현실적 세계를 탄탄하게 구성해야 한다. 그런 면에서 <비밀의 언덕>은 이지은 감독이기에 가능한 작품이었다고 판단한다. 이 영화의 입체적 캐릭터들은 결국 영화적 세계와 현실이 유리되지 않았기에 관객의 마음에 안착했으리라. 명은을 연기한 문승아를 비롯해 배우들이 각자의 캐릭터를 완성했다면, 그들이 땅을 딛고 있는 세계는 이지은 감독의 몫이다. 특히 영화 속 깔깔거리며 생기 넘치는 초등학교 학급의, 넉넉하지 않은 형편의 가정만의 미묘하게 무거운 공기는 이지은 감독의 역량을 엿보게 한다. 이미 각종 영화제와 평론가 및 관객에게 박수받은 <비밀의 언덕>을 다시금 지목하는 이유는, 작품이 깊게 뿌리내리고 있어 미처 주목받지 못한 이지은 감독의 묘사력과 현장 장악력을 제대로 반추해 보자는 신호라고 봐주면 되겠다.

성찬얼(씨네플레이 기자)

Filmography

비밀의 언덕(2023)
산타클로스(단편, 2019)
정리(단편, 2018)
I am(단편, 2016)

작가 김민주



자전적 이야기로부터 보편적 공감을 불러내는 힘이 놀라운 작품이다.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건 영화가 놓치지 않고 세공해 낸 삶의 디테일들이다. 그건 단순히 이미지의 해상도를 증폭시켜 각종 '사소한 것'들로 볼거리를 충당하고 말초적인 감정을 자극하는 쇄말주의자의 그것과는 확연히 다르다. 제사 절차를 어겼다는 걸 깨닫고 내뱉는 "아이고, 죄송합니다 "라는 애정 어린 한마디, 조리실에서 함께 일하는 친구가 입안에 넣어주는 계란말이, 팥을 지나치게 으깨지 않아야 식감을 살릴 수 있다는 어머니의 팥죽 레시피…. 그렇게 시간 속에 쌓인 디테일이 한 사람의 기억이 되고, 인생이 된다. 그 기억이 가진 '살게 하는 힘'을 이해하는 사람이라야 이 영화가 만들어내는 삶의 질감을 감각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감각은 기어코 우리를 놀라운 감정적 전회로 이끈다. 김민주 감독의 작가로서의 역량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다.

손희정(영화평론가)

Filmography

교토에서 온 편지(2023)
해리(단편, 2018)
김희전(단편, 2018)
티치 미(단편, 2016)

배우 라미란



배우 라미란에게 연기를 운운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 보인다. 어떠한 캐릭터도 찰떡처럼 소화해 내는 그의 연기는 관객에겐 행복이다. 라미란이 연기하는 캐릭터에 빠지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억척스러움이 아닐까? 보이스피싱을 당한 덕희에게서, 정치인이 된 상숙에게서, 촉망받던 검사에서 갑자기 바보가 되어버린 아들의 나쁜 엄마에게서도. 시대를 살아 낸, 살아내야 하는 대한민국의 엄마로서, 중년 여성으로서의 억척스러움이 가득 배어난다. 형사들마저 포기해 버린 보이스피싱범을 잡아내는 상숙처럼,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모든 중년 여성들에게, 세상에 당당히 맞설 수 있음을 가감없이 보여주는 라미란이 펼쳐내는 세계에 경의를 표한다.

최정화(문샷필름 대표)

Filmography

정년이(2024)
시민덕희(2024)
잔혹한 인턴(2023)
나쁜 엄마(2023)
고속도로 가족(2022)
컴백홈(2022)
정직한 후보2(2022)
내과 박원장(2022)
정직한 후보(2020)
걸캅스(2019)
블랙독(2019)
내안의 그놈(2019) 외 다수

제작자 강혜정



한국 영화시장에서 여성 캐릭터들이 오롯이 중심에 서있는 텐트폴 영화를 볼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밀수>는 충분한 의미를 가지는 작품이다. <밀수>의 제작자인 강혜정은 제작사 외유내강을 통해 <엑시트>, <시동>, <인질>, <사바하>, <너의 결혼식> 등의 영화도 꾸준히 제작하고 있다. 조금만 들여다보면 그가 얼마나 한국 영화계에서 굳건하게 버티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그 꾸준함과 굳건함 덕분에 너무 익숙해져 오히려 그 존재감을 우리가 잊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게 된다. 강혜정이라는 제작자가 없었다면 우리가 보지 못했을 한국영화들이 얼마나 많았을지. 이번 벡델데이를 계기로, 상대적으로 감독과 배우의 그늘에 가려있는 그 존재에 감사와 존경을 표하며 앞으로도 꾸준하고 굳건하게 우리에게 의미 있는 한국영화들을 많이 보여주기를 기대해 본다.

이언희(영화감독)

Filmography

베테랑2(2024)
천박사 퇴마 연구소(2023)
밀수(2023)
인질(2021)
모가디슈(2021)
시동(2019)
엑시트(2019)
사바하(2019)
너의 결혼식(2018)
군함도(2017)
여교사(2017)
베테랑(2015) 외 다수

벡델초이스10

시리즈 부문

성평등한 가치를 실천한 영화와 시리즈를 조명하는 벡델데이에서 시리즈의 점검은 이제 어느 것보다 중요한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저조한 극장가의 분위기와 대조적으로 시리즈가 활황기를 맞으면서, 투자 제작의 급증, 창작 인력의 쏠림 현상, 다양한 플랫폼을 통한 물량 공급이 지속적으로 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 작품의 성평등 구현, 제작진의 성비 구성 등 짚어봐야 할 것들이 꾸준히 대두되고 있다.

그럼에도 올해는 극장의 대안으로 읽히던 OTT 시장에도 위기의 신호가 읽힌 점에서 변화를 읽을 수 있는 한 해였다. 극장을 찾지 않는 관객들이 시리즈의 사용자로 등가 전환 되던 판데믹 시기와 달리, 올 한해는 늘어난 플랫폼과 쏟아지는 물량에 '구독 피로'를 토로하는 사용자들도 적지 않았다. 실제 글로벌 OTT 업체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의 구독자 감소. 신규 구독자 유치 저조로 인한 구독료 인상과 이에 따른 구독자 이탈이 불러온 영향을 간과할 수 없다.

산업적으로 볼 때 급증한 시리즈 제작으로 제작인력이 유입됐던 지난해와 달리, 편성의 어려움으로 창고에 묶인 작품들이 늘어나고, 제작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투입됐던 인력들이 오히려 이제는 이탈하는 것을 감당해야 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특히 'K-콘텐츠'로 소개되어 전 세계에 반향을 낳은 OTT 시리즈물의 급증이 자생력을 갖추었다기보다 글로벌 OTT 기업의 투자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전에는 기회였던 것이 곧 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체감하는 한해기도 했다. 투자의 위기가 불러올 후폭풍을 오리지널 OTT 시리즈의 근간 자체를 점검해야 할 때다.

올해 시리즈의 성평등한 가치 실현과 성과도 이같은 산업적인 토대를 바탕으로 읽혀진다. 올해는 지난 1년간 공개된 OTT 시리즈 총 91편의 작품을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위원들은 작품 수의 물량에 있어서 수적 증가가 보장되었음에도 전년도 대비 새로운 시도의 감소를 올해 시리즈의 특징으로 꼽았다. 기획의 참신성이 부족하다 보니 대중적 반향을 일으키는 데도 한계가 있었다는 것이 중론이다. 공중파보다 OTT 오리지널의 작품이 소재, 주제인 측면에서 더 다양한 시도를 한다는 점을 읽을 수 있었다. OTT 플랫폼과 공중파의 다양성 수용 정도가 다른 점은 실제 제작진에게서도 크게 체감하는 지점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성평등한 관점에서 괄목할 만한 지점들도 발견할 수 있었다. 여성 배우들의 파워에서는 긍정적인 신호도 읽혔다. 여성 주연 배우를 토대로 기획이 진행되거나, 장르 자체를 책임질 수 있는 대중적 호응과 역량을 갖춘 배우들의 증가도 읽어 볼 수 있었다.

올해는 주요 작품의 경우 제작진의 성비 구성에도 변화가 보인다. 제작진의 변화가 눈에 띈다. 보수적인 관점으로 벡델초이스를 볼 때, 여성 서사를 이끌던 여성 감독, 작가의 수가 대다수였던 작년과 달리 올해는 남성 감독, 작가 등이 만드는 여성 서사 콘텐츠가 적지 않음을, 증가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올해로 세 번째 시리즈의 성평등 지수를 점검하면서 시리즈 제작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도 점검하는 계기가 되었다. 빠른 제작, 물량의 확보, 구독자를 늘리기 위한 자극적인 시도, 오리지널 대본의 감소 등 시리즈 제작이 현재 안고 있는 사항들을 꾸준히 점검하고 지적해 나가야 할 부분이다. 벡델데이 역시 이같은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우리의 행사가 단순한 수상에 그치지 않고 보다 성평등한 콘텐츠를 만들기 위한 쟁점을 논의하는 자리를 제공하기를 바라본다.

시리즈가 봉착한 문제지점들은 낡고 오래되거나 진부하지 않은 막 대두된 문제점들이다.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개선해 나가, 한국 시리즈의 고유성과 독창성을 더 크게 발전시킬 기회이기도 하다. 올해도 다양한 목소리를 잃지 않으려 창작 단계에서 분투한 작품들에 대한 심사위원들의 가치 평가, 벡델데이의 조명이 앞으로의 발전된 시리즈를 만드는 데 일조하기를 바란다.

이화정(벡델데이 2024 프로그래머)

남남

연출 이민우 | 출연 전혜진 최수영 안재욱 박성훈 | 작가 민선애



사진 제공 KT스튜디오지니



여성과 소수자의 서사도 이렇게나 재미있고 유쾌할 수 있음을 보여준 시리즈. 싱글맘, 미혼모, 가정폭력 문제 등 사회의 사각지대를 따뜻한 시선으로 조명하면서도, 자신의 젊은 엄마(전혜진)의 연애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진희(최수영) 만큼이나 너무 무겁지 않되, 그렇다고 마냥 나이브하지는 않은 톤으로 밸런스를 조절한 작품.

김지연(씨네플레이 기자)

철부지 엄마와 쿨한 딸의 '남남' 같은 대환장 한 집 살이와 그녀들의 썸과 사랑을 그린 드라마

무인도의 디바

연출 오충환 소재현 | 출연 박은빈 김효진 채종협 | 작가 박혜련 은열



사진 제공 스튜디오드래곤



무인도의 시간은 가정 폭력 생존자가 오래도록 벗어날 수 없는 고립과 트라우마의 은유다. 청춘 로맨스에서 판타지로, 연대와 희망의 찬가로 거듭나는 성장담. 약자의 힘겨운 이야기를 끝까지 새겨듣게 만드는 총천연색 변주가 돋보인다. 박은빈의 청량한 보컬은 화룡점정.

나원정(중앙일보 기자)

15년 만에 무인도에서 구조된 가수 지망생 서목하의 디바 도전기

밤에 피는 꽃

연출 장태유 최정인 이창우 | 출연 이하늬 이종원 김상중 이기우 | 작가 이샘 정명인



사진 제공 mbc



남성 캐릭터에게 국한되었던 '복면 쓴 액션 히어로', 조선시대로 따지자면 홍길동을 여성 캐릭터로 치환한다. 단순 변환에 그치지 않고 여성을 향한 공고한 차별의 담을 넘나드는 캐릭터 여화의 미래지향적 활약상이 생기있게 펼쳐진다. 대중적 장르라는 쉬운 문법을 따르면서도 성취의 지점을 놓치지 않고 전진하는 드라마.

이화정(벡델데이 2024 프로그래머)

밤이 되면 담을 넘는 십오 년 차 수절과부 '여화'와 사대문 안
모두가 탐내는 갓벽남 종사관 '수호'의 담 넘고 선 넘는 아슬아슬 코믹 액션 사극

사랑한다고 말해줘

연출 김윤진 김문교 | 출연 정우성 신현빈 김지현 | 작가 김민정



사진 제공 스튜디오지니, 스튜디오앤뉴



수어는 청각이 아닌 시각에 특화된 언어로 수어로 말을 할 때는 상대방과의 시선 마주침이 많다. 서로 마주 보지 않으면 대화를 나눌 수 없는, '관계의 친밀도'가 굉장히 높은 언어가 바로 수어다. <사랑한다고 말해줘>는 사람과 사람이 대화하는 데 중요한 것은 언어가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을 증명해낸 모범사례이자 수어 자막과 목소리 더빙을 의도적으로 자제하는 '친근한 무례함'을 통해 소수자, 타인, 그리고 인간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세계로 초대하는 '아름다운 러브레터'다.

김민정(중앙대학교 문예창작전공 교수)

손으로 말하는 화가 차진우와 마음으로 듣는 배우 정모은의 소리 없는 사랑을 다룬 클래식 멜로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

연출 이재규 김남수 | 출연 박보영 연우진 장동윤 이정은 | 작가 이남규 오보현 김다희



사진 제공 넷플릭스



설명할 길이 없던 막막한 마음들이 다채로운 언어를 얻었다. 각 인물의 심리에 맞춰 장르를 달리한 연출이, 한 사람이 각기 하나의 우주라는 오랜 명제를 일깨운다. 삶에 충실한 웹툰 원작, 진심어린 영상화의 좋은 예. 개성 만점 새 얼굴이 빛난 올해의 배우 발굴터.

나원정(중앙일보 기자)

정신건강의학과 근무를 처음 하게 된 간호사 다은이 정신병동 안에서 만나는 세상과
마음 시린 사람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그린 넷플릭스 시리즈

졸업

연출 안판석 | 출연 정려원 위하준 | 작가 박경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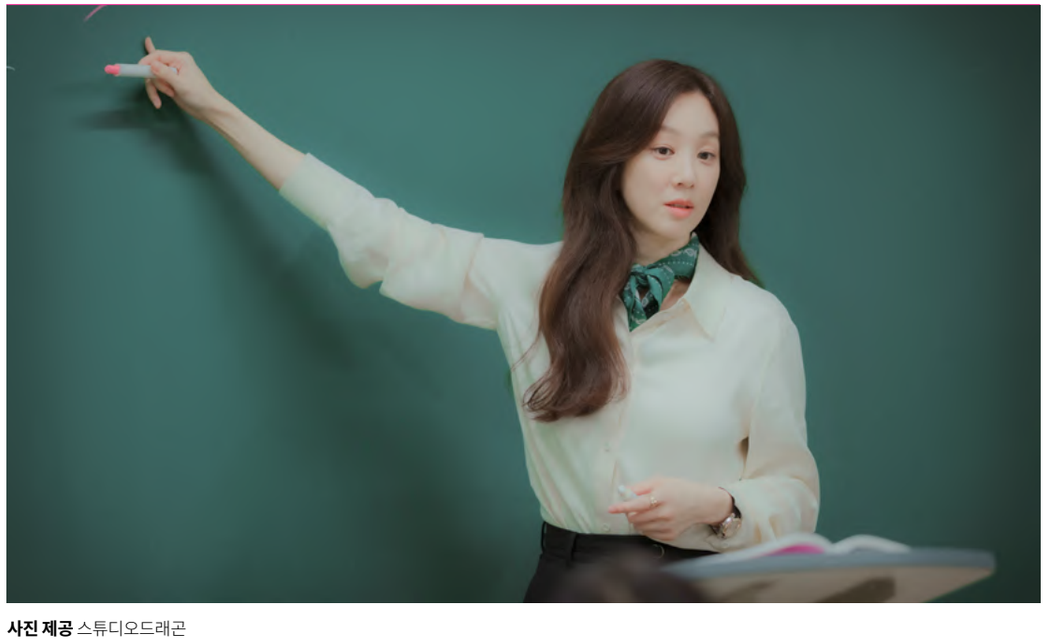


사진 제공 스튜디오드래곤



<졸업>은 공교육과 사교육, 연상녀와 연하남, 일과 사랑 등 진부하게 그려낼 수 있는 전형적인 요소들을 독창적인 방식으로 직조해 냄으로써 작품성과 대중성의 적절한 균형을 맞추는 데 성공하였다. 무엇보다 사회적으로 성공하거나 성공하려는 여성들의 이야기를 '욕망의 서사'로 제한하지 않고 '인간의 본질'을 지향하는 '정체성의 서사'로 확장하여 여성 서사의 스펙트럼을 넓혔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이루어낸다.

김민정(중앙대학교 문예창작전공 교수)

스타 강사 서혜진과 신입 강사로 나타난 발칙한 제자 이준호. 대치동에 밤이 내리면 이토록 설레는 미드나잇 로맨스가 시작된다.
우리가 미처 몰랐던 학원 강사들의 다채롭고 밀도 있는 이야기

킬러들의 쇼핑몰

연출 이권 노규엽 | 출연 이동욱 김혜준 서현우 | 극본 지호진 이권



사진 제공 diseny+



"잘 들어, 정지안" 그러나 단순히 잘 듣는 것을 넘어, 이 주인공(김혜준)은 한국 여성 원톱 액션물의 새로운 계보를 썼다. 여성 조연까지 힘하고도 스타일리시 한 개성으로 무장해, 독특한 매력이 돋보이는 작품.

김지연(씨네플레이 기자)

삼촌 '진만'이 남긴 위험한 유산으로 인해 수상한 킬러들의 표적이 된 조카 '지안'의 생존기를
다룬 스타일리시 뉴웨이브 액션

피라미드 게임

연출 박소연 | 출연 김지연 장다아 류다인 | 극본 최수이



사진 제공 TVING



학교폭력을 소재로 한 기존의 드라마들이 대체로 남학생들 사이의 육체적인 폭력을 다룬다면, <피라미드 게임>은 그의 대척점에서 다양한 여학생 캐릭터를 활용하여 복잡한 심리와 감정선에 기반한 독창적인 두뇌게임을 선보인다. 권력의 위계와 질서에 대한 도발적인 상상력에서 시작한 그 게임은 견고한 갑을 세계관에 유의미한 균열을 만들고 '사회의 축소판' 학교를 시대 변화의 공간으로 재정의함으로써 지금 여기 대한민국에서 '희망의 가능성', '가능성의 희망'을 발견해낸다.

김민정(중앙대학교 문예창작전공 교수)

한 달에 한 번 비밀투표로 왕따를 뽑는 백연여고 2학년 5반, "가해자, 피해자, 방관자"가 모두 섞여버린 그곳에서
점점 더 폭력에 빠져드는 학생들의 잔혹한 서바이벌 서열 전쟁

힘쎈여자 강남순

연출 김정식 이경식 | 출연 이유미 김정은 김해숙 옹성우 | 작가 백미경



사진 제공 SLL



'힘쎈여자 도봉순'을 잇는 K재벌 슈퍼 히어로판 스핀오프. 전무후무한 천하장사 모녀 3대가 탄생했다. 다루는 사회 문제, 계급 · 빈부 격차만큼, 만화 같은 상상의 스케일도 커졌다. 몽골 유목민, 조선족 등 다문화 캐릭터의 운용도 대범하다. 코믹 판타지의 탈을 쓴 사회 고발극.

나원정(중앙일보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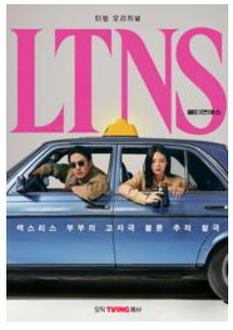
선천적으로 어마무시한 괴력을 타고난 3대 모녀가 강남을 중심으로 벌어지는 신종마약범죄의 실체를 파헤치는 글로벌 쓰리(3) 제너레이션 프로젝트

LTNS

연출 전고운 임대형 | 출연 이솜 안재홍 | 작가 전고운 임대형



사진 제공 TVING, 바른손스튜디오



단지 파격적이고 발칙한 소재를 다뤘기 때문이 아니라, 잘나가고, 아름답고, 돈 많은 사람들의 화려한 섹스 라이프가 아닌 그 이면, 즉 궁상맞고도 찌질하고, 가끔은 숨기고도 싶은 우리네 성 이야기가 필요했기에 대담한 시도다.

김지연(씨네플레이 기자)

짠한 현실에 관계마저 소원해진 부부 '우진'(이솜)과 '사무엘'(안재홍)이 돈을 벌기 위해 불륜 커플들의 뒤를 쫓으며 일어나는 예측불허 고자극 불륜 추적 활극.

감독 전고운·임대형





‘프리티 빅브라더’라는 이름으로 뭉친 두 감독은 ‘고운(pretty) 대형(big brother)’이라는 그들의 팀명만큼이나 직설적이고 재치 있는 시리즈를 만들었다. <소공녀> 감독과 <윤희에게> 감독이 함께 상상해 낸 <LTNS>(Long Time No Sex)는 단지 ‘성’을 전면에 다룬 파격적인 작품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인해 주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들이 화면에 옮기고자 했던 건 <소공녀>의 미소처럼 돈에 쪼들리는 소시민이거나, <윤희에게>의 윤희처럼 현실과 타협한 퀴어이거나. 우리가 사는 세상에 분명히 존재하지만, 미디어에서는 왠지 짠하게만 묘사되거나 혹은 주변인으로만 머물렀던 인물들이었다. 남자는 육체적인 사랑을 원하고, 여자는 감정적인 사랑을 원한다는 전형적인 성별 고정관념의 전복부터 남자 주인공의 이름이 ‘임박사무엘’인 것까지. 작품의 곳곳에 놓인 사소한 디테일마저 젠더 감수성을 놓치지 않으면서도, 현실의 구석구석을 예리한 눈으로 포착해 유쾌하게 표현하는 그들의 작업이 계속되기를 바라는 이유다.

김지연(씨네플레이 기자)

Filmography

전고운

LTNS(2024)
페르소나(2019)
소공녀(2018)
배드신(단편, 2012)
내게 사랑은 너무 써(단편, 2008)

임대형

LTNS(2024)
윤희에게(2019)
메리 크리스마스 미스터 모(2017)
만일의 세계(단편, 2014)
레몬타임(단편, 2012)

작가 박경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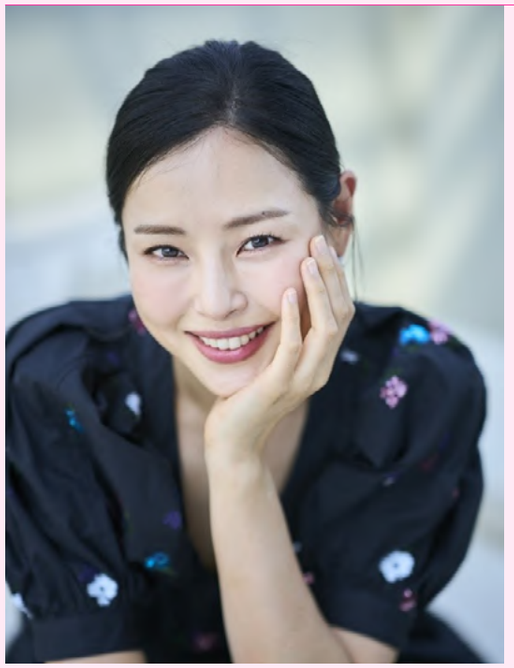
<졸업>은 2024년 대한민국에서 교육이란 무엇인지, 선생님이란 누구인지, 그 의미가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를 주목한 문제작이다. 대치동이란 사교육 전쟁터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사교육과 공교육의 대격돌. <졸업>은 사교육과 공교육의 갈등을 선과 악, 또는 옳고 그름의 이분법적인 관점으로 풀어내지 않고 신념과 신념의 논쟁적 대립 구도로 그려냄으로써 ‘교육의 본질’을 되새기는 유의미한 계기를 만들어낸다. 본질에 관한 작가의 집요한 탐구는 드라마 속 여성 캐릭터들을 형상화하는 방식에서도 도드라진다. 첫사랑 또는 연하남과 사귀는 연상녀와 같은 패턴화된 캐릭터로 소비될 수 있었던 여자 주인공에게 주체적 욕망을 부여하여 현실적인 입체성을 확보하는 한편, 사회적으로 성공하거나 성공하려는 여성들의 이야기를 ‘욕망의 서사’로 제한하지 않고 ‘인간의 본질’을 지향하는 ‘정체성의 서사’로 확장함으로써 그동안 성공을 통한 자아실현을 최고 미덕으로 삼았던 기존 여성 서사의 장르적 관습을 낯설게 하기에 성공하였다.

김민정(중앙대학교 문예창작전공 교수)

Filmography

<졸업>(2024)

배우 이하늬



선 모두를 아우르는 장르의 담을 넘으며 드라마의 텐션을 조율했다. 소복과 복면의 착장, 시대물의 의상에 가려졌지만, 여화의 면면은 배우의 전작을 통해 우리가 환호하고 희열을 느꼈던 강렬한 여성 캐릭터의 흥미로운 변주다. 가령 <극한직업>의 형사와 <블랙머니>의 국제 변호사, <킬링 로맨스>의 톱스타, <유령>의 독립운동가, <열혈사제>의 변호사의 조각모음이자, 또 다른 변형이다. 이번엔 가장 먼 과거로 걸어 들어가, 가장 미래적인 캐릭터를 대체 불가능한 배우 특유의 바이브로 만들어 낸다.이하늬는 작년 영화 부문 벡델리안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 벡델리안 수상이다. 그런 면에서, 한국의 장르물 속 전진하는 여성 캐릭터의 면모는 배우 이하늬의 범접 불가 카리스마에 일정 이상의 빚을 지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남성 배우가 다수를 장악하던 장르물의 영역에서, '배우 자체가 곧 장르의 구현'의 폭을 가진 여성 배우의 출현은 희귀하고 값지다. 오랜 상환 기간이 걸리더라도 이 배우에게라면 이 '빛나는 빚'을 질 수밖에 없다. 한국 콘텐츠의 성평등을 구현하는 중요 키워드. 배우 이하늬의 담 넘기에 응원을 보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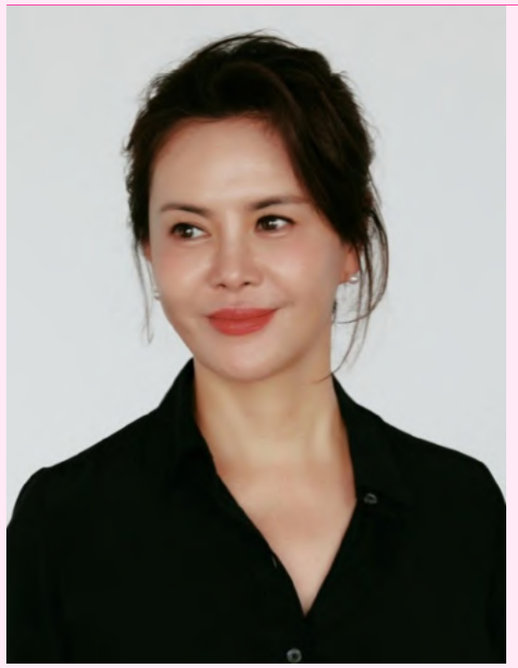
이화정(벡델데이 2024 프로그래머)

여화는 '담을 넘는' 캐릭터다. 넘어야 할 담이 한 둘이 아니다. 하나는 성차별이 일반화된 조선 시대, 청상과부로 금기의 담을 넘는다. 하나는 진짜 담이다. 이하늬는 촬영 당시 아이를 낳고 6개월밖에 안 된 몸으로 와이어를 타고 지붕을 날아다니면서 칼을 휘두르는 고난도 액션을 소화했다. 더 높은 담도 넘었다. 낮과 밤이 다른 두 얼굴을 가진 여화, 어느 쪽도 에너지를 잃지 않는 여성이어야 했다. 이하늬는 코믹과 액션, 드라마의 감정

Filmography

- *밤에 피는 꽃(2024)*
- *외계+인 2부(2024)*
- *킬링 로맨스(2023)*
- *유령(2023)*
- *외계+인 1부(2022)*
- *원 더 우먼(2021)*
- *열혈사제(2019)*
- *블랙머니(2019)*
- *극한직업(2019)*
- *부라더(2017)*
- *침묵(2017) 외 다수*

제작자 백미경



'힘쎈여자' 시리즈 뒤엔 여성 서사 장인 백미경 작가의 공동제작이 있다. <힘쎈여자 강남순> <품위있는 그녀> <마인> 등 작가로서 숱한 히트작을 낸 그는 2017년 여성 두 명이 주인공이란 이유로 투자 난항을 겪었고, 2019년 직접 제작사 '스토리피닉스'를 차렸다. "가장 나다운 드라마"라는 <힘쎈여자 도봉순>에 이어 <힘쎈여자 강남순>에선 초인적 괴력의 여성을 모계 3대로 확장하며 직접 시리즈화를 꾀했다. 재벌가 여성들의 연대에 초능력을 가미한 불의 응징 참교육 서사에 "작가가 작두 탔다" 감탄마저 터뜨리며, '도봉순' 시청률을 넘어섰다. 전작이 대부분 미국 리메이크 제안을 받았다는 그는 최근 영국 BBC 라디오에 '여성 슈퍼 히어로 K드라마' 창작자로 조명된 바다. 올해 드라마 <나는 대놓고 신데렐라를 꿈꾼다>에선 창작 총지휘 격인 '크리에이터'로 참여했다. 작가의 비전을 제작 과정까지 지켜내는 그의 뚝심이 K드라마에 새로운 길을 내고 있다.

나원정(중앙일보 기자)

Filmography

- *나는 대놓고 신데렐라를 꿈꾼다(2024, 제작)*
- *힘쎈여자 강남순(2023, 제작/극본)*
- *마인(2021, 극본)*
- *날 녹여주오(2019, 제작/극본)*
- *우리가 만난 기적(2018, 극본)*
- *흥부: 글로 세상을 바꾼 자(2018, 각본)*
- *품위있는 그녀(2017, 극본)*
- *힘쎈여자 도봉순(2017, 극본)*
- *사랑하는 은동아(2015, 극본)*
- *강구 이야기(2014, 극본)*


버블 테일
2024
2024년 09월 07일(토) 인디스페이스
성평등한 영화·시리즈가 만드는 보다 나은 세상


벡델
데이
2024
벡델리안과의 만남
위기의 산업,
양성평등 콘텐츠가 돌파한 것들
참석 | 이지은 감독, 김민주 감독, 전고운 감독
임대형 감독, 박경화 작가, 백미경 대표
진행 | 봉태규 배우
이화정 벡델데이 프로그래머
벡
델
데
이



사회자 이화정 벡델데이 2024 프로그램 봉태규 배우





영화 부문 올해의 벡델리안 작가상 <교토에서 온 편지> 김민주 감독

영화 부문 올해의 벡델리안 감독상 <비밀의 언덕> 이지은 감독





시리즈 부문 올해의 벡델리안 작가상 <졸업> 박경화 작가







시리즈 부문 올해의 벡델리안 감독상 <LTNS> 전고운·임대형 감독

시리즈 부문 올해의 벡델리안 제작자상 <힘쎈여자 강남순> 백미경 제작자



벡델 토크

벡델리안과의 만남
위기의 산업, 양성평등 콘텐츠가 돌파한 것들

벡델데이는 매년 차별과 소외를 벗어난 양성평등한 콘텐츠를 발굴해 왔다. 바른 시각의 콘텐츠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절대적이라는 걸 알기 때문이다. 벡델데이는 양성평등한 가치를 실현하며, 다양한 콘텐츠를 만드는 데 일조한 '벡델리안'과의 만남을 통해, 창작자가 콘텐츠의 다양성에 불러온 긍정적 변화를 살펴 보고자 한다. 영화 부문 감독상 <비밀의 언덕>의 이지은 감독, 작가상 <교토에서 온 편지>의 김민주 감독과 시리즈 부문 감독상 <LTNS>의 전고운·임대형 감독, 작가상 <졸업>의 박경화 작가, 제작자상 <힘쎈여자 강남순>의 백미경 제작자와 한자리에서 만난다. 최근 콘텐츠의 규모와 성과에 치중하는 산업의 분위기에서도 이들이 놓치지 않고 지킨 성평등의 가치를 살펴보고 콘텐츠의 변화를 함께 논의하는 귀중한 자리를 마련하고자 한다.

개요

일시 9월 7일(토) 15:00~16:30
장소 인디스페이스
진행 봉태규 배우, 이화정 벡델데이 2024 프로그래머
패널 <비밀의 언덕> 이지은 감독
<교토에서 온 편지> 김민주 감독
<LTNS> 전고운·임대형 감독
<졸업> 박경화 작가
<힘쎈여자 강남순> 백미경 제작자

이화정 안녕하세요. 저는 백델데이 프로그래머 이화정입니다.

봉태규 안녕하세요. 벡델데이 2024 사회를 맡은 봉태규라고 합니다.

이화정 올해도 또 어김없이 벡델데이와 함께해 주고 계셔서 저는 봉태규 배우님을 앞으로 '벡델지기'라고 부르려고요.

봉태규 벡델데이의 송해 선생님과 같은 그런 느낌으로. (웃음) 제가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굉장히 오랜 시간 이렇게 인사를 드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찔해하시는 분들이 좀 있네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화정 작년에도 보신 분들 계시죠? 봉태규 배우님과 벡델데이가 함께 하는 것을 응원하시면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봉태규 배우님이 이전에 심사위원으로도 참여해 주시기도 했고, 그 이후로 종속 계약처럼 사회까지 해주시고 있습니다. 늘 우리가 하는 얘기가 봉태규 배우님과 우리가 '이 행사를 하지 않는 그날이 오면 성평등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날이 된 거다'하는 그런 얘기를 농담처럼 하잖아요.

봉태규 그런 날이 오기를 기대하면서, 더 많은 희망을 품고 이런 행사를 작게라도 진행하는 거겠죠.

이화정 맞아요. 그래서 봉태규 배우님을 비롯해 많은 영화인들이 벡델데이에서 연락을 드리면 인지해 주시고, 도움도 많이 주시고요. 무엇보다도 이 자리에, 이 날씨 좋은 주말에 극장에 와서 같이 이렇게 함께해 주시고 손뼉 쳐주시는 관객분들이 늘어났다는 것도 벡델데이의 성과인 것 같아요.

봉태규 그리고 저는 올해 특히 슬로건이 굉장히 멋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성평등한 영화 시리즈가 만드는 보다 나은 세상' 너무 멋있죠. 이런 것들이 사실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저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 직업인들에게 조금 더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는 지점을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많은 분에게 이 마음이 전해 진다면 우리가 얘기하는 이런 행사가 없어지는, 조금 더 희망을 품을 수 있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과정 안에 있는 것 같아요.

이화정 제가 벡델지기라고 괜히 말한 게 아닐 정도로 이제는 이 개념을 정확히 숙지하고 계신 봉태규 배우님이십니다. 올해도 저희가 영화·시리즈 각각 '벡델초이스10'을 선정을 했는데요. 감독·작가·배우·제작자 이렇게 각 주요 부문의 창작자들에게 '벡델리안'을 수상하고, 이렇게 오늘 자리에 모셔서 같이 하는 시간도 가집니다. 선정된 작품과 벡델리안의 면면을 보면 작품 자체의 높은 완성도와 뷰어들의 호응을 받은 작품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을 느끼셨을 것 같아요. '이 작품 만들 때 성평등한 작품을 나는 만들고야 말겠어'라고 작정하고 만드시지는 않지만, 좋은 가치들을 가지고 작품을 만들다 보면 결국 궁극적으

로 누군가를 배척하지 않고 차별하지 않는 벡델데이의 개념에 맞는 작품들이 완성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봉태규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런 게 지금 궁금해지는데요. 프로그래머시잖아요. 그래서 올해 선정작들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어떤 변화는 없었는지 궁금해요.

이화정 올해 심사에 참여하면서 느낀 것은 '작품들이 많이 줄었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만큼 산업이 위축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화의 위기뿐만 아니라 시리즈에서도 너무 많은 작품이 양산되다 보니 우리의 기준치를 초과한 자극적인 작품들도 많아진 것 같았는데요. 그렇지만 그 안에서도 좀 괄목할 만한 움직임이 보였던 것은, 이전에 '여성 서사와 여성 캐릭터는 굉장히 특수한 이야기여서 여성 창작자만이 만든다'라는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최근에는 다양성이 담긴 작품이 눈에 띄고, 남녀의 구별이 창작자 집단에서부터 많이 없어진 것이 유의미한 변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성과 소수자 모두 우리 모두가 고민해야 할 이 세상의 구성원으로 존재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예시 같아서 앞으로 좀 더 재밌는 작품들을 발굴할 수 있는 벡델데이가 될 것 같습니다.

봉태규 그러면 이제 올해 벡델리안들을 만나볼 시간이 됐는데요. 그전에 올해의 선정작들을 먼저 만나보고 올게요.

~벡델리안 소개 영상 상영~

이화정 벡델초이스10 선정작과 올해의 벡델리안 소개를 마쳤는데요. 여러분들 보신 작품들 많으시죠? 공감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주인공들을 자리에 모시고서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영화 부문 벡델리안 감독상 수상하신 <비밀의 언덕> 이지은 감독님 모셨습니다.

봉태규 다음은 영화 부문 백델리안 작가상을 수상하신 분입니다. <교토에서 온 편지> 김민주 감독님을 모시겠습니다.

이화정 네 옆자리로 착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분이십니다. 시리즈 부문 감독상 수상하신 두 분이세요. <LTNS>의 전고운, 임대형 감독님 모시겠습니다.

봉태규 시리즈 부문 작가상입니다. <졸업>의 박경화 작가님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이화정 마지막 수상자는 시리즈 부문 제작자상의 <힘쎈여자 강남순> 백미경 대표님인데요. 사정상 대표님은 잠시 후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봉태규 이렇게 영화 시리즈 부문에서 성평등의 가치를 실천하신 분들을 한자리에 모시고 나니까 무대가 굉장히 꽉 차네요. 오늘 아쉽게도 자리하지 못한 수상자들께서는 영상을 보내주셨거든요. 그 영상 함께 보고 그 다음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벡델리안 수상자 소감 영상 상영~

이하늬 안녕하세요. 배우 이하늬입니다. 백델리안이라는 뜻깊은 상을 2년 연속으로 받게 돼서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작년에 제가 너무나 사랑했던 <유령>이라는 작품으로 상을 받았었는데요. 이번에는 <밤에 피는 꽃>의 '여화' 캐릭터를 사랑해 주시고, 이렇게 상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실 여화라는 캐릭터는 조선시대에 최대 가치, 정말 관념적인 사회에서 살면서도 진취적인 나, 진정한 나로 살기를 원했던 사람이에요. 저 또한 그녀를 응원하고, 반하고, 사랑하며 연기를 했었습니다. 이렇게 벡델리안으로 선정해 주신 캐릭터가 여화여서 또 기쁘고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도 벡델데이와 함께 성장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좋은 작품으로 열심히 여러분께 찾아뵙는 배우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혜정 안녕하세요. 저는 영화사 외유내강 강혜정입니다. 제가 제작했던 영화 <밀수>가 벡델초이스10에 선정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기뻤는데, 더 나아가서 제가 벡델리안 영화 부문 제작자로 선정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몸 둘 바를 모를 정도로 영광스럽고,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영화, 더 재미있는 영화 그리고 세상에 조금이라도 더 이바지할 수 있는 영화를 만들 수 있도록 늘 정진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직접 수상 현장에 찾아가야 했는데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드리게 된 점 다시 한번 양해 말씀드리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화정 영상 편지를 보내주셨는데, 두 분 모두 안타깝게도 차기작 준비로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셨지만 여러분들 굉장히 만나 뵙고 싶어 하셨습니다. 특히나 강혜정 대표님은 지금 <베테랑2>가 곧 개봉을 앞두고 있어서 다음 작품 준비에 매진하고 계십니다. 영상으로라도 만나 봬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 백델리안들을 모셨는데, 일단은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분들도 차기작이 다 있으신데, 오늘만 딱 시간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벡델리안에 선정되고 나서 이 개념에 익숙하신 분도 계시고, 이 선정으로 벡델리안을 알게 되신 수상자분들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 다들 연락받고 나서는 성평등한 콘텐츠를 만드는 데 일조를 했다니 어떤 부분일까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계기가 됐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정관념을 타파하는 선택을 매 순간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다가온 작품들이, 새로운 환기를 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먼저 창작 단계에서 어떤 고민을 하고, 또 만들어 나갔는지를 차근차근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봉태규 먼저 백델리안들의 인사와 수상 소감을 들어봐야 할 텐데요. 처음 인사를 나눌 분은요. 원조 벡델리안이라고 써 있습니다. 벡델데이와 인연이 굉장히 있으신 분이에요. 바로 <LTNS>의 공동 연출자 임대형 감독님인데요. 감독님에게 백델데이란?

임대형 안녕하세요. 저는 <LTNS> 정고운 감독님이랑 같이 글 쓰고 연출한 임대형이라고 하고요. '벡델 테스트'는 제가 첫 영화를 찍은 이후 알게 돼서, 그 이후 적용을 해봤더니 제 영화가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대로 영화를 만들면 안 되겠다'라는 위기의식이 들었는데 그때 '창작할 때 좋은 시금석이 될 만한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후 벡델데이란 행사가 만들어지면서 트레일러도 찍게 됐었고 그렇게 인연이 됐었는데, 저희가 같이 한 작품에 이렇게 좋은 언급을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봉태규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임대형 감독님이 <윤희에게>라는 작품을 만드신 분이에요.

이화정 깜짝 놀라신 분 계세요

봉태규 이분이에요. 이분이 김희애 배우가 나왔던 그 <윤희에게>를 만드신 분이고 1회 벡델초이스10에 선정이 됐고 거기에 같이 <윤희에게>에 출연하셨던 김희애 배우가 벡델리안 배우상을 수상하셨어요.

이화정 당시 <방구석1열>에 출연을 함께 하셨었죠.

봉태규 그리고 2회 때는 트레일러를 또 만들어 주시고.

이화정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보시면 좋은데 이정은 배우님도 트레일러에 나오십니다. 그래서 원조 벡델리안 맛집 이런 거예요. (웃음)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너무 거창하게 설명했나요? 그렇다면 이제 공동 연출을 하신 분이니까 이분으로 갈까요? 전고운 감독님의 <소공녀>가 벡델데이가 만들어지기 전에 나왔으며 분명히 벡델초이스10에 들어갔을 거예요. 그때 아마 감독상 수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조금 늦었죠. 임대형 감독님이 원조 벡델리안이라면 '네추럴 본' 벡델리안 정고운 감독님 인사 부탁드릴게요.

전고운 안녕하세요. 저는 <LTNS>를 대영 감독님과 같이 쓰고 연출한 정고운입니다. 제가 <소공녀>를 찍고 그다음 해에 벡델데이가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배가 아팠어요. (웃음) 왜냐하면 저도 여기에 들고 싶었는데, 그리고 그때는 시리즈 부문도 없었거든요. 사실 제 꿈이 벡델리안에 선정되는 거였거든요. 이렇게 벡델데이에 시리즈 부문까지 생기고, 선정될 수 있어서 너무 기뻤던 것 같습니다.

이화정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감독님 트로피는 마음에 드시나요?

전고운 너무 아름답네요.

봉태규 다음 분은 데뷔작으로 이미 많은 곳에서 수상을 어마어마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분에게 벡델데이에서 드리는 상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래서 더 궁금해지기도 하거든요. <비밀의 언덕>에 이지은 감독님 인사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은 네 감사합니다. 정말 영광스러운 상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이 작품 준비할 때 제일 많이 했던 말이 있었거든요. 그게 저는 이 '이명은'이라는 인간을 '아이가 아닌 한 여성으로, 그리고 더 나아가 진짜 복잡한 내면을 가진 한 인간으로 그리고 싶다'라는 말을 초반 기획 단계부터 마지막 배급 단계까지 많이 했었는데, 이 상을 받게 되니까 그 미덕이 지켜진 것 같아서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기뻤고요. 그리고 문승아 배우가 저희 <비밀의 언덕>에게는 정말 중요한 사람이었는데, 문승아 배우와 촬영 전에 '우리 진짜 잘해보자. 너하고 내가 진짜 잘해야 된다' 두려움 반 열정 반으로 함께 만들었는데 너무 좋아할 것 같습니다. 좋은 상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화정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벡델데이를 위해 준비된 감독님이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네요. 이분은 사실 이제 만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인터뷰도 쉽지 않은 분이신데, 벡델데이가 부르니 자리에 함께해 주셨습니다. 대치동, 사교육. 키워드를 들으시면 무슨 작품인지 어떤 분이신지 벌써 짐작 가실 텐데요. 데뷔작으로 무려 안판석 감독님과 같이하면서 정말 새로운 시리즈의 바람을 불러일으킨 작가님이십니다. <졸업>의 박경화 작가님 모셨습니다.

박경화 먼저 알려진 사실을 미리 말씀드리면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20년 동안 완전히 다른 일을 하다가 늦깎이로 창작의 세계에 입문했고, 정말 운이 좋게 기회가 주어져서 제 이름을 걸고 처음 쓴 장편 작품인데요. 처음 쓴 작품이 이렇게 뜻깊은 성과를 얻게 되어서 정말 기쁘고, 생각지도 못했던 상이라 소식을 받고 정말 그날 밤에는 잠이 안 오더라고요. 되게 벅찬, '내가 뭔가 그래도 하나 해냈나 보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정말 기뻤고, 방금 말씀해 주신 안판석 감독님도 이 수상 소식을 듣고 정말 기뻐해 주셨어요. 안판석 감독님이 20년 전에 정성주 작가님과 <아줌마>를 썼을 때 많은 여성단체로부터 좋은 상을 많이 받으셨었는데, 20여 년이 흘러서 또 이렇게 양성평등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서혜진 캐릭터에 대한 벡델데이의 심사평을 전해드렸더니 작품을 깊이 있게 봐주신 심사위원분들 그리고 관객분들께 정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는 말씀을 대신 전하고 싶습니다. 저는 학교 다닐 때 이후로 이런 상을 처음 받아보는 거라서 행복합니다.

이화정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오랜만에 상 받아보시는 분들도 벡델데이 수상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실 수 있도록 굉장히 묵직하게 트로피를 제작했어요. 사실 저희 예산의 가장 큰 부분이 트로피에 들어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봉태규 디렉터스컷 트로피와 비슷한 모양일 거예요. 녹도 잘 안 슬어요. 저희 집에도 있는데 보관하기도 굉장히 용이합니다. 근데 이 트로피는 변색도 안 되고 보관하기 용이하다는 팁 드리고요. (웃음) 지금 소개해 드릴 분은 사실 제가 이제 참여하고 있는 프로그램인 <돌아온 방구석 1열>에서 최근에 언급을 한 작품이에요. 바로 <교토에서 온 편지>라는 작품인데요. 이 작품은 작가님의 자전적인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작품이라서, 그 리얼함이 굉장히 배가 되는 작품인데 이 작품이 더 의미가 있는 건 백델데이가 발견하고 싶은 어떤 가려진 여성들의 이야기가 이 작품에서 펼쳐져서 더 그렇거든요. 바로 <교토에서 온 편지> 시나리오도 직접 쓰시고 연출하신 김민주 감독님.

김민주 네, 반갑습니다. 처음에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왜 나한테 이걸 주지?'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아주 작은 영화고 수려한 수상 경력과 이런 인지도에 비해서 제 영화는 그렇게 주목받지 못했다고 생각이 들어서 낙하산 같다고도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벡델데이에서 함께 선정된 작품 보고, 제가 평소에 거의 다 90% 이상 본 작품들이길래 '내가 벡델 작품을 많이 본 덕에 이런 영화를 만들었나?' 생각을 했습니다. '벡델이 벡델을 키운다'.

이화정 '벡델이 벡델을 키운다'. 명언이다!

봉태규 저희가 어떤 모임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웃음)

이화정 오늘 처음 보셨잖아요. 전고운 임대형 감독님을.

김민주 그런 건 아니고(웃음) 제가 그렇게 자라온 사람으로서 수상하게 돼서 영광이고, 사실 독립영화 같은 경우는 보통 큰 규모의 영화를 작업하신 분들과 이렇게 함께 있는 자리가 많이 없거든요. 그런데 벡델은 정말 딱 콘텐츠만 보고 수상을 결정하고 선정하신 것 같아서 더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봉태규 근데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는 아이들을 키우잖아요. 사상이라고 표현을 해 주시긴 했지만, 벡델데이에 선정된 작품들을 어릴 때부터 본다는 건 '교육적인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사상과 상관없이. 그랬을 때 그 아이들이 컸을 때, 성인이 됐을 때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여러 사회적인 갈등 있잖아요. '그런 것들의 간극이 좀 좁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저는 아이 키우면서 하거든요. 그래서 잘 자라셨네요. (웃음)

이화정 그러니까요. 봉태규 배우님도 아이들을 키우고, 벡델은 또 벡델을 키우고. 사실 바른 시각으로 아이를 키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벡델데이를 5년 동안 하면서 벡델초이스10 작품들과 백델리안 작품들을 다 모아놓으니까 '하나의 영화제를 열어도 될 정도의 리스트들이 벌써 나왔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작품들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10년까지는 차곡차곡 쌓아

보면 좋지 않을까요. 그러다 보면 임대형 감독님처럼 N차 호명을 받으시는 분들도 나오고, 아까 조직이 아니라고 했지만, 사조직 같은 것도 만들어지지 않을까. (웃음)

봉태규 핑크색으로 물든(웃음). 이어서 준비한 순서는요. 벡델리안이 만든 캐릭터들은 어떤 모습에서 새로운 시각을 가진 캐릭터들인지, 벡델리안들은 어떤 문제적 시각을 가지고 있는 캐릭터들을 만들어낸 건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정 저희가 벡델리안의 작품들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캐릭터들이 이룬 성취의 지점들, 그리고 그런 것들로 나아가기 위해서 어떤 방식의 장벽을 통과해서 왔는지를 키워드로 뽑아봤어요. 같이 하나하나 얘기를 하다 보면 관객 뿐만 아니라 창작자로 활동하시는 분들도, 혹은 다른 일을 할 때도 이런 시각이 적용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들의 질문에 답변이 담겨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차별의 지점들을 키워드로 정리해봤어요. 우선 정말 공감하는 부분인데, 10대 소녀에 대해 가지고 있는 정형화된 이미지가 있는 것 같아요. 모험을 떠나는 소년이라는 역동적인 이미지와는 정반대의 지점에서 아름답게 포장이 되어 있지 않나, 근데 저만 해도 까마득한 옛날이지만 어린 시절을 떠올리면 상당히 동떨어져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비밀의 언덕>에 이지은 감독님이 그 디테일한 기억을 마치 그때로 다시 돌아간 것처럼 소환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화의 명은이 어떻게 보면 '소녀는 착하고 바르다'라는 고정관념을 완전히 깨고 나쁜 여성의 캐릭터를 그려낸 것 같아요. 그 지점들을 어떻게 창작하셨는지 감독님에게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은 새로운 10대 여성 캐릭터를 그리고 싶어서 <비밀의 언덕>을 만들게 됐는데요. 가장 먼저 샤이하지 않은 10대, 내성적이지 않은 10대, 부모님에게 허락 받지 않고 욕망이 섰으면 뜨겁게 달려가고, 스스로 이쪽저쪽 가보고 이런저런 사람도 만나보면서, a도 아니고 b도 아닌 이명은만의 답을 찾는 생명력 넘치는 10대를 보여주고 싶었달까요? 그런 관점에서 만들었고, 이 인물을 그릴 때 첫 장면부터 중요했어요. 제가 아무리 이 인물에 대해서 쓴다 한들 이미 성인 작가가 10대 여성을 그린다는 것은 굉장히 오글거리고 느끼한 일이었고, 본인의 어린 시절을 가지고 오는 작업이었기 때문에 그 부끄러운 감정들을 제거해야 했어요. 처음에는 신나게 제 이야기를 썼지만, 그다음부터는 등장인물의 이름을 지어주는 게 중요했고요. 이름을 지어준다는 의미는 작가를 제외하고 인물과 관객이 직접적으로 만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다리거든요. 그래서 이 주인공이 작가에게 휩쓸려가는 수단이 아니라 내가 직접 땅에 발 딛고 서서 직접 냄새를 맡고, 빛을 비추어보고, 직접 생각하는 그런 인물이라는 것을 영화의 오프닝에서 길게 보여주거든요. '명은이는 선물을 고른다'. 한 컷으로 끝날 내용을 굉장히 오랜 시간 보여줍니다. 그것은 아마도 이명은이라는 인간의 민낯을 보여주겠다는 의지가 담긴 오프닝부터 시작했고요.

이화정 부끄럽고 창피한 집안 환경에 대해 가지고 있는 불만이나 그 당시 어린 시절에 느꼈을 자책감, 자격지심 같은 감정들을 모두 끌어내잖아요. 시나리오 쓸 때 조사나 인터뷰로 자료를 채집하기도 하지만 감독님 같은 경우는 본인의 어린 시절을 투영했다고 봐도 될까요?

이지은 명은이는 기본적으로는 저에게서 가져왔을 거예요. 더불어 제가 너무나 하고 싶었지만, 혹은 저도 할 수 있었을 것 같은 가능성을 명은이에게 다 투영했어요. 실제로 저는 반장이 되어보지는 못했어요. (웃음) 명은이에게 반장도 시켜보고, '부모님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된다'라는 금기를 넘어보고도 싶었어요. 관객들에게 명은이라는 인간을 통해서 모든 수치심과 굴욕감을 다 안겨주게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직접 이 인물이 우리에게 충고하지 않고, 몸소 굴욕적인 일들을 겪는 모습을 통해 관객으로 하여금 '그때 나도 사실 저런 마음 갖고 있었는데, 내가 하지 못했던 걸 저 친구가 하네' 라는 마음을 떠올릴 수 있도록, 저로부터 시작된 이야기지만 더 큰 이야기로 키우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제가 초등학교 예술강사를 하면서, 그 또래의 친구들을 만나며 제 시선이 맑아졌어요. 제가 알고 있던 10대가 아니라 인간 대 인간으로 만나면서 이전에 부끄러운 감정들을 제거함과 동시에 리얼함을 부여했고요. 세 번째는 촬영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문승아 배우를 비롯해 장재희 배우, 이 아역 배우들과 만나 얘기를 하면서 이 인물의 리얼함을 더 입혀갔던 것 같습니다.

이화정 그런 섬세함으로 캐릭터 안의 어떤 욕망이나 마음 같은 것들이 대사로 전달이 됐기 때문에 '12살 소녀도 풍부한 감정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을 보여준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야기하는 동안 백미경 대표님이 도착하셔서 자리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인사 말씀과 오늘 조금 늦어지신 이유도 살짝 들어볼까요?

백미경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대구가 고향인데 지금 또 야구 시즌이기도 하고, 제가 5시간 충분히 시간을 잡고 왔는데 너무 차가 막혀서, 뻔한 변명을 드렸는데 진짜 죄송해요. 제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늦게 온 만큼 진심과 진실성을 담아 모든 질문에 대답하며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춤도 출 수 있습니다. 필요는 없겠지만 뭐든지 할게요. 정말 죄송합니다. 여기 계신 참석자분들한테도 너무 결례한 것 같고, 우선 제 소개를 해야하죠. 저는 백미경이고요.

이화정 성평등을 가치로 내세우는 시상식에 <힘쎈여자 강남순> 벡델리안 제작자로 수상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소감일지 그 말씀을 더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백미경 여기 계신 분들은 얼추 다 아시겠지만 저는 작가잖아요. 제가 드라마 작가인데, 작가상은 다른 분이 받으시고 저는 제작자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웃음) 제가 사실 어지간하면 대구에 있을 때는 서울에 잘 안 올라오는데 너무 영광스러운 상이라 제가 무조건 오겠다고 해놓고 이렇게 늦어서 거듭 죄송하고, 어쨌든 진짜 너무 감사해요. 제가 10년 전에 작가 생활을 처음 시작했거든요. 저는 공동체 사회 내에서 여성뿐만 아니라 타고난 문제로 자신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로 차별받는 세상은 되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에서 집필을 시작했는데, 그때 제가 여성 서사를 많이 쓰기 시작했죠. <품위있는 그녀>라든가 <힘쎈여자 도봉순>을 썼는데 그때는 여성 서사가 하나의 장르가 됐었어요. 특히 당시에 <품위있는 그녀> 같은 경우는 '중년 여성 두 사람이 주인공인 드라마를 누가 보냐?' 해서 사전 제작을 해놓고 편성 받는 것도 힘

이 들었고, <힘쎈여자 도봉순>이 히트 친 이후였는데도 불구하고 찬밥 신세였던 드라마였어요. 그랬던 그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 지금 여성에 대한, 젠더에 대한 감수성이랄까? 새로운 세상이 열렸고 평등의 추가 많이 중심으로 온 것 같아 저는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이 상이 계속 건강하게 이어졌으면 좋겠고, 콘텐츠를 제작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상을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해요.

이화정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지난 10년의 세월에 대한 총정리를 인사 말씀에서 해 주셨는데요. 차근차근 어떤 역경을 겪으셨는지도 차례대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지은 감독님께 착하지만은 않은 10대 소녀 캐릭터를 만든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백미경 대표님도 '여성에 대한 선입견을 벗어난 캐릭터를 늘 만들고 싶어 하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작가로서 또 어떤 다양한 여성들을 보여주고 싶으셨는지, 그 얘기를 바로 이어서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백미경 여기 계신 분 중에 작가 지망생이나 현업 작가님도 계실 거고, 콘텐츠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콘텐츠는 영화든 드라마든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캐릭터지 않습니까? 캐릭터를 만들어놓고 캐릭터가 사건의 도구가 되지 않게, 그 캐릭터들이 움직여서 이야기를 만들게 하는 게 저는 좋은 작품이라고 생각해요. 적어도 그걸 지향하고 있고, 캐릭터가 사건 기계가 되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늘 글과 시놉시스를 쓰고, 캐릭터가 역동해서 이야기를 만드는 때 작가로서 가장 짜릿한 쾌감을 느끼고 제가 잘 해내고 있다고 느끼는데요. 사실은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도 마찬가지고 저는 사회적 약자에 대해, 약간 그런 게 있었어요.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공동체 사회 안에서 모두가 페어플레이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힘이 약해서, 가난해서 아니면 나이가 많아서, 학벌이 낮아서. 자기가 어쩔 수 없는 부분, 타고나기를 그런 환경 속에 있지만 모두 동등하게 시작하는 얘기를 하고 싶었고 사회적 편견을 깨는 이야기를 늘 하고 싶었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여성은, 적어도 주인공이라면 질투하는 여성도 있겠고 욕망하는 여성도 있겠고, 마찬가지로 남자분들도 그렇잖아요. 연쇄살인범도 있지만 영웅도 있지 않습니까? 여자들이 서태후 같은 욕망에 미친 여자도 있지만 사실은 이 세상을 만든 정말 거룩하고 멋진 여성들이 더 많으니까, 적어도 제 콘텐츠, 제 드라마의 주인공들은 그런 멋진 여성이기를 바라요. 그래서 그걸 보는 여성들도 좀 닮고 싶은 여자이면 좋겠고, 악역조차도 연민이 가는 사람으로 제가 늘 그리는 게, <품위있는 그녀>를 보시면 박복자라는 인물은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는 멋진 여성을 그리는 게 작가로서의 과제예요. 실제로 제 주변에 멋있는 여성분들이 참 많아요. 멋있게 살고 있는 분들도 많고, 제가 많이 본받기도 하고 앞으로도 그런 멋진 여성들이 주인공인 드라마를 이제 써야 하는데 저 말고도 다른 분들이 많이 쓰고 있어가지고 이제는 남자 얘기를 해야 하나 생각 중입니다. (웃음)

이화정 차별화를 위해서. (웃음) 대놓고 멋진 여성을 계속 지속적으로 그려오고 있는 백미경 작가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교토에서 온 편지>에서 한국 근현대 역사 속 여성 캐릭터들이 어떻게 묘사되고 있는지에 대해 얘기도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보통 디아스포라의 개념을 꺼낼 때는 남성 캐릭터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교토에서 온 편지>의 세 딸과 엄마, 일본인인 할머니와의 관계를 통해 여성들이 시대 속에서 어떤 소외를 겪었는지에 대한 얘기들을 짚고 있어서 새로운 시각이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감독님께 그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주 처음부터 '여성 3대의 대서사시를 그리겠다'라는 거창한 꿈이 있었던 건 아닌데, 저로부터 시작한 것 같아요. 제가 실제로 일본에서 이민을 온 부모님 세대의 2세고, 저희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엄마와 언니와 저, 이렇게 여성 중심의 가족 구성원으로 지내다 보니, 익숙한 얘기에 자연스럽게 끌렸던 것 같아요. 그러다 실제 어머니의 얘기를 듣게 된 거죠. 어머니와 외할머니, 그리고 영화에는 소개되지 않지만 외증조할머니에 대한 얘기도 있거든요. 외증조할머니가 손녀인 저희 어머니에게 보낸 편지도 집에 있어요. 그 스토리도 어떤 축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 사연들을 들으면서 저는 자연스럽게 타국에 돈을 벌어 간 외할아버지보다는 하루아침에 남편과 자식들을 잃은 외할머니와 하루아침에 딸을 정신병원에 넣게 된 외증조할머니의 마음, 그리고 타국 땅으로 떨어져 남편도 일찍 여의고 50년 넘게 지내며 딸자식 둘을 키운 엄마에게 마음이 훨씬 자연스럽게 갔어요. 기존의 남성 중심의 근현대를 담은 영화가 많기도 하고, 물론 제가 가진 예산으로는 규모가 큰 영화는 찍지 못하니까요. 주변의 산증인들을 중심으로, 모계 중심의 이야기가 현실적인 모습을 더 보여주기에 적절하다고 판단해서 이 3대 이야기를 쓰게 된 것 같습니다.

봉태규 감독님의 작품이 흥미로운 건, 근현대사를 다루다 보면 이야기가 과거에만 머물 수도 있잖아요. 영화는 엄마의 과거에 대한 얘기임과 동시에 딸들의 미래를 내다보는 구성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감독님이 '이 작품을 통해서 결국 보여주려고 했던 여성의 삶이라는 건 어떤 것이었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김민주 아까도 말했듯이 그동안 매체에서 소개된 남성 중심의 역사물이 많아요. 사실 역사의 주인공은 모두라고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사실 제한적이라, 그 외 서포트라고 이름 붙여진 여성들의 역할을 좀 더 메인으로 내세워서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사실 '엄청난 일을 해야 주인공이 된다'기보다 각자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모두 근현대사를 이뤘다고 생각했고, 잊어서는 안 되는 얘기들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나라가 다인종 국가가 아니다 보니 외적으로 이주민의 삶이 티가 나지 않고, 소개되지 않았지만 제 영화를 통해 다음 세대가 그것을 기억하는 게 중요한 테마로 나오는데, 여성들이 윗세대 여성들의 얘기를 기억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영화 후반부를 완성했던 것 같습니다.

이화정 참 다양한 이야기들이 성별 고정관념에 갇혀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나눠볼 이야기는 '여성은 정신적 사랑, 남성은 육체적 사랑을 원한다'라는 일상생활 속 고정관념인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소위 밝히는 여자에 대한 거부감을 영화의 소재로 많이 사용하기도 했었잖아요. 요즘은 이 시선이 많이 변하고 있는데, 저는 변화보다 요즘 이런 캐릭터를 언급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더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LTNS> 같은 경우는 정면 돌파하는 캐릭터로 가져왔고 그 캐릭터가 '너네는 사실 이렇게 생

각하고 있었지, 근데 우리가 다른 진짜 남성과 여성 다양한 성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보여줄게' 하고 도전장을 내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영화에 남자가 바느질하고 깍두기 담는 게 전혀 이상하지 않고, 여자가 오히려 섹스를 밝히는 것에 대해 전혀 이상하지 않은 평평한 세상을 이 작품 안에서 구현합니다. 두 감독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논의를 하셨을 것 같은데, 어떤 접근에서 이런 보여주기가 필요했을까, 전고운 임대형 감독님께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 좋게 굉장히 평등하게 서로 떠밀고 있습니다. (웃음) 전고운 감독님 먼저 얘기해 주세요. 주인공의 이름부터 우진, 사무엘로 우리가 성별을 단박에 알기 어렵게 구성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애초에 설계할 때부터 성평등에 대해 염두에 두었다는 생각을 했어요.

전고운 사실 성평등이라는 개념도 없을 만큼, 저희가 <LTNS>에서 캐릭터를 만들고 기획하고 쓰는 모든 과정에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를 풍자하자는 게 가장 큰 목적이었고요. 여러 과정을 통해 소재와 캐릭터가 정해지는 과정에서 저희 둘 다 '젠더 트위스트'를 너무 즐거워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기존의 영화와 드라마에서 많이 보이지 않은 여성 남성의 캐릭터를 다루어야만 저희가 글을 쓰면서 재미있을 수가 있었어요. 무조건 성평등의 가치를 두기보다 여성 캐릭터든 남성 캐릭터든 콘텐츠에서 일면적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했고, 다른 면을 보이는 게 신선함이고 새로움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별 힘든 것 없이 자연스럽고 즐기는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이화정 임대형 감독님, 100% 공감하고 있으신 거죠.

임대형 네, 이하 동문으로. 여자 캐릭터 이름이 '우진'이고, 남자 캐릭터 이름은 '임박사무엘'인데 그 이름을 본인이 직접 지은 거란 설정이에요. 젠더 감수성이 있는 남자면서 이름이 다섯 글자니까 구구절절해 보이고, (웃음) 대조적으로 여성 캐릭터의 이름은 짧고, 그런 식으로 이름 지을 때도 재밌게 지어보려고 노력한 것 같아요. 캐릭터 미러링을 하고 전통적인 성 역할을 전복하는 것에서 물론 어떤 쾌감을 느끼긴 하지만, 그것을 애초에 목표를 두고 작업을 했다기보다는 현재의 사회상이 어떤가를 들여다보려는 노력과 어떤 것이 자연스러운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품는 고민을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전통적인 성 역할이라는 것이 학습되는 것이지 타고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한국 사회의 변화가 되게 빠르잖아요. 그래서 요즘 자라나는 어린이들은 우리가 배웠을 때와 다른 교육을 받을 것이고, 빠르게 변하는 사회의 흐름을 담고 싶다는 목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화정 두 감독님의 전작인 <소공녀>와 <윤희에게>에게 모두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여정이 담겨 있기 때문에, 결국 내가 이 땅에 어떻게 발붙이고 살아갈 것인가 하는 이야기가 <LTNS>에도 이어져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그들이 어떤 고충을 겪고 있는지를 센 수위의 파격적 이야기인 것처럼 포장했을 뿐이란 생각이 들어요. 이 이야기로 잔잔한 수면 위에 우리가 한번 돌을 던져 보자, 파문을 일으켜보자는 의도가 있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두 분이 어떤 도전 의식을 가지고 계셨는지 궁금합니다.

전고운 정확히 그 의도가 있었고요. 요즘 안전하고 편안한 이야기가 많아지고 있죠. 저는 문학이든 예술이든 '펄프 픽션' 같은 쓰레기 문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요즘은 더 음지화되는 느낌이 있었어요. 특히 한국 드라마는 더 그런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고요. 다행히 '혼성 듀엣 연출로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콘텐츠가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안전한 프레임 안에서 정면을 돌파해보는 콘텐츠를 만드는 게 목표였어요. 정확히 읽어주셨습니다.

이화정 이지은 감독님은 혼성으로 연출하는 것을 보고 부럽거나, 다음에 적용해보자 싶기도 하세요?

이지은 저희 영화에도 듀오가 나오잖아요. 음, 저는 어려울 것 같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웃음)

이화정 알겠습니다. 순서대로 <졸업> 얘기도 나눠 보죠. 대치동이 사교육 전쟁터로 알려져 있잖아요. 굉장히 세심하게 그 구조를 짚어냈다는 생각도 듭니다. 흥미로운 점은 여성 주인공이 사회에 본격적으로 개입을 하고 있지만 욕망이나 야망과는 동떨어져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보통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파헤치는 소재는 남성 주인공들이 뭔가를 쟁탈하거나 혹은 그 과정에서 미끄러져서 완전히 파멸하는, 끝까지 밀어붙이는 방식의 이야기가 많은 편인데요. <졸업>의 주인공 '혜진'은 그 안에서 스스로 어떤 스탠스를 취할지 정리하며 순조롭게 흘러가죠. 단지 아귀다툼만이 이 시리즈의 배경이 아니라는 마음에 안도하기도 했어요. 인물을 그릴 때 이 부분을 염두에 두신 것 같아 작가님께 그 이야기를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화 안판석 감독님과의 작업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은 1부부터 16부까지 이야기를 다 만들어놓지 않아요. 이 캐릭터의 처음과 끝을 정해놓지 않았어요. 다만 '이 직업이 최고야. 너희 부장님보다 내가 돈 더 잘 벌 걸'이라며 대치동 강사를 지상 최고의 직업처럼 외치던 주인공이 예뻐했던 제자가 나타나 '강사를 하겠다'는 말에 안 된다는 소리가 먼저 튀어나와요. 이 외침에 가슴 속 자기혐오나 모순의 감정이 무엇인지 찬찬히 관찰해 나가보자는 생각이었어요. 엔딩에서 '주인공이 어떤 방식의 성장을 이루겠구나'라는 어렴풋한 상이 있었고요. 무 자르듯 회차별로 정확하게 정해놓고 만들지는 않았어요. 또 시나리오를 써가면서 생각한 점은 로맨스를 표방한 드라마에서 대부분의 여성 캐릭터는 남성 캐릭터가 바라보는 여성 혹은 누군가의 딸로 보여지죠. <졸업>에서는 오로지 자기의 양심과 신념, 철학을 바로 잡아가는 여성 캐릭터를 만들어 나가고 싶었어요. 사랑받기 위해 노력하기보다, 바른길을 향해 노력하는 사람. 그 사이사이 로맨스의 분기점마다 들어가는 사건들, 예를 들면 사랑의 연적이 나타나거나 질투가 자극되는 방식이 아니라, 이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 혹은 선생님과 장사치 사이의 갈등을 하길 바랐어요. 아이고, 백미경 작가님이 학원 강사 출신이시기는 한데 갑자기 되게 조심스러워지네요. (일동 웃음) 자신이 지닌 직업의 딜레마를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사랑의 갈등들이 심어지고, 그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한 여성이 성장하는 모습이 보이도록 배치했습니다. 그래서 대치동이라는 드라마의 배경을 보면 사람들이 대부분 돈만 쫓는 '일타강사'를 생각하셨을 텐데, 오히려 자신의 양심에 비추어 계속 고민하는 캐릭터를 만들었어요. 7부에서 주인공이 친구를 앞에 두고 엉엉 울며 이야기하는 긴 시퀀스에 그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집, 차, 돈처럼 남들이 추구하는 것들을 쟁취하고 살다 보면 나 자신을 속이기 제일 쉽다'는 대사를 썼는데, 물질적인 것을 넘어 진심으로 마음을 채워줄 수 있는 가치를 찾아가는 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화정 남녀를 떠나 바른 가치관을 쫓는 캐릭터를 만드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시리즈가 도달하는 지점은 특별할 수밖에 없는데, <졸업>은 자극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기승전결을 가지고 가는 시리즈와는 분명히 다른 지점의 성취를 일구어냈다는 점과 애초에 설계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봉태규 그런 의미에서 <힘쎈여자 강남순>도 굉장히 재미있는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여성 캐릭터들이 지닌 내면적인 힘을 넘어서 물리적인 에너지를 가진 새로운 여성 캐릭터를 통해서 장르적인 재미를 같이 추구해요. 더 흥미로운 점은 남성 히어로물이 가진 클리셰를 가져오면서 20대, 40대, 60대까지, 3대로 이어지는 다양한 여성 히어로를 등장시켜요. 이런 배경과 목표를 설정하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백미경 감사합니다. 우선 박 작가님이 제가 학원 강사였다는 걸 잠깐 언급하셔서 일화를 얘기하면, 20년 전에 작가 공모 당선 후 서울에 올라왔는데 잘 안돼서 다시 대구에 돌아가 학원을 했거든요. 강사로 시작해 학원을 운영했는데 당시 초등학교 5학년들이 <아내의 유혹>을 보겠다고 결석하는 걸 알고 '아, 저런 드라마를 써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일이 있어요. (일동 웃음) 드라마의 힘이 그 당시 대단했었어요,

이화정 공전의 히트작이었죠. (웃음)

백미경 그런데 막상 작가가 되어보니 그런 작품을 하는 건 쉬운 일은 아니셨을 거라 생각해요. 학생들을 결석하게 만드는 작품, 뒷얘기를 궁금하게 하기 위해서 막장력을 쏟아붓는 게 얼마나 많은 에너지와 나를 내려놔야 되는 일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아무튼 이 얘기는 별개고, 질문하신 것에 답을 드리면 저는 '젠더 트위스트'보다는 항상 '왓 이프(What if)?'를 생각했어요. 어릴 때부터 '신데렐라 구두가 둘째 언니 발에 맞았으면 어땠을까?', '춘향전의 변사또가 섹시한 남자였으면 춘향이가 이몽룡을 기다렸을까?', '고구려가 삼국을 통일을 했어야 됐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당시 젠더 감수성이 발달하지 않을 때도 '600만 불의 사나이와는 다르게 원더우먼은 왜 팔등신에 굴곡진 몸매를 가지고 힘을 써야 하지'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인간 사회가 보이지 않는 힘의 논리와 지배 구조가 형성이 되어 있잖아요. '만약 여자가 힘이 더 셌다면 어땠을까, 남자만큼 대등하게 힘이 세다면 어땠을까'라는 발칙한 상상에서 여성 히어로물을 시작했어요. <힘쎈여자 도봉순>을 한국에서 드라마로 제작하려다 보니 제작비 이슈가 끝이 없었어요. 다들 아시겠지만 히어로물은 VFX(특수효과)가 돈이 많이 들어요. <힘쎈여자 강남순>의 경우도 5부부터 제작비를 다 써서, 그 힘센 주인공이 사무실에서 딴짓만 하고 있으니 시청자들이 화를 많이 내셨는데 그때는 정말 돈이 없었어요. 히어로물이 가지고 있는 장르적 한계를 한국에서 풀어내려면 결국 B급 코미디와 가족 이야기로 만들어야 했고요. 콘텐츠를 제작하는 입장에서 제가 작가에서 제

작자가 된 것도 자본의 문제가 제일 컸거든요. 지금도 그 문제는 여전히 시달리고 있어요. 드라마에서 맨홀 뚜껑을 들어 날리려고 해도 돈이 많이 드니까.

이화정 그러면 그 장면은 이제 빼는 거죠.

백미경 네, 못 쓰죠. 마지막 회 같은 경우에는 한 여덟 장면을 뺐어요. 제 사비를 털 수 있는 수준의 돈이 아닐 정도로 제작비가 없었어요.

이화정 직접 제작하게 되면 조금 여유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궁금증이 있었는데, 역시나 여러 장면을 뺄 수밖에 없었군요. 더 절약하시게 되나요?

백미경 오일 머니 투자를 받지 않고서는 (웃음) 우리나라 드라마 시스템에서 제작자가 제작비를 더 많이 가져올 수 있지 않아요. 마음대로 대본만 쓸 때와는 다르게 제작자들이 PPL을 요구하는 이유를 알 수 있죠. 직접 해보니 제작도 굉장히 힘들다는 걸 느껴요. 첨언하자면 제작과 극본의 난이도와 고통은 비교할 수 없어요. 뭐가 힘들까요? 맞춰보세요.

봉태규 맞추면 상품 같은 거 있나요? (웃음)

백미경 따로 내가 쏠게요. 맞춰보세요. 뭐가 힘들까요? 작가가 10배는 더 힘들어요. 제작은 작가를 컨트롤하는 거예요. 작가, 대본, 콘텐츠. 대본이 바이블이고 대본이 잘 나오는 게 1번이지 대본이 좋아야 좋은 배우가 함께하고, 좋은 연출이 가능하고, 좋은 펀딩이 되는 거예요. 결국 작가를 잘 컨트롤해서 좋은 콘텐츠가 나오도록 이끄는 자가 좋은 프로듀서지 '제작이 별게 아니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확실히 대본을 쓰는 것만큼 힘든 건 없는 것 같아요. 영화 대본을 쓰는 것도 쉽지 않은 작업이긴 했지만 드라마는 호흡이 길잖아요. 20부작, 18부작, 16부작도 써봤는데 어느 순간에 보면 미역처럼 계속 불어나요. 나는 다 썼는데 이야기가 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들다고 생각했습니다.

봉태규 지금 하신 얘기는 현장에 계신 분들 아니면 알기 힘든 정보인데 유익했던 것 같아요.

이화정 더불어 이 작품으로 스핀오프의 유형을 제시했다는 것도 의미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힘쎈' 시리즈를 만들면서 제작 현장뿐 아니라 대중들의 반응에 대한 변화도 체감을 하셨을 것 같아요.

백미경 '힘쎈' 시리즈의 스핀오프를 만들 수 있었던 것 자체로 창작자로서의 영광이었어요. 또 세 번째 작품을 준비 중이거든요. 시리즈 시장 자체가 경색돼 있어서 요즘은 눈치보느라 조금 주저하고 있지만요. 작가로써 봤을 때 '힘쎈' 시리즈는 모계 혈통으로 이어지는 힘센 여자 히어물이라는 세계관이 특별했던 부분

이잖아요. 오히려 저는 히어로물보다 현실적인 이야기를 좋아하는 데, 예를 들어 제가 <졸업> 같은 작품을 썼으면 어땠을까. 그런데 저는 직접 학원을 운영해 봤으니 너무 잘 알아서 못 쓰겠다는 것도 있어요. 오히려 알면 쓰지 못하는 게 있어요. 연애를 안 해본 작가들이 연애 얘기를 더 잘 쓰듯이, 연애를 많이 해보면 사랑에 회의적으로 돼서 구질구질하게밖에 못 쓰는 경우가 있죠. 무슨 얘기를 하다 여기까지 왔죠? (웃음) 어쨌든 세 번째 작품 구상 중이고 더 열심히, 더 좋은 '힘쎈' 시리즈를 쓸 테니까 기대 부탁드립니다.

이화정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건 박경화 작가님은 학원에 다닌 적도 없고 직장으로 체험하신 적도 없었는데, (좌중 웃음) 아무것도 없는 백지상태가 글을 더 잘 쓸 수 있다는 점을 백미경 대표님이 얘기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로 구조적인 문제들에 관해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벌써 백미경 대표님께서 제작자로서 느끼는 지점들을 살짝 예고편처럼 말씀 주셨는데요. 1년에 한 번씩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영화산업 결산 보고서가 나오거든요. 산업적인 지점에서 어떤 구조를 가지고,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그 성과 뒤에 어떤 부족한 점이 있었는지를 발표합니다. 2023년 결산에 따르면 '순제작비 30억 원 이상의 상업영화 시장이 코로나 이후에 많이 변했고, 고예산의 남성 중심 영화만이 상업 영화의 장벽을 통과할 수 있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즉 여러분들이 만나는 큰 예산의 작품들은 성평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OTT 시장도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규모가 큰 작품들은 여성 감독들이나 여성 창작진의 그 수가 현저하게 줄어들어요. 시장에서 여성 창작자의 작품을 볼 수 없게 되고, 여성 창작자의 시각이 반영된 작품들을 만날 수 없다는 말도 되는 거죠. 이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상황 속에서 백델리안으로 초청되신 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시면서 작품을 만드셨는지, 어떤 도전의 지점으로 작품을 만드셨는지 얘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봉태규 그런 입장이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시장 상황이 어려워지니 선택한 안전한 방법이 불평등이라는 것, 지금 말씀한 데이터도 우리가 같이 고민해 볼 문제인 것 같아요. 백미경 대표님께서도 글을 쓰시다가 직접 제작사를 차리신 것은,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 '어떤 제약과 문제의식을 스스로 돌파를 해보려는 생각이 있었을 것 같다' 짐작이 되거든요.

이화정 네, 안 되면 직접 내가 만든다.

백미경 영화와 드라마의 메커니즘 자체가 한국에서 좀 차이는 있어요. 영화는 감독의 예술이라는 말이 있듯 현장에서 많이 바뀌기도 하는데, 드라마라는 것은 호흡을 끝까지 길게 이어가기 위해서 콘텐츠가 훼손되면 작가가 뒤를 수습해야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즉 제가 제작을 하게 된 이유는 '대본을 훼손하지 않는 컨트롤 타워가 되어야 겠다'라는 생각으로 시작한 거지 '총대 잡고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존중과 배려를 가진 작가가 최고로 좋은 작가라고 생각해요. 작품에 대해 배우와 감독이 아바타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작가는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작품은 감독의 것이기도 하고 배우의 것이기도 해요. 대본을 썼을 뿐이에요. 그러나 작가가 그 본질적인 콘텐츠의 캐릭터와 이야기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

인 것도 사실이고요. 콘텐츠가 제대로 전달될 수 있는 기능을 하고 싶어 제작자가 된 거죠. 제가 쓴 드라마 이외에도 여러 드라마를 제작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단군 건국 이래 방송사 50년 사상 최고로 시장이 안 좋아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시장이 안 좋다는 건 채널도 돈이 없고 제작사도 힘들고 작가들도 힘들고, 심지어 배우에 따라 편성을 해준다는 기형적인 구조로 가고 있어요. 콘텐츠를 자유롭게 창작하고 싶은 창작자들이 날개가 꺾인 상태에서, 제작사는 저비용의 가성비 좋고 효능감이 좋은 대본을 찾고 있어요. 웹툰 오리지널을 각색하는 체스판의 말처럼 작가를 쓰기도 하고, 제작사는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저처럼 원고료 비싼 작가를 제작사들은 싫어합니다. 결국 불은 불로 이기듯 이런 상황을 타개할 방법은 좋은 콘텐츠로 이길 수밖에 없어요. 재미있으면 시청자들은 본다고 생각하거든요. 세상에 드라마만큼 재밌는 게 없는데, 요즘 저도 그런 생각을 하지만 볼 게 없다고 많이들 그래요. 저도 그 책임을 통감하고 있고요. 저도 잘못이 있지만 그래서 '좋은 작품을 써야겠다'는 생각 말고는 당장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좋은 대본 쓰자, 좋은 걸 쓰자'라는 생각 말고는 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화정 이번에 첫 드라마를 쓴 작가님께서도 이 부분을 체감하시나요?

박경화 저는 예산을 집행하는 데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일을 하는 사람이죠. 어떤 씬에 대한 이슈가 있을 때 '제가 고치겠습니다' 하는 이유가 대본을 고치는 일이 가장 돈이 안 들기 때문에요. 산업 환경에 대해 물론 말씀은 많이 듣죠. 왜냐하면 편성의 띠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재능 있고 좋은 이야기를 쓰는 동기 작가들이 아직 좋은 기회를 못 잡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졸업>이 방송되고 가장 많이 들었던 인사가 '요즘 같은 시기에 신인 작가가 데뷔한다는 게 드문 케이스인데 축하한다' 였어요. 더군다나 OTT 채널이 아닌 방송사 채널에 편성된 것에 대해서도, '요즘 같은 때'라는 말로 간접적으로 느끼고 있었어요. 들리는 풍문에도 높은 제작비의 작품보다 효능감이 좋은 콘텐츠들을 선호하고 있다는 얘기는 듣고 있죠.

이화정 네, 제작 상황이 어려워질수록 영화와 드라마 모두 효율성과 안전성에 기대어 갈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마찬가지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고운 감독님 같은 경우 '독립영화 안에서 안정적인 구조로 내가 하고 싶은 작품을 만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으로 '광화문 시네마'라는 독립영화 제작사를 창립하셨었죠. 이번에는 사실 두 분께서는 '프리티 빅브라더'라는 유닛을 만드셨잖아요. 팀으로 활동하는 장점은 무엇인지 들어볼게요.

전고운 각자 영화를 하다가 함께 드라마를 만들게 된 계기는, 대형 감독님의 <윤희에게>를 보고 생긴 동료로서의 리스펙과 혼자 글을 쓰는 게 싫었던 마음이 있었어요. 제가 리스펙하는 동료와 뭐든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먼저 프러포즈를 했고요. 그런데 당시 코로나가 닥치면서 극장이 얼어버린 거예요. 저희가 하고 싶은 이야기에 상업 자본을 투자받을 수 있는 길이 드라마라고 생각했어요. 또 혼성의 팀 이름을 만들게 된 이유는 저희 스스로 영화감독이라는 아이덴티티에 자꾸 경직되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대본을

쓸 때 되바라지고 막 나가야 하는데 점점 점잖아지려는 관성 때문에 팀명을 걸고 일종의 세컨드 캐릭터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저희 둘의 '부캐'. 저는 그게 꽤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임대형 저도 이름 뒤에 숨을 수 있어서 좋았고요. 보통 남자 감독 작가는 여성 캐릭터를 쓸 때 아무래도 잘 알지 못하거나 혹은 넘겨짚게 될까 봐 조심하게 되고, 스스로 검열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이쪽으로 가면 알아서 커팅이 되니까 (웃음) 좀 더 자유롭게 작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화정 팀명으로 작품의 기획과 구조를 만든 사례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봉태규 오늘도 감독님 각자가 아니라 팀명으로 초청해 드릴 걸 그랬네요.

이화정 그러네요. 숨을 수 있도록. (좌중 웃음)

봉태규 이제 이지은 감독님과 김민주 감독님께, 두 분 다 차기작을 고민하고 계시잖아요. 제작 상황에 대해서 맞닥뜨리고 있는 현실은 어떨지 또 궁금합니다.

이화정 두 번째 작품을 시작하는 게 쉽지 않아 '소포모어 징크스(2년 차 징크스)'라는 얘기가 있기도 한데요. 독립 제작 방식으로 영화를 만들었기 때문에, 상업적인 구조 안에서 어려움들을 아직 맞닥뜨리지 않았을 수도 있고, 아니면 준비 과정에서 그 장벽을 느끼기도 하실 것 같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단계에서 두 분의 고민은 어떤 건지 말씀해 주신다면.

이지은 앞선 대표님이나 작가님보다 경험이 많지 않고 오히려 독립 영화 시스템에서 오래 있었기 때문에,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건 백미경 대표님이 얘기하신 대로 '좋은 콘텐츠를 쓰자'는 하나밖에 없어요. 당장의 제목은 그것이 어떤 규모로 만들어질지보다 '어떤 콘텐츠를 만들어야 되는가?' 그리고 '<비밀의 언덕>과 어떻게 다른 비전으로 진화해야 할까?' 지금은 그런 고민이 전부입니다.

이화정 김민주 감독님의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주 독립 영화 자체가 돈이 없는 영화여서 저희는 코로나가 있든 없든 늘 안 좋았고, (웃음) 더 안 좋아지긴 했지만 소름 끼치고 급격하게 예술영화가 안 좋아진 건 아니에요. (좌중 웃음) 물론 전고운 임대형 감독님 다 겪어 보셨겠지만 독립 영화 할 때는 내 인건비도 없고, 몇 년을 기다리고 희생해야 하는 시스템이잖아요. 이런 상업 시장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더 겁이 나고, 그나마 저희는 주제나 여성 관련 서사 등에 있어 자유롭고 순수하게 제작할 수 있는 유일한 단계라고 생각해서 벗어나고 싶지 않은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스태프를 채용하는 데 있어서, 제 영화의 키 스태프가 전원 여성분들이시거든요. 아무래도

더 큰 현장과 규모로 가면 창작자들조차도 어느 정도 제한이 있을 것 같아 두렵기도 합니다. 확실히 제가 여성 중심의 콘텐츠를 만드는데 여성 스태프들이 함께하다 보니 이해도나 공감대, 제가 느끼는 온도가 많이 달랐어요. 그래서 장점만 말씀드리고 물러나겠습니다. (웃음)

이화정 임대형 감독님의 <윤희에게>나 전고운 감독님의 <소공녀> 같은 경우 '관객들이 이런 서사를 요구하고, 즐길 준비가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도 실질적으로 상업 영화로 가면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막히기도 하잖아요. 그 부분에서 체감하셨던 장벽이 혹시 있으셨을까요?

전고운 요즘 영화도 하고 드라마도 하다 보니 두 쪽 이야기를 다 듣게 되는데, 올해 들어가는 영화가 많지 않잖아요. 제작되고 있는 게 드물다 듣고, 드라마는 또 드라마대로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두 현장을 경험해 보고 두렵지 않았던 이유는, 제가 영화를 꿈꿀 때 제가 여성이라는 이유로 '네가 여자이기 때문에 너는 감독이 될 확률이 되게 낮을 거야' '<소공녀>의 주인공이 여자이기 때문에 투자를 안 하겠다' 같은 부정적인 얘기를 주로 들어왔어요. <LTNS> 같은 경우도 그렇고, 지금 너무 어렵다는 얘기는 항상 들어왔던 저의 생태계, 제 생존 자체이기 때문에 두렵다기보다는 항상 살아남는 게 어려웠어요. 그래서 현재의 힘듦에 대해, '콘텐츠들이 한번 정신을 차려야 될 때가 아닌가'하는 생각을 해요. 그래야 재밌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반성도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화정 '빅브라더'도 동의하시는 건가요?

임대형 네, 완전히 똑같은 생각이고 (웃음) 저도 독립영화를 두 편을 찍는 과정에서 항상 제작비 모으기가 어려웠고, 구차한 이야기들을 하려면 참 많은데요. '이제 영화도 끝났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항상 어렵다'는 얘기를 워낙 많이 들어서 '내가 가는 길은 어렵다' 그걸 디폴트로 깔고 있어요. 그래도 한 번쯤 시도를 계속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무언가 되지 않을까 낙관적으로 최대한 생각합니다.

봉태규 근데 진짜 놀랍게도 저 두 분의 얘기만 듣고 있고 두 분의 얼굴만 보고 있으면 별일이 없는 것 같아요. (좌중 웃음) 내년에 좋을 것 같은데요, 잘은 모르겠지만? (웃음) <LTNS> 얘기를 좀 더 해볼게요. 이 작품은 개발 과정에서 OTT 시리즈물로 제작되다 보니 '다양성이나 표현 수위의 자유로움이 공중파나 다른 매체보다는 자유로울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두 감독님 모두 영화를 연출하면서 느꼈던 장벽과 OTT 시리즈물을 제작하면서 경험의 사이 다른 점이 궁금하고요. 또 이 시리즈물을 개발하면서 창작의 자유로움과 한계를 어떻게 체감하셨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임대형 작업하면서 크게 다른 점 못 느꼈던 게, 둘 다 너무 힘들어서 시리즈 작업할 때는 독립영화 작업할 때보다 더 시간이 없었던 것 같아요. 항상 모든 감독이 그럴 텐데, 시간에 쫓기는 것이 힘들었고 오히려 시리즈 작업을 하면서 저희 스스로 검열하지 않으려고 '투자를 못 받을까 봐 겁먹지 말자, 그냥 재밌게 쓰자'

가 목표였기 때문에 영화 찍듯이 찍으려고 노력했고요.

전고운 드라마를 찍으면서 영화와 큰 태도가 달라진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다만 글을 쓸 때 영화보다 '시청자분들이 보는 이유를 찾아서 매 장면이 재미있어야 되지 않을까, 조금만 재미없는 순간 우리 곁을 떠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훨씬 시선을 끌 수 있게 신경 쓰며 대본을 쓴 게 차이점이고요. 연출 같은 경우는 독립영화든 시리즈든 주어진 환경에서 제일 잘하고 싶은 건 똑같은 마음이기 때문에, 둘 다 고통스러운 건 매한가지였죠. 다만 독립영화와 시리즈와 달랐던 건 보상이 확실했다. (일동 웃음) 독립영화는 돈을 안 받으면서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인간의 삶이 그게 되게 크다는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사람이 돈을 받으면서 일을 하는 건 위로가 되는구나. 그런데 독립영화는 돈을 안 받으면서 위로받는 지점이 있어요. '나의 스웩(Swag)은 이 정도다' (좌중 웃음) 이런 게 있거든요. 둘 다 장단점이 있고, 뭐가 더 좋다 나쁘다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든지 하면 되지 않을까, 투자도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또 있고 '하다 보면 또 다 된다' 그런 것 같아요.

이화정 봉태규 배우님 말이 맞네요. 걱정이 없을 것 같아요.

봉태규 제가 <LTNS>에 특별 출연 했는데요. 정말 우연히 '이 작품을 들어갑시다' 하는 현장에 제가 있었어요. 창작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어떤 작품이 진행되는 과정이 늘어지고 될지 안 될지 결정하는 과정이 굉장히 피 말리거든요. 그런데 그때도 두 분만큼은 표정이 되게 좋았어요. (좌중 웃음) 제 기억으로 이전에 만난 많은 작가님들, 감독님 같은 그런 표정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전고운 독립 영화를 해서 되게 뿌듯한 건, 근육이 엄청나요. 특유의 의연함으로 '다 되겠지, 다 된다'는 마음에 공감하실 거로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저희는 완전히 제로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이화정 '맷집이 있어서 어떤 어려운 환경 안에서도 우리는 작품을 만들 수 있다'고 하셨는데 차기작도 두 분이 함께 만드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박경화 작가님께도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의 케이스와 달리 원래 홍보 일을 하시다가 공모전 형식의 발굴을 통해서 신인 작가로 데뷔하셨는데, 다음 작품을 준비하실 때 느끼는 장벽이 체감 되시는지, 또 이 단계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박경화 벡델리안에 선정되는 게 장벽이 되죠. (좌중 웃음) '다음에 더 멋있는 거 써야 된다. 큰일 났다. 이거 멋대로 할 수가 없네. 지금 이렇게 무거운 트로피를 줬네' 하면서요. (웃음) 그런데 말씀 듣다 보니까 저는 온실 속에서 여기에 올라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작가라서 제작비 걱정을 안 했고 되면 되나 보다 싶었는데, 그래도 어깨가 무겁죠.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저는 기업 홍보 일을 오래 했습니다. 우리가 이름을 들으면 대부분 알만한 대기업에서 홍보를 20년 가까이 했어요. 해마다 회장님의 스테이트먼트에 쓰는 단어가 '경제 위기'였고, 늘 위기라는 말을 써 와서 그런지 어렵다는 그 말이 디폴트 값으로 느

겨지기도 해요. 저는 코로나 시기, 한참 콘텐츠 업계가 호황이던 시절에 공모전에 당선이 됐고, 당시에는 콘텐츠 제작이 많이 진행되고 있을 때였어요. 백미경 작가님이 제가 소속된 '오펜'에 오셔서 강연도 해주시고,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나도 저런 작가가 돼야 돼. 나도 부와 명성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어. 왜냐하면 콘텐츠 업계에 돈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했어요. 당시 많은 제작자 분이 특강을 오셨는데 '여러분의 시대가 왔다. OTT 채널들의 투자가 쏟아지고 있다' 했는데 1년 만에 들어갈 수 있는 자리들이 없어진 거예요. 제가 마지막 기회에 승선한 느낌이 있기도 합니다.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자면, 첫 작품에서 안판석 감독님이라는 훌륭한 디렉터를 만났잖아요. 감독님이 쌓아온 명성과 신뢰로 얻어낸 것들, 제가 모르는 곳에서 믿어준 분들이 계셨기에 이루어진 일들이 많았을 거라 생각해요. 백미경 작가님은 이제 본인의 이름을 걸고 해낼 수 있는 분이잖아요. 제게도 오롯이 작가로서 제 이름으로 믿을 수 있는 작가가 된다는 것, '이 사람이 쓰니까 재미있을 거야'라는 산을 넘어야 한다는 숙제가 있죠.

이화정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러 주어진 환경이나, 구조적인 문제를 타파하면서 이 자리까지 왔기 때문에 새로운 콘텐츠로 관객들과 만날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가자면 <교토에서 온 편지>가 지닌 장소성의 문제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봉태규 벡델데이를 하면서 빠지지 않는 게 고정관념에 관한 얘기인 것 같아요. 이 영화에 등장하는 장소도 생각지도 못한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곳인 것 같은데요. 부산은 다 '칠성파', '20세기파'인 줄 알았거든요. 영화 <친구><범죄와의 전쟁>에서도 그렇고 특히 부산의 영도는 남성성 짙은 누아르적 장소로써의 고정된 이미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교토에서 온 편지>가 다루는 영도는 우리가 봐왔던 기존의 모습과 다릅니다. 저는 그곳이 그렇게 서정적이고 아름다운 곳이라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는데요. 부산이 고향인 감독님께서 작품을 만드시면서 이러한 이미지를 벗어나야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김민주 확실히 의도했던 것 같아요. 제가 영도에서 나고 자라 대학에 오기 전까지 계속 그곳에 살았어요. 매체에서 영도가 비춰지는 모습 보면 마약 거래, 살인 같은 이미지들이 있었죠. 어렸을 때 동네, 영도 다리 밑에서 류승범 씨가 나오는 <사생결단>을 촬영하는 장면을 본 적도 있거든요. 제가 창작자가 되면 언젠가 '영도에서 발붙이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보여 주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제 가족과 친척, 이웃과 친구들이 사는 곳인데 그런 방식으로 소비되는 것에 마음이 좋지 않았어요. 그 부분을 꼭 비틀어 보고 싶었거든요. 영화에 나오는 항구 근처의 다리 밑이 전형적으로 누구를 찔러 죽이는 장면으로 많이 사용되던 장소인데, (좌중 웃음) 저는 가장 로맨틱하게 셋째가 썸을 타는 장면으로 사용했어요. 저도 학교 끝나면 그 주변에서 자주 놀던 기억이 있어요. 바다와 항구가 나로 앞에 있는 동네, 그곳의 감성과 추억을 그대로 영화에 녹여내고 싶었습니다.

이화정 구조적인 부분에 있어 다른 판을 만들고, 흔히 써온 장소성을 어떻게 바꿔 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하나하나 점을 이루어서 한 작품이 나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작 비하인드, 캐릭터, 산업 구조, 더불어

어떤 방식으로 고정관념을 전복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 봤는데요. 여러분의 질문으로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해 주시는 분들에게는 선물이 있어요. 고심해서 만든 백델데이 굿즈와 그리고 스태프들만 입을 수 있다는, 그리고 봉태규 배우한테만 준다는 (웃음) 티셔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태규 이번에 디자인이 예쁘더라고요. 소장 가치가 있다.

이화정 괜찮죠? (웃음) 그러면 질문 받아보도록 할게요. 질문 있으신 분은 손 들어주세요.

관객1 <LTNS> 감독님 두 분에게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당시 '정신적 불륜과 육체적 불륜 중 무엇이 더 더러운가?'라는 질문이 인터넷에서 엄청 화제가 됐어요. 개인적으로는 사무엘이 더 더럽다고 생각했거든요. 옆집 여자와 청소하다가 엉덩이가 닿는 장면이 있어요. 그 부분이 굉장히 더럽지만 (좌중 웃음) 인상적이어서 좋았거든요. 물론 둘 다 너무 나쁘지만 감독님들의 생각은 어떤지, 어떤 게 더 최악이라고 생각하셨는지 질문드리고 싶었습니다.

이화정 알겠습니다. <LTNS>급 질문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좌중 웃음)

임대형 일단 질문 너무 감사합니다. 사무엘이 더 더럽다고 말씀하시면서 저를 보셔서 너무 무서웠어요. (좌중 웃음) 저희가 글을 쓰면서 계속 '누가 더 나쁜가' 하고 토론도 많이 했는데, 물론 도덕적으로 잘못은 했지만 '이 사람들이 그냥 나쁜 사람들이야'하고 글을 쓰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장면은 드라마인데도 콘티를 그렸어요. 그래서 그림대로 찍으려고 노력했던 장면입니다.

봉태규 질문을 피해 가시는데, '누가 더 더럽냐'라고.

이화정 답을 내려달라고 하시는 거죠.

임대형 제가 이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았었는데 그때마다 항상 대답을 못 했던 게, 저도 생각이 매번 바뀌거든요. 요즘 생각에는 사무엘이 좀 더 더러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무엘은 끝까지 자기가 바람피우지 않았다고 우기잖아요. 그런 면에서 우진은 깨끗하게 인정하는데, 본인은 안 잤기 때문에 바람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태도가 더 나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전고운 작품을 찍고 자꾸 더럽다는 얘기를 들어서 관객분들이 '충격을 느끼셨구나' 싶었어요. 신선한 경험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는 아무래도 등장하는 모든 인물에 대해 고민하기 때문에 다 사랑하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하는 잘못, 실수가 사실 이해가 됐던 것 같아요. 글을 쓰면서 인간이 결핍을 느끼면 어떤 실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우진도 이해되고 사무엘도 이해되고, 그래서 '더럽다'까지는 생각 안 해봤어요. (웃음) '인간이 살다 보면 이런 실수를 할 수 있지' 싶었는데 사람들은 이 두 가지의 가치를 두고 싸우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한번 우리도 불을 지펴볼까?' 하는 의도로 쟁점을 다루게 됐던 것 같아요. 만약 제가 당사자라면 상대가 나에게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에 따라서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쪽에서 얼마나 솔직하게 사죄하느냐, 어떤 스탠스를 취하는지에 따라서 다르게 행동할 것 같습니다.

이화정 벡델데이에 초청된 작품인 만큼 평등하게 더 지점들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쟁점들에 대해 왈가왈부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것 같아요.

봉태규 여기서 보면 여러분 앉아 있는 의자가 빨갛거든요. 참 이런 질문 안에서 참 묘하게 보이네요. (좌중 웃음)

이화정 또 질문 받겠습니다.

관객2 저는 백미경 대표님께 질문이 있는데요. <품위있는 그녀>도 그렇고 '힘쎈' 시리즈도 그렇고 분위기는 다르지만 '포기하지 않은 여성상'들이 계속 등장해요. 그런 의미에서 대표님의 작품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작가님께서 좋아하시는 여성상, 여성 캐릭터상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백미경 사실 저랑 같이 협업하는 보조 작가들이 콘텐츠 속에 제가 많이 있다고 얘기해요. <품위있는 그녀> 주인공 '우아진' 같이 멋있는 여자가 아니라, 약간 덜떨어진 캐릭터들 있죠. 부족한 돌돌이 캐릭터들에 제가 많이 들어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여성 캐릭터는 현실에 존재하고, 적당히 욕망이 있지만 결국은 보이지 않는 것에 가치를 두는 여자인 것 같아요. 작가로서 실제로 존재하기 힘든 여자들, 극적으로 구현된 이상형의 캐릭터가 아닌 현실적으로 공감되고 '저런 여자가 되고 싶다'라는 캐릭터를 쓰고 싶어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캐릭터는 적당히 현실적이고 우리 보다 조금 더 나은 사람 있죠. 너무 동떨어진 그런 사람은 존재하기 힘들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속물성이 나보다는 조금 덜한 여자, 가치 중심적이고 자기 세계관이 확실한 멋진 여자를 좋아하죠. 그런 걸 현실적으로 그리고 싶어요. 이상적인 캐릭터를 넘어 이제는 좀 더 입체적인 캐릭터를 그리고 싶은데, 시청자분들은 내 편, 남의 편 도식화해서 양분화해 드라마를 보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드라마에서 원하는 건 골치 아픈 입체적인 캐릭터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한 번씩 들거든요. 악인을 너무 공감가는 사람으로 쓰면 오히려 욕을 먹기도 하고, (웃음) 그런 부분에 있어 고민이 들긴 합니다. 절대 선과 악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인간이란 환경과 호르몬의 조형물이잖아요. 환경에 따라 악인이 되기도 하고, 좋은 사람이 변하기도 하는 이야기를 다루고 싶습니다.

이화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작품에서 입체적인 캐릭터를 만들고 계시다는걸 알려드리면서, 다음 질문을 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객3 먼저 박경화 작가님께 글을 쓰고, 방송이 되고 난 뒤 예상했던 반응과 다른 경우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궁금합니다. 이지은 감독님께는 개인적으로는 독립영화와 상업영화의 어떤 뚜렷한 경계가 사실 있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독립영화를 계속 밀고 나갈 생각인지 상업영화를 제작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박경화 네, 백미경 작가님께서 대중의 요구 수준이나 취향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글을 쓰면서 느껴지는 것과 방송이 되고 난 후의 반응을 보면서 양가적인 감정들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한편으로 콘텐츠에 혐오적인 표현이 들어가거나, 플랫하게 여성성이나 남성성이 강조된 캐릭터에 대해 비판적인 판결을 내려주시기도 하고요. 반면 시청자분들께서도 전형적이고 유니콘 같은, 현실에 없는 캐릭터가 제시되기를 바라는 양가적인 감정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더욱 창작자들이 요즘 대중들은 무엇을 원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많을 거란 생각이 들고요. 정답은 없지만 무엇이 옳다는 방향성은 모두가 알고 있을 것 같고요. 누구보다 제가 만나본 일선의 창작자분들은 이러한 이슈에 대해 점진적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45살에 대본 공부를 시작해 46살에 공모전에 당선된 사람이에요. 나이가 많아 당선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고요. 전공도 하지 않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에게 이런 기회가 주어졌어요. "장편을 써 본 적도 없는, 게다가 나이도 많은 여성 초보인데 괜찮을까요?"라고 안판석 감독님께 무릎 꿇고 이실직고했던 기억이 나요. 그때 "누구도 당신을 그런 잣대를 가지고 보지 않을 것이다. 지금까지 읽은 책과 영화 음악이 당신의 자양분이 될 뿐이지 그 외에 너를 규정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감사하게도 이런 기회를 가지게 됐던 거예요. 간혹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속도가 나지 않고, 아주 느리고, 가끔 역주행도 하지만 더 좋은 방향으로 조금씩 나아가서 그런 팀들을 다시 만날 수 있을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봉태규 두 번째 질문은 이지은, 김민주 감독님 두 분이 같이 답해 주셔도 좋겠네요.

이지은 다음 단계를 넘을 때는 항상 허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장편 <비밀의 언덕> 이전에 단편 세 작품을 찍었는데요. 첫 작품은 자비로 제작했고 나머지 두, 세 번째 작품은 지원을 받아서 제작 했거든요. 지원을 받을 때마다 항상 큰 허들을 넘어야 했어요. 장편을 찍어보지 않은 감독에게 투자해도 될지, 경험이 있는지, 전작의 부족함이 무엇인지, 이 단점을 장점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같은 우려를 항상 심사에서 부딪혀야 했거든요. 그때 들었던 생각은 제 작품들이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항상 기회를 주셨다는 거였습니다. 항상 심사위원분들께서 격려해 주셨던 말이 떠올라요. '당신의 전작의 부족한 점이 있지만, 그걸 잘 넘어서길 바랍니다'라는 격려와 칭찬 한마디가 포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제가 지금 딱 상업영화를 준비하는 시기이거든요. 그 사이에서 우려되는 점도 있지만, 독립영화에서 보여준 유니크함을 칭찬해 주시면서 어떻게 하면 그 장점이 빛을 발할 수 있는지, 상업영화에서 어떤 방식으로 허들을 넘을 수 있는지를 마치 <비밀의 언덕>의 선생님처럼 알려주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화정 울컥하시네요.

이지은 신인 감독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기회를 주는 것. 그리고 실수를 하더라도 다음에 잘할 수 있을 것이란 믿음을 주는 것.

이화정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사실 여성 감독들을 상업영화가 믿어주지 않거든요. 신작을 발표할 때, 남성 감독들과 대비해 그 믿음의 강도가 굉장히 약하다는 거죠. 조금씩 개선되어 가고 있지만 여전히 '더 많은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민주 같은 마음이에요. 당연히 이상적인 것은 내가 찍고 싶은 얘기의 규모가 작다면 독립영화로 찍고, 크고 예산이 많이 들 것 같으면 상업용으로 만들고 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아직 제가 그걸 선택할 경력과 능력이 안 되고요. 언젠가 기회가 오겠지 하면서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자'는 마음이에요. 그러면 '당장 할 수 있는 건 독립영화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또 독립 영화를 찍어야지' 싶어요. 너무 크게 생각하면 우울하고 불안하기 때문에 멀리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제 방어기제 같기도 하고, 그래서 '당장 할 수 있는 걸 하자, 매일매일 쓰자'가 가장 큰 목표입니다.

이화정 '내일부터라도 무언가 당장 쓰실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1시간 반이 정말 짧죠. 중요한 분들을 모시고 이야기하느라 예정된 시간을 훌쩍 넘겼는데요. 질문은 여기까지 받도록 하고요. 여기서 나눈 이야기들이 앞으로의 작품들로, 다시 또 우리에게 메시지를 건네는 작품으로 머지않아 우리에게 찾아올 것이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벡델리안 선정과 함께 관객분들과 만나 많은 이야기를 나눈 소감이 어떠신지 마지막으로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백미경 너무 감사하고요. 내년에도 받고 싶네요. (웃음) 다른 분에게 기회를 주셔도 좋은데, 여성의 이야기를 앞으로 계속 만들겠다는 그런 뜻으로 드린 말씀입니다.

이화정 당연히 중복 수상 가능합니다. (웃음)

박경화 저도 오늘 너무 즐거웠고 뜻깊었고, 또 TV 뒤에 계셨던 분들을 직접 봬서 너무 기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대형 저희도 시리즈 작업 처음 하면서 '이게 어떻게 보일까, 고민한 디테일들을 알아주실까?' 하는 고민을 했는데요. 알아채 주시고, 언급해 주시고 또 이렇게 얘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벡델데이 덕분에 트로피도 받고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고운 네, 저희는 팀이니까 이하 동문으로. (웃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민주 함께 수상한 작품들 보면서 '저건 어떻게 만들었을까, 어떤 분들이 만들었을까?' 궁금했는데 자세한 얘기 들려주고, 저도 관객의 마음으로 재밌게 들었어요. 함께해서 영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지은 저도 오늘 대표님과 작가님들과 감독님들, 얘기 들으면서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저는 꼭 여자가 주체적이어야만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어떤 환경에 의해 당장 주체적으로 살지 못하고 있는 여성들도 많고요. 제가 앞으로 그리고 싶은 여성은 어떤 공간에 갇혀 있더라도 생명력이 넘치는 그런 캐릭터, 그런 인간을 그리고 싶습니다. 오늘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화정 그런 캐릭터들을 만들어 주실 거라 믿습니다.

봉태규 인사드려야죠.

이화정 네, 인사드려야죠. 내년에 같이 하셔야 되잖아요.

봉태규 큰 일이 없다며 내년에 뵙도록 하고요. 오늘 이렇게 긴 시간 동안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화정 오늘 부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며, 2부 순서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남아서 오늘 하루를 같이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럼 1부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벡델
데이
2024

스페셜 토크

임순례 28년,
여성 감독 뉴웨이브

참석 | 임순례 감독, 남동협 감독

진행 | 주성철 씨네플레이 편집장
이화정 벡델데이 프로그래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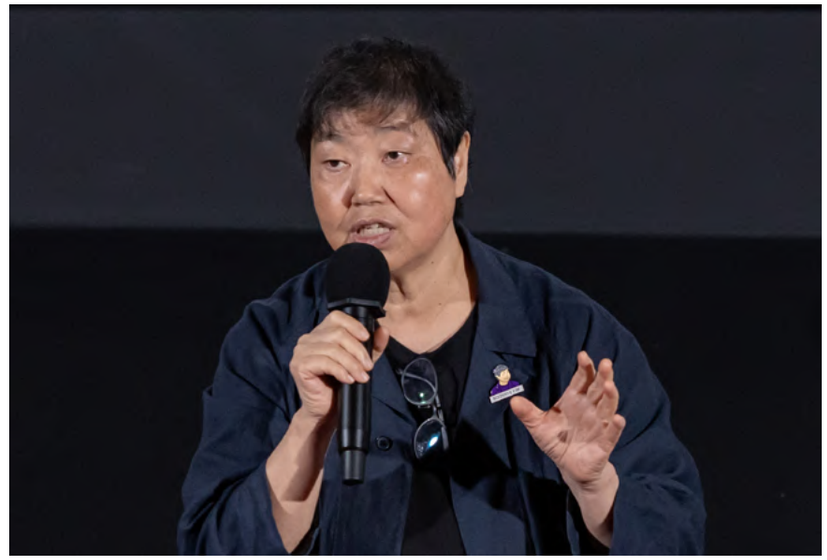




왼쪽부터 사회자 이화정 벡델데이 2024 프로그래머, 패널 <핸섬가이즈> 남동협 감독, 사회자 주성철 씨네플레이 편집장

스페셜 토크 패널 남동협 감독





스페셜 토크 패널 임순례 감독



스페셜 토크

임순례 28년, 여성감독 뉴웨이브

1996년. ‘여성감독’ 임순례가 <세 친구>로 데뷔했다. 지금으로부터 28년 전의 일이다. 데뷔의 그 순간, 충무로에서 영화를 하는 여성에게는 그 어떤 것도 ‘당연한 것’이 없었다. 여성이 연출자의 자리에 앉는 일도, 충무로의 도제 시스템을 거치지 않고 감독이 되는 일도, 여성이 남성의 전유물이라 여기는 남성 캐릭터를 그리는 일도, 규모 있는 장르영화를 연출하는 일도 흔치 않은 시대였다. 임순례 감독은 ‘여성감독’이라는 수식어를 부여 받고도 거침 없는 행보로 그 틀을 확장해 온 독보적인 감독이다. 벡델데이는 데뷔작 <세 친구> 이후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2008), <소와 함께 여행하는 법>(2010) <제보자>(2014), <리틀 포레스트>(2018), 그리고 최근작 <교섭>(2023)에 이르기까지 규모와 장르를 아우르는 작품 연출로 단 한 번도 자신을 속박하지 않고 종횡무진 하며 영화계에 새로운 길을 만들어 온 임순례 감독의 창작 세계를 평가하고 그 의미를 되짚어 보고자 한다.
주어진 길을 벗어나 새로운 길을 만들어 나가는 가장 적극적인 ‘순례’. 임순례 감독의 시도가 곧 한국 여성 감독의 새로운 물결이 되어 다음 창작자들에게 열어 준 가능성이야 말로 벡델데이가 지향하는 성평등한 콘텐츠의 발전 속도와 방향을 알려주는 바로미터다.

개요

일시 9월 7일(토) 18:00~19:30
장소 인디스페이스
진행 주성철 씨네플레이 편집장, 이화정 벡델데이 2024 프로그래머
패널 임순례 감독, 남동협 감독

이화정 안녕하세요. 벡델데이 프로그래머 이화정입니다.

주성철 안녕하세요. 함께 벡델데이 2024 사회를 맡은 주성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이화정 1부 벡델토크도 보신 분 계신가요? 엄청 많으시네요. 오늘 벡델데이 5회를 맞이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는데요. 1부는 벡델리안과의 만남, 2부는 스페셜 토크라는 이름으로 행사를 꾸려봤어요. 벡델데이가 매년 성평등의 가치를 가지고 영화와 시리즈를 만드는 창작자를 조명하는 시간을 마련해 왔는데요. 올해는 한국 영화를 대표하는 감독을 모셔보았습니다. 여성 감독을 ‘여성’이라 콕 집어 부르던 시절 오히려 그 수식에 갇히지 않는 길을 걸어온 분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이분을 조명하면 좋을까’라는 고민 끝에 스페셜 토크로 감독님의 전작을 돌아보는 시간을 마련해 보았습니다.

주성철 ‘임순례 감독 28년, 한국 영화 여성 감독 뉴웨이브’라는 이름을 붙여봤는데요. 오늘의 토크를 통해 주제를 왜 여성감독 뉴웨이브로 정했는지 확실히 아시게 되리라 생각하고요. 임순례 감독님은 1996년 <세 친구>로 데뷔하셨는데요. 저도 28년 전 부산국제영화제에서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감독님의 단편 영화 <우중산책> 으로 계산하면 올해가 데뷔 30주년이 되십니다. 그 이후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 <소와 함께 여행하는 법> <제보자> <리틀 포레스트> 그리고 최근작 <교섭>에 이르기까지 규모와 장르를 아우르는 작품 연출로 종횡무진하며 영화계에서 자기만의 길을 굳건히 만들어가고 계시는 임순례 감독님의 창작 세계를 이 자리에서 관객 여러분과 함께 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이화정 그 전에 저희가 또 한 분을 초청했어요. 177만 관객 동원하고 올해 극장가의 가장 새로운 기운을 불러일으켰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핸섬가이즈>를 연출한 남동협 감독님 모시겠습니다.

주성철 벡델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한 영화죠. (웃음)

이화정 이대로 갔다가는 절대 벡델데이와는 인연이 없는데(좌중 웃음), 벡델데이와 인연이 없는 이 감독님을 어떻게 모실까 하다가 임순례 감독님이 걸어오신 길을 돌아보는 데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으로 요청을 드렸습니다. 프로그램을 발표하고 주변 지인들에게 제일 많이 들은 이야기가 “남동협 감독님 거기 왜 불렀어? (웃음) 무슨 연결고리야?”였는데요. 그사이 굉장한 인연들이 새록새록 있었다는 사실을 감독님이 많이 상기해 주셨더라고요. 덧붙여 임순례 감독님과 같은 길을 걷고 있는 후배 감독으로서 어떤 난간을 통과하며 여러분들과 만나고 있는지, 임순례 감독님이 28년 전부터 걸어 왔던 길 안에서의 어려운 지점들을 남동협 감독님도 마찬가지로 느끼며 데뷔작을 연출하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다양하고 의미 있는 이야기들 들려주실 것 같은데 인사 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동협 안녕하세요. 벡델데이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좌중 웃음) <핸섬가이즈>를 연출한 남동협입니다. 반갑습

니다. 오늘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영광이고요. 임순례 감독님의 28주년 토크에 누가 되지 않도록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화정 네 알겠습니다. 감독님의 결심을 토대로 좋은 이야기를 들려줄 거라 믿으면서, 오늘의 주인공인 임순례 감독님을 자리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임순례 네 안녕하세요. 임순례입니다. 이렇게 소중한 주말에 시간내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화정 그럼 자리에 앉아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동협 감독님께서 벡델데이와 전혀 상관없는 감독이라 스스로 말씀해 주셨는데, 임순례 감독님도 최근작은 벡델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어요. 첫 번째가 여성이 두 명 이상 나올 것, 그 여성들이 서로 대화할 것. 이 두 조항에서부터 <교섭>은 해당하지 않잖아요. (웃음) 벡델데이의 초청을 받고 어떤 소감이었는지 궁금합니다.

임순례 저는 <교섭>뿐 아니라 제 데뷔작 <세 친구> < 와이키키 브라더스> 모두 벡델데이 기준을 통과 못 하는 영화들이었어요. 제가 만든 영화 중에 벡델 테스트를 통화할 수 있는 영화는 <소와 함께 여행하는 법> <리틀 포레스트>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정도인 것 같아요.

이화정 또 <날아라 펭귄>도 있죠. 감독님이 워낙 다양한 작품을 만들어오셨기 때문에 벡델 테스트에 통과하는 작품도 많다는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는 시리즈 제작 준비로 바쁜 시간을 보내고 계시잖아요. 근황에 대한 말씀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순례 사실 <교섭>은 2020년도에 촬영을 했는데, 개봉을 작년 초에 했죠. 제가 다음 달에 드라마 촬영을 하게 됐어요. 영화와 드라마의 형식은 다르긴 하지만, 4년 만에 다시 촬영을 하게 되는 시점에 있습니다.

이화정 바쁘신 가운데서도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겠습니다.

주성철 이제 남동혁 감독님을 모신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다른 그림을 만들어보고 싶은 생각이 있었어요. 보통 후배의 여성 감독을 모시는 것도 좋지만 대척점에 있을 법한 감독님을 찾아봤는데요. 임순례 감독님 같은 경우에는 제1회 서울단편영화제에서 <우중산책>으로 최우수상을 받으시면서 영화계에 자신의 이름을 알리셨죠. 그 이후 <세상 밖으로>라는 작품으로 조감독을 하신 뒤 <세 친구>로 데뷔하셨는데요. 어떻게 보면 당시 완전히 새로운 입봉의 모습이긴 했죠. 긴 도제제도를 거치며 실력을 쌓고 시나리오를 쓰고 데뷔하는 과정이 아니라, 영화제라는 새로운 단계를 거쳐 데뷔를 하셨고요. 프랑스 유학을 다녀오시기도 했고요. 그것과 비교해 보면 남동협 감독님은 많은 영화에 참여하며 오랜 기간 자신을 연마해 <핸섬가이즈>라는 작품을 통해 데뷔하셨는데요. 기나긴 한국 영화의 세월을 두고 거울처럼 서로를 비추

는 듯했어요. 그렇게 이 자리에 모시고 싶다는 제안에도 흔쾌히 응해 주셨습니다. 또 남동협 감독님이 여러 연출부와 조감독 생활을 해오면서 임순례 감독님과 함께할 뻔했던 순간도 있으셨잖아요. 두 분의 인연에 대한 말씀을 들어보며 시작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남동협 우선 제가 <티끌 모아 로맨스>라는 영화의 조감독을 했었는데요. 그때 인연이 됐던 구정아 PD님이 이후 <리틀 포레스트> 제작을 하셨어요. 감사하게도 <티끌 모아 로맨스>의 조감독을 했던 제 모습이 괜찮으셨는지 프리 프로덕션을 시작하려던 찰나 조감독 제안을 주셨는데요. 아쉽게도 그때 먼저하고 있던 작업이 있어 참여하지 못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만약 <리틀 포레스트>의 조감독을 하게 됐다면 제가 임순례 감독님을 모시는 영광을 누릴 수 있었을 텐데, 오늘에서야 뵙게 돼서 결국에는 만날 인연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웃음)

주성철 그리고 평소에 후배 감독으로서 임순례 감독님을 영화계 안에서 어떻게 바라보셨는지도 궁금합니다.

남동협 임순례 감독님의 <세 친구>가 나왔던 1996년도가 제가 고3 때거든요. 영화 감독을 꿈꾸던 시기가 그때쯤이었는데, 저한테는 어느 순간부터 한국 영화계의 유명한 감독님이란 존재가 돼 계셨어요. 임순례 감독님을 한마디로 '제가 감히 오르지 못할 산'이라고 표현을 드리고 싶은데, 28년 동안 영화감독을 하신 거잖아요. 제가 올해 마흔일곱이 돼서야 드디어 데뷔했는데, 저는 28년 동안 못 할 것 같거든요. 28년 후면 75살이기 때문에. (좌중 웃음)

이화정 지금 시작해도 이미 늦은 (웃음)

남동협 저는 감히 20년도 힘들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정도로 오랜 기간 한국 영화 21세기를 짊어지고 또 대표하는 감독님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화정 감독님을 통해서 본인의 미래 연차를 계산해 보신 것 같아요. (웃음) 아까 주성철 편집장님도 얘기하셨듯이 임순례 감독님은 <우중산책>이라는 단편부터 따지면 30년 동안 메가폰을 잡으신 거거든요. 그사이 많은 감독들이 데뷔하고 작품을 만들었지만, 지속성으로 봤을 때 꾸준히 영화를 만드는 감독님들을 생각을 해보면 손에 꼽는 수준인 것 같아요. 영화를 만들고 싶은 마음과는 다르게 장벽과 허들이 만만치 않은 곳이거든요. 신작을 고심해서 쓰고, 창작한 작품들로 어떻게 관객과 만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쉽지 않은 지점들이 있었을 것 같고요. 제작 구조뿐 아니라, 투자 상황들도 계속 변모하고 있지만 '큰 규모의 작품과 여성 감독이 공존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물음들도 산업 내부에서는 끊임없이 질문되어 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주성철 편집장님께 얘기를 여쭤보고 싶어요.

주성철 먼저 '임순례 28년, 여성 감독 뉴웨이브'라 이름 붙인 이유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 여성 감독의

연대기를 돌아보면 임순례 감독님 데뷔 이전에 <낮은 목소리>라는 다큐멘터리를 연출하신 변영주 감독님이 계셨고, 그보다 앞서 80년대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감독님 중 <물망초>를 포함해서 6편의 영화를 만드신 이미례 감독님이 있습니다. 80년대 당시 왕성하게 활동하셨고요. 그 이후 여성 감독의 역사가 끊긴 것이나 다름이 없었는데 임순례 감독님이 서울국제단편영화제와 <세 친구>로 데뷔하신 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많은 다른 여성 감독님들이 데뷔를 하셨어요. <고양이를 부탁해>의 정재은 감독님, 변영주 감독님도 첫 극영화 <밀애>를 만들기도 하셨고요. 보통 '뉴웨이브'라는 이름을 붙일 때는 선구적인 한 사람의 단독 활동보다 동시다발적인 움직임이 있을 때 잖아요. 한국 영화에 있어서 '여성 감독 뉴웨이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임순례 감독님께 첫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영화 기자를 시작한 2000년대 초만 해도 촬영 현장으로 취재를 많이 갔거든요. 그런데 현장을 가보면 감독님은 말할 것도 없이 스태프 중에 여성을 찾아보기가 힘들었어요. 그런 점에서 프랑스 유학을 다녀오신 이후 한국 영화계에 스태프로 활동해 봐야겠다고 생각하셨던 당시의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임순례 제가 60년생인데, 제가 남들보다 대학을 2년 늦게 들어갔어요. 81학번 영문과로 입학했고요. 당시 영문과가 문과 중에서는 취업이 잘 되는 편이어서 '취업이나 할까?' 싶었는데, 대학에 다니면서 프랑스문화원에 다니면서 영화에 눈을 뜨기 시작했어요. 대학교 4학년 때 본격적으로 '영화를 해야겠다'는 결심을 하면서 고민을 시작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충무로에 가서 도제시스템을 경험할 수 있었겠죠. 요즘은 연출부를 두루 돌아다니며 다양한 감독님께 배울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한 감독님 밑으로 들어가면 대략 10년을 계속 일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제가 영화를 전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대로 영화 공부를 해 봐야겠다' 싶어 대학원을 갔고, 요즘에는 인터넷이나 국제영화제 등을 통해 다양한 영화를 접할 수 있지만 80년대 중반에는 좋은 영화를 접하기 어려웠어요. 그래서 '영화를 보러 프랑스로 가야겠다' 싶었죠. 프랑스에서 4년을 공부하다 돌아와 본격적으로 '내 영화를 만들어 봐야겠다'는 마음으로 충무로에서 대략 작품을 경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1993년 <세상 밖으로>라는 작품의 스크립터로 참여 하던 당시에는 의상, 분장까지 남자가 하는 경우가 많았고 어떤 팀을 보면 전체 스태프 중 여자가 한 명인 경우도 있었어요. 많아 봤자 네다섯 명이었죠. 그런 상황 속에서 상업 영화의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공정을 통해 만들어지는지 공부했고요. 당시 디지털카메라도 보급된 상황이 아니라, 단편영화는 16mm 필름으로 만드는 거라 영화 공부를 했어도 돈이 많이 들어 한 번도 만들어 본 적이 없던 거예요. 그래도 내가 감독이 되려면 단편 영화를 만들어 봐야겠다는 생각으로 <우중산책>을 기획해 만들었어요. 지나간 세월을 떠올리면 고비마다 운이 좋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첫 단편을 만들었더니 제1회 서울단편영화제가 생겨 상을 받고, <세 친구> 만들었더니 부산국제영화제가 생겨 주목을 받은 거예요. (웃음)

.

이화정 영화제를 만드시는 분이네요. (웃음)

임순례 돌이켜보면 제가 가진 어떤 재능보다는 주변의 운이 상당히 작용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이화정 감독님이 표현하신 운이 사실 한국 영화의 전체 흐름 안에서의 뉴웨이브, 새로운 흐름을 접하고 만드는 구조가 꿈틀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주목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겨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임순례 맞아요. 1994년 서울단편영화제, 1996년 부산영화제에서 한국에서 만든 단편 영화, 상업 영화뿐 아니라 폴란드나 미국에서 공부하고 온 친구들의 작품들도 상영되면서 그동안 볼 수 없었던 방식에 대한 자극이 있었고요. 홍상수 감독의 <돼지가 우물에 빠진 날>이나 김기덕 감독의 <악어>처럼 기존에 한국에서 만든 영화의 색깔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제가 어떤 새로운 흐름을 타고 있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주성철 <우중산책>이라는 첫 단편을 서울국제단편영화제가 열린다는 것을 인지하고 만든 작품이라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전에 '내 이야기로 영화를 만들어 봐야겠다'고 생각하신 것 자체가 하나의 큰 발걸음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임순례 1996년 <세 친구>를 만들 당시 한국 나이로 서른일곱이었어요. 그때만 해도 늦었다 싶었는데, 아까 남동협 감독님 얘기 들어보니 또 늦은 게 아니었네요. (좌중 웃음) 영화를 해야겠다고 결심한게 1984년도 말인데, 1996년에 첫 영화를 만들었으니 12년이 걸린 거잖아요. 저는 그 시간이 너무 길다고 느꼈고, 조급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주성철 그렇다면 남동협 감독님의 첫 번째 참여 작품이 무엇이었는지, 어떤 계기로 참여하게 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남동협 제가 처음 참여한 작품은 2000년도에 군대에서 제대하고 나온 시기에 마침 고향인 마산과 가까운 부산에서 학교 선배가 참여하고 있는 <천사몽>이란 영화가 있었어요.

이화정 <천사몽>의 이름을 여기서 듣게 될 줄이야.

남동협 그 당시 <쉬리>와 <은행나무 침대>의 제작비를 능가하는 블록버스터급 SF 영화였고, 심지어 주연 배우가 월드 스타 여명 씨, 이나영 씨가 신인으로 나오셨던 영화고요. 당시 크랭크인이 된 상태에서 현장 제작부가 필요했던 거예요. 마침 제대를 하고 고향 집에서 쉬고 있으니 선배가 제작부를 해보겠냐는 연락을 주신 거죠. 당시 다음 연도에 영화과에 복학할 예정이긴 했지만, 상업영화 현장을 한번 경험하는 좋은 기회인 것 같다 싶어서 갔는데, 석 달 일하고 나니 60만 원 주시더라고요. 잠을 안 재우면서 (웃음). 다행히 군 제대 직후라 체력이 좋아 살아남았던 것 같은데, 그때만 하더라도 열악한 환경이었던 것 같아요. 우연히 제작부로 일을 시작하다 보니 그다음 작품에서도 계속 제작부로 찾아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인연이 되어서 김기덕 감독님의 <해안선> 제작부를 여름 방학 동안 참여하게 되고, <어깨동무>라는 영화까지 졸업 전 제작부 크레딧만 세 개가 쌓이게 된 거죠. 졸업 이후에는 제작부장을 했던 영화가 엎어지는 바람에 그때 생각을 고쳐먹었던 것 같아요. 원래 꿈은 감독이었으니까요. 제작부를 통해 PD가 되고 감독을

할 기회가 올 수도 있지만, 원래 하고 싶었던 연출부를 해야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연출부 조감독을 하게 됐고요.

주성철 그런데 말씀하신 세 편의 작품 있잖아요. 제가 촬영 현장 취재를 다 갔네요. (웃음)

남동협 진짜요? 저희가 한 공간에 있었던 걸 오늘 알게 된 거네요. (웃음)

이화정 감독님 말씀하신 것처럼 남동협 감독님이 활동을 시작한 90년대 후반, 2000년대로 넘어가면서 워낙 많은 작품이 제작되던 시기였기 때문에 현장에서 제작부나 연출부로 경험을 쌓는 수순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언젠가 올 감독 데뷔의 순간을 꿈꾸고 준비하는 것 같은데요. 임순례 감독님은 첫 작품을 스크립터로 참여하신 이후 어떻게 보면 그 현장을 빠져나왔다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당시 연출을 꿈꾸던 여성 영화인에게 주어지는 롤이 스크립터 말고는 없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때의 경험이 지금 돌이켜보면 어떠셨는지, 왜 그런 결정을 하셨는지, 그 현장을 끊고 직접 연출을 하기 위해 나왔을 때 두려움도 있지 않으셨을까 싶은데요.

임순례 건방진 얘기지만 스크립터를 통해 한 작품의 프로세스는 다 배웠고, 제 영화를 만들어야겠다 생각했는데요. <우중산책>을 통해 감독이 될 재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고, 당시 서울단편영화제가 생기지 않았다면 데뷔하는 데 상당히 곤란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감독이 되기까지 시간이 더 많이 들었을 것 같고요. <우중산책>의 수상 이후 제작자들과 프로듀서가 찾아와 같이 작업하자는 제안을 많이 받았어요. "시나리오 있으면 가져오세요" 하길래 <세 친구>의 시나리오를 써 갔더니 상업성이 없다며 등을 돌리더라고요. 그래서 고민하다 당시 서울단편영화제를 주최한 삼성영상사업단의 기획자를 찾아가서 "모든 공모전에 1회 수상자가 잘되어야 그 행사가 잘된다" 했어요.

이화정 협박을 하셨군요. (웃음)

임순례 "삼성은 원래 돈이 많으니, 제작비를 대줬으면 좋겠다" 했더니 "얼마가 필요해, 얼마면 돼" 그러더라고요. (좌중 웃음) <세 친구>의 소재도 그렇고 저예산으로 만들려고 생각했기 때문에, 계산해 보니 그때 돈으로 "4억 3천 정도가 들 것 같습니다" 했더니 그 돈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전체 예산까지 총괄하는 제작자 PD 역할까지 하게 된 거죠. 이건 정말 자랑인데(웃음), 당시 예산대로 딱 맞춰서 남은 200만 원으로 회식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화정 감독님께는 항상 주목할 만한 여성 감독이라는 수식어가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나를 이렇게 수식할까, 나를 그런 수식의 틀에 가두는 게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지는 않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임순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 이후 데뷔한 정재은 감독, 이정현 감독 모두 여성이 주인공인 여성주의적 시점의 영화를 만들었죠. 그런데 저는 <세 친구> <와이키키 브라더스> 모두 남자가 주인공이었단 말이에요. 한국에 손꼽는 여성 감독이 많지 않으니, 저에게 여성주의적 영화를 만들기를 기대하는 시선이 당연히 있었겠죠. 그래서 몇 여성 비평가들은 왜 굳이 남자의 이야기를 쓰냐며 저를 비판하기도 했죠.

이화정 기회를 가져갔는데, 왜 여성의 이야기를 하지 않느냐.

임순례 다 그런 건 아니었지만, 일부 그런 비평이 있었던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여성주의에 관심이 없다기보다 영화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한국 사회의 이면이랄까, 한국 사회의 리얼리즘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거든요. 유학을 마치고 돌아오니 객관적인 시선으로 한국 사회를 바라보게 되고, 그 과정에서 '한국 사회가 폭력적이고 다양성이 결여된 사회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 문제가 어디서부터 기인된 것인지 고민했을 때 군대 문화라고 본 거죠. 그래서 학교 폭력, 군대 폭력이 한국 사회에 앗아가는 다양성의 문제를 얘기하고 싶었어요. <와이키키 브라더스>도 어린시절 순수한 꿈을 가졌던 사람들이 세파에 휩쓸려 꿈을 잃어버리는 이야기인데요. 야간 업소에서 일하는 삼류 밴드라는 캐릭터가 물론 여성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의 캐릭터를 구축하다 보니 그게 남성이 된 거죠. 이후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이라는 영화를 만들면서 그런 이야기들은 불식됐지만 그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받아왔어요. '왜 너는 여성인데 여성을 주인공으로 한 영화를 만들지 않느냐?' 했을 때 곰곰이 곱씹어 보니 상업적으로 자유로운 독립 영화를 만들 때는 여성을 쓰는 것 같아요.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상업 영화의 경우는 20년 전엔 남성들이 아무래도 그 사회를 표출하거나 대표하는 직업군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결정을 했던 것 같다고 제 스스로 분석을 한 적은 있어요.

이화정 현실적으로 더 많은 관객과 만날 수 있었겠죠.

주성철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 얘기를 하셨으니까요. 그 작품은 흥행도 잘 됐고 의미도 컸고요. 지금도 올림픽 때만 되면 '우생순의 영광'이란 표현을 고유명사처럼 쓸 정도로 우리에게 너무 익숙해졌잖아요. 이 작품을 보고 반가웠던 지점은 '아줌마'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등장한다는 거였어요. 이를테면 박찬욱 감독님이 <아가씨>라 제목을 지은 이유도 우리 사회에서 '아가씨'라는 고운 단어를 하대하고, 더럽힌 느낌이 있었잖아요. 오히려 이 단어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그 의미를 격상시키려는 미학적 의도가 분명히 있었다는 얘기하셨어요 . '아줌마'라는 단어도 이기적이고 무례한 중년 여성을 지칭할 때 쓰는 말이었다면,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에서는 여자 핸드볼 대표팀의 건강한 생명력과 맞물리면서 이 어감을 잘 살려냈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 영화의 의미가 더 확장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감독님께 '아줌마'라는 단어의 쓰임새를 어떻게 고민하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임순례 초기 작품인 <세 친구> <와이키키 브라더스> <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 >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영화적

으로 '사회의 마이너리티에 속한 군상'에 대한 주제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왔는데요. 핸드볼이라는 장르도 여전히 비인기 종목이고, 그중에서도 결혼한 여자 선수들이 아웃사이드로 밀려나고, 이런 측면에서 관심을 가지게 된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아줌마'라는 게 비하적인 의미보다 '생활력 만렙'이라고 해야 하나. (웃음) 굉장히 건강한 생명력과 생활력이 어떻게 운동에서 적용되는가에 포커스를 맞췄던 것 같아요.

이화정 자본이 많이 들어가는 영화에서 마이너한 캐릭터들이 관객들과 만나고 반응이 좋았다는 영화들은 어떻게 보면 결과론적인 얘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처음 기획하고 투자를 받기까지 쉽지 않은 이야기였을 거란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 같은 경우도 2008년 1월 비수기에 개봉한 영화인데 400만이 넘었어요. 당시 이런 캐릭터나 서사로 대중들에게 다가갈 수 없다고 생각하던 시절에 기획이 되었다는 것이 중요한 지점인 것 같고요. 남동협 감독님도 이 부분에 공감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데뷔작 <핸섬가이즈>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마이너한 인물들의 이야기인 거잖아요. 40대 독거 총각 같은 (좌중 웃음), 이런 캐릭터로 장르 영화 안에서 대중에게 어필하려면 연출자로서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그 과정 안에서 만류를 받거나 안 된다고 하는 분들도 많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남동협 네, 일단 어디서부터 이야기해야 할지 좀 정리를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웃음) 임순례 감독님이 데뷔하셨을 때가 서른여섯 정도, 제가 올해 마흔일곱이니까. 그런데 제가 막 현장에 들어갔을 때는 20대 후반, 30대 초반에는 데뷔하는 게 일반적 트렌드였어요. '늦어도 30대 중반 이전에 데뷔해야 한다'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저도 이렇게 오래 걸릴 줄은 몰랐는데요. (웃음) 오히려 지금은 임순례 감독님 세대, 더 나아가서 아버지 세대들은 더 젊게 세상을 사는 시대가 됐잖아요. 제가 <천사몽>을 찍을 때 월 20만 원을 받았다면 지금은 표준 근로 계약처럼 환경이 많이 개선되기도 했고요. 연출부 조감독으로만 살아도 꾸준히 본인 생활을 유지하는 게 지장 없는 세대가 되었기 때문에 굳이 서둘러 감독을 할 필요가 없는 시대가 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잠깐 이게 논지를 벗어난 이야긴 가요?

주성철 다시 질문드리면 굉장히 긴 시간을 들여 <핸섬가이즈>로 데뷔하셨는데요. 사실 <핸섬가이즈>같은 경우 <13일의 금요일> <나는 네가 지난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 같은 전형적인 할리우드 틴 슬래셔(Teem slasher) 장르를 한국화시킨 건데, 그 주인공의 연령대부터 높여버린 거죠. 그 장르 자체가 익스플로이테이션(Exploitation) 영화, 즉 여성 성 착취가 일상화된 장르이기도 하잖아요. 이 작품을 벡델데이 기준으로 비추어 보자면, 기획 단계에서 성인지 감수성 등에 대한 고민이 상당히 컸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떠신까요?

남동협 일단 <핸섬가이즈>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터커 & 데일 Vs 이블>이란 원작이 있는 영화고요. '하이브미디어코프'란 제작사에서 리메이크 제안을 주셨는데요. 소위 병맛, B급의 코미디 영화다 보니 한국에서 되겠냐는 의심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기획 단계부터 반신반의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영화

가 만들어질 수 있었던 큰 이유는 대중의 신뢰가 깔린 제작사에서 이 프로젝트에 대한 가능성을 판단해 주신 덕인 것 같아요. 편집장님의 질문에 답을 드리자면 초고는 원작의 B급 정서가 더 짙었는데, 센 수위의 표현이나 대사들을 기획팀이나 여러 사람의 의견을 통해 정제하는 작업을 반복했어요. 어떻게든 데뷔하기 위해 지적 사항이 있다면 최대한 고치려고 애썼습니다. (웃음)

이화정 흔히 볼 수 없는 캐릭터와 서사를 만들고, 장르가 기대하는 수위를 깎아낸 것이기도 한 것이잖아요. 절대 전제는 상업영화 감독으로서 '흥행하거나 필적할 만한 결과치를 내야 한다'는 부담감이 분명 존재했을 것 같고요. 임순례 감독님께서도 그런 압박을 받으시는지, 혹시 여성 감독으로서 결과치가 낮다는 인식에 대한 공격이나 피드백을 받기도 하셨나요.

임순례 제가 <교섭>을 하기 전까지, 상업 영화라고 하지만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도 제작비가 많이 든 영화는 아니거든요.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과 <제보자>가 30~40억 정도의 규모였고 <리틀 포레스트>는 거의 15억에 만들었고요. 상업영화라고 하지만 예산이 많은 게 아니었는데, 이제 <교섭> 같은 경우 한 150억이 됐거든요. 그래서 기사화가 된 게 '여성 감독 최초에 100억대' 이런 거였어요. 사실 <교섭>의 소재가 상업적이고 장르적인 영화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BEP(손익분기점)가 맞을 수 있을까?' 싶었고, 현빈이 탈레반과 총질하는 저돌적인 액션도 아니었고 저조차 긴가민가하던 찰나, 코로나라는 여러 상황과 장르화에 적합하지 않은 내용까지 겹쳐서 망했죠. 그래서 부담은 됐어요. 제 개인적인 부담보다 성공하지 못하면 제작사와 투자자들에게 미안한 부분도 있고, 큰 예산의 영화가 여성 감독들에게도 돌아가는 기회를 선점하긴 했지만, 코로나의 영향만으로 해명하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그래도 제가 못했다고 해서 다른 여성 감독에게 제안이 가지 않는 건 아니니까요. 덧붙여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을 명필름에서 제작했는데 사실 40억이 다 투자가 안됐어요. 2007년 당시의 통설이 '스포츠 영화는 안된다. 여자가 단체로 나오는 영화는 안된다' 였어요. 제 전작들도 대중적으로 흥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요소들을 돌파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투자가 다 안 된 상태에서 제작사의 고집으로 밀고 나갔는데, 배급 시사를 보고 나머지 부분이 투자됐을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아까 남동협 감독님이 지금 마흔일곱에 28년을 더하면 일흔다섯, 이렇게 고민하시는 것 같은데요. 너무 걱정할 필요 없으신 게 정지영 감독님은 이미 그 나이를 넘기셨어요. 그때까지 열심히 하시면 되고요. (웃음) 본의 아니게 제가 여성 감독으로서 두 가지의 기록을 가지고 있었어요. 활동하고 있는 여성 감독 중 데뷔 연차가 제일 길고,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이 여성 감독 최다 관객 동원 기록이었는데, 너무 기쁘게도 이게 얼마 전에 깨졌어요. 김한결 감독의 <파일럿>으로요. 근데 여성 감독 최다 연출은 아마 못 깨지 않을까. (웃음) 이미례 감독님이 80년대 당시 6편이었는데 제가 장편을 기준으로 하면 9편 정도 되거든요. 최근 OTT나 드라마로 감독들이 많이 가기도 하니까요. 그런데 제가 또 그 기록을 지키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웃음)

주성철 통설과 기록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작년 영화진흥위원회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30억 이상, 100억대 이상의 영화를 연출한 한국 영화계 유일한 여성 감독이기도 하시죠. 비단 한국 영화계뿐 아니라 할리

우드도 마찬가지인 것이 2010년 <허트 로커> 캐서린 비글로우 감독이 아카데미 시상식 감독상을 여성 최초로 받았거든요. 어느 영화계나 여성 감독이 큰 프로젝트를 맡기에 부족하다는 통설이 있다 보니 거기에 대해서도 하실 말씀이 있을까요?

임순례 큰 프로젝트의 소재가 보통 전쟁이나 과한 액션이 많죠. 과거에는 여성이 지닌 정서나 기술적 표현 등의 한계가 있다고 봤고요. 그런데 시대가 바뀌면서 그런 부분들이 완화될 수 있는 지점이 온 것 같아요. 지금은 여자 친구들도 어렸을 때부터 게임이나 가상현실에 관심을 가지기도 하고요. 예전에는 남자는 축구, 여자는 피구하라는 식이었지만 요즘엔 같이 축구를 하기도 하고, 자라는 과정부터 차별이 줄고 관심 분야도 점점 비슷해지고 있어요. 해외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기준으로 1990년대와 2000년대에는 감독의 역량이 중요했잖아요. 창작적 부분뿐만 아니라 현장을 이끌어가는 능력도요. 변영주 감독은 "언니나 나 같은 등치가 활약하던 시대는 이제 끝났다. 우리 이후 나오는 여성 감독들은 벌써 인종이 달라졌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이제는 각 분야 전문가가 포진해 있고 감독의 창작적 능력이 더 중요한 시기가 됐죠. 스릴러나 코미디 장르가 여성 감독에게 배제되던 시절과 달리, 오늘날 <파일럿> <시민덕희>처럼 여성 감독에게 주어지는 상업영화의 장르도 상당히 다각화된 것 같고요. OTT가 유입되면서 문호가 더 개방된 것 같긴 하지만, 고민인 지점은 영화 산업이 쇠퇴해 가는 와중이라는 거예요. 독립영화와 예술영화를 공부하는 재능 있는 여성 감독들이 많은데, 산업으로 흡수되는 과정에서 여전히 장벽이 남아있고요. 힘들게 산업 구조 안에 들어왔다 해도 여전히 다층적인 제한을 느낄 수도 있죠.

이화정 남동협 감독님은 데뷔 이전에 이런 상황을 다른 포지션에서 지켜보셨을 거란 생각이 드는데요. 영화감독 데뷔에 있어 여성과 남성의 기회 차이나 평등하지 않은 상황을 현장에서 체감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남동협 요즘 그 갭이 많이 줄었다는 느낌입니다. 올해 <그녀가 죽었다> 김세휘 감독님, <시민덕희> 박영주 감독님, <파일럿> 김한결 감독님까지 이 정도로 젊은 여성 감독이 활약했던 적이 있나 싶을 정도입니다. 제가 처음 연출부 조감독 할 때에 비하면 그 간극이 많이 준 것 같아요. 임순례 감독님과 같이 독립영화를 잘 만들어 데뷔하는 케이스도 있고, 편집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도제 시스템을 통해 데뷔하는 케이스 크게 두 방식인 것 같은데요. 도제 시스템에서 여자 스태프로서 감독이 되는 게 힘들었던 이유는 절대 수가 적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2000년대 초 '영화를 만드는 일은 힘쓰는 일이고 체력이 좋아야 한다'는 인식으로 마치 군대 같은 분위기가 있었어요. 당시 기득권이라 할 수 있는 제작자, PD, 감독님이 대부분 남자였고, 남자가 또 남자를 뽑게 되는 과거 여타 대한민국 사회의 조직들과 다르지 않았어요. 영화판도 그런 패턴으로 여자 스태프들이 기회를 얻기가 어려운 시대였던 것 같은데, 점점 나아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확실히 편견과 선입견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모습도 보이고요. 제가 조감독을 했던 <머니백>의 연출부를 담당하던 동생이 있는데 최근 <백수아파트>라는 영화로 데뷔했는데, 여자 연출부 조감독이 데뷔하는 케이스라 저도 반갑더라고요.

임순례 우리가 흔히 영화 산업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영화는 인적 네트워크가 상당히 중요한 분야예요. 감독 지망생인 사람이 내가 쓴 시나리오가 있다면 제작자에게 보여줘야 하는데, 아는 제작자가 있다면 훨씬 유리하잖아요. 반대로 제작자나 PD에게 제안을 받는 경우도 네트워크가 넓으면 기회가 많아지고요. 특히 요즘 투자를 결정할 때 시나리오가 좋아도, 배우가 결정된 작품이라면 유리해지기도 해요. 배우와의 친분도 감독들에게 중요한 자산이기도 하고요. 옛날에는 남성 중심으로 골프나 야구, 포커 게임 혹은 룸살롱 같은 곳에서 밀담을 통해 무언가 이루어 지던 때도 있었죠. 그런 지점에서 여성들이 주목을 받으려면 시나리오도 두세 배 더 좋아야 하고, 강렬한 인상을 심어줘야 했죠. 인적 네트워크가 중요한 산업 분야이니만큼 여성들이 불리한 건 사실입니다.

이화정 임순례 감독님의 궤적과 함께 남동협 감독님이 어떤 경험을 통해 이 자리까지 왔는지 얘기를 들어 봤는데요. 여러분들에게 마이크를 드리고 질문 받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해 주신 분들께는 벡델데이가 만든 임순례 감독 특별 핀 배지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구할 수 없는 한정판입니다. (웃음)

남동협 보너스로 제 사인이 들어간 <핸섬가이즈> 포스터 엽서도 선물로 드립니다. 거의 재고가 바닥 난 수준이라, 남은 것 다 가져왔습니다. 많은 질문 부탁드립니다.

이화정 이것도 다른 극장에서는 구할 수 없는 아이템이라고 하던데요.

주성철 벡델데이인데 벡델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한 영화의 기념 엽서를 드리게 되는 거죠. (좌중 웃음)

이화정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 드릴게요.

관객1 안녕하세요. 두 분 모두에게 질문드립니다. 최근 영상뿐 아니라 다른 창작 분야에서도 모두 상황이 안 좋다고 하는데요. 모든 분야가 다 빠르게 변하고 있고, AI의 등장이 영상 산업에 있어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주성철 영화의 미래에 대한 질문이 아닌가 싶네요.

남동협 네. 제가 한국 영화의 미래를 걱정하기 이전에 제 미래를 더 걱정해야 하는 입장이어서요. (좌중 웃음) 제가 <핸섬가이즈>를 2020년 12월에 촬영을 마쳤고 3년 반이 걸려 겨우 개봉했어요. 다행히 많은 분이 좋아해 주신 덕분에 유의미한 성과를 낸 것 같긴 하지만 요즘 드라마나 영화 여러 영상 매체 분야 모두 어려운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항상 위기는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20여 년 영화 현장 경험을 하는 과정에서 매번 위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결국 여러분을 만족시킬 만한 재기발랄하고 좋은 작품들이 많

이 나와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저는 일단 제 차기작만 고민하고 있습니다. (웃음)

임순례 요즘 드라마를 만들고 있지만, 제가 영화적 행보를 걷는 데 있어 굉장히 운이 좋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한국 영화의 호황기 당시 제가 함께할 수 있었던 건 행운이라 생각해요. 사실 저는 영화 산업에 대해 상당히 비관적이에요. 일시적인 게 아니라 지금의 젊은 세대, 영상을 쉽게 소비하는 시대이잖아요. 오늘처럼 직접 극장에 찾아오는 수고를 감수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영화의 양극화는 점점 심해질 것 같아요. 극장에서만 볼 수 있는 강렬한 시각적 이미지나 사운드의 대작들이 살아남고, OTT 같은 손쉬운 미디어를 통해 영상을 접하는 체제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우리가 그 상황을 저지하거나 속도를 늦추기엔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싶고요. 다만, OTT가 아닌 영화로만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 제작비가 상승을 해서... 불과 2010년대만해도 30~40억 규모로 좋은 영화를 만들 수 있는 시기가 있었어요. 지금은 기본이 100억이 넘는 제작비가 들다 보니 내용적으로 다수의 기호를 맞추고, 스타 위주의 편성으로 집중되는 부분이 안타깝죠. 중간 규모의, 요즘의 화폐 단위로 50억, 70~80억 내외로 관객과 만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한 현황입니다. 한국의 영화 창작자들의 역량과 재능은 준비돼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을 만드는 건 배급사 제작사 또 관객이 함께 움직여야 만들 수 있는 환경이고요. 그것이 만들어진다고 하면 소프트웨어적 역량은 충분하다고 생각해서, 이 비관적인 상황 속 돌파구가 없는 것은 아니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화정 다음 질문 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객2 임순례 감독님께서 영화를 만들 때 인적 네트워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만큼 여자 감독들은 시나리오도 2배 3배 잘 써야 하고, 더 큰 파워를 보여줘야 하는 측면이 있다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감독님께서는 여성 감독들이 남성 감독들보다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그렇다면 어떤 어려움들을 느끼고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임순례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또 세대적인 부분이 그런 것일 수도 있지만 동성 간의 모임이 더 편한 경우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술자리나 운동, 취미 같은 사적인 모임들이죠. 요즘엔 많이들 섞이기도 하고 교류하긴 하지만요. 예를 들어 남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여자들끼리 카페에서 서너 시간 이야기하는 일에 대해 괴리를 느끼는 경우도 있겠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힘을 가진 제작자와 투자자, 스타 등의 비율에 남성의 분포가 많다 보니 그 불균형을 이야기한 표현이었습니다.

이화정 실제로 동성끼리 작업하는 것을 더 선호한다는 한 제작자의 이야기도 기억나는데요. 아마 자연스러운 흐름 안에서 영역이 나누어지는 경우도 있었던 것 같아요. 100%는 아니어도 제작 구조 안에서 남성들의 비율, 절대적인 수치가 높거나 우위에 있다는 거죠.

주성철 첨언하자면 여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걸 부정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밀실의 네트워크를 통해 많은 의사결정이 실제로 이루어져 왔지만, 이제는 투명한 예산 집행과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통해 점점 줄어드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임순례 예를 들어 시나리오를 썼을 때 제작자나 투자자에게 있어서도 재미와 흥미를 느끼는 부분에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영화화를 결정하게 되는 제작사와 투자사에 성비가 골고루 균형 있게 포진된다면 영화의 다양성이 그만큼 확보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화정 영화를 만드는 여러 단계 중 성비가 고정된 영역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굳혀지는 부분들도 있었던 것 같고요. 남동협 감독님의 “점점 현장에서 개선되는 것을 체감하고 있다”는 말씀처럼 변화하는 과정이란 생각이 듭니다. 또 질문받아 볼게요.

관객3 네 안녕하세요. 저 임순례 감독님한테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와이키키 브라더스>를 보고 팬이 된 한 관객이자 영화 공부하는 학생입니다. 감독님께서 꾸준히 아웃사이더를 소재로 많은 영화를 만들고 계시는데 어떻게 그 점에 관심을 가지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임순례 제가 어렸을 때 굉장히 가난한 동네에서 자랐어요. 가족도 그렇지만 주변의 동네도 가난하고, 배우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졌던 것 같고요. 또 불교에도 관심이 있다 보니 잘나고 성공의 범위에 있는 사람들보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다 똑같이 존재로서 가치 있다는 게 제 베이스에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자퇴하고 2년 정도 집에서 논 적이 있어요. 한국 사회에서 대학생도 아닌 고등학교를 자퇴한 여자의 위치에서, 어리고 예민한 시기에 주류 사회에서 이탈한 아웃사이더의 감정들이 많이 축적됐었던 것 같아요.

주성철 임순례 감독님이 고등학교 학창 시절, 감독님이 계신 그 교실에서 어떤 영화를 촬영하게 되면서 그때 영화의 꿈을 꾸셨다는 얘기도 하셨죠.

임순례 네 맞아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여러분들 잘 아시는 임예진이라는 배우 혹시 아세요? 하이틴 영화라고 하죠. 당시 이덕화 씨, 임예진 씨 콤비의 얄개 시리즈가 유명했죠.

이화정 원조 국민 여동생이라고 하시면 알 수도.

임순례 굉장히 유명했죠. <쌍무지개 뜨는 언덕>이라는 영화로 일란성 쌍둥이가 하나는 부잣집에 하나는 가난한 집에 입양 가는 이야기로 임예진 씨가 1인 2역을 하는 영화였어요. 고등학교 2학년 자퇴 전이었죠. 임예진 씨가 제 바로 뒤에 앉아서 3일 동안 수업은 안 하고 영화만 찍는데, 예를 들어 풀샷을 찍으면 우리가

다 엑스트라로 나온 거죠. 그런데 임예진 씨만 단독으로 찍는데도 딴 애들은 다 나가도 저만 남아있으라고 해요. 왜 그러냐 했더니 넌 뒤통수랑 어깨가 걸리니 꼭 남으라 한 거죠. 그때 제가 처음 감독이란 존재를 알게 된 거예요. 나중에 조사해 보니 정회철 감독님이라고 그 작품이 데뷔작이었더라고요. 당시 임예진 씨는 너무 예뻤고 지금의 뉴진스나 수지 같은 지명도가 있으니, 모든 아이들의 관심을 받았죠. 그런데 저는 감독님만 보게 되더라고요. 감독이 저런 일을 하는 거구나. 그 3일 동안 감독님을 주시하고 있었는데 그게 제 무의식에 남아있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감독이란 꿈을 꿀 때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이화정 남동협 감독님도 혹시 그런 데뷔를 결심했던 꿈을 꿨던 순간이 기억나시나요?

남동협 저는 80~90년대의 유년 시절을 보낸 전형적인 할리우드 키드였어요. 어린 시절 '주말의 명화'나 '토요명화'에서 나오는 <슈퍼맨> 같은 영화들을 안 자고 기다렸다가 꼭 시간을 지켜봤고요. 비디오가 나오면서부터는 <구니스> <백 투 더 퓨처> 같은 영화에 열광하며 자랐기 때문에 자연스레 영화를 좋아하게 된 것 같아요. 처음부터 영화감독을 꿈꾸진 않았고, 원래 두 분처럼 영화 잡지 기자가 되고 싶었어요. 당시 유행했던 『로드쇼』, 『스크린』의 할리우드 특파원이 돼서 당대 최고의 여자 배우 맥 라이언을 꼭 만나겠다는 꿈이 있었어요. 그때가 중학생 때쯤인데 지금 생각해보면 중2병이었던 것 같아요. (웃음) 그러다 '감독이 돼서 그녀를 만나면 더 멋있겠다.' 싶어 감독으로써 할리우드 진출을 하겠다는 마음으로 영화감독을 꿈꾸게 됐어요. (좌중 웃음)

이화정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재밌네요. 또 다른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객4 안녕하세요. 저는 연극영화과 학생인데요. 임순례 감독님한테 질문드립니다. 보통 시나리오를 쓰실 때 어디서 영감을 받고. 어떤 점을 고민하고 고려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임순례 <와이키키 브라더스> <세 친구> <소와 함께 여행하는 법> <날아라 펭귄> 같은 저예산 영화는 제가 시나리오를 썼는데, 소위 상업영화의 예산이 들어가는 작품들은 제가 시나리오를 안 썼어요. 그 이유는 제가 쓰면 너무 재미가 없어요. 자꾸 어두운 이야기를 하려니 대중영화가 요구하는 캐릭터들과 상황이 펼쳐지는 게 아니라, <와이키키 브라더스> 같은 대본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 이후부터 좋은 작가들과 하는 게 스스로 낫겠다고 생각했어요. 작가들과 작업하면서 제 의견을 얘기하고 수정작업을 많이 하는 편이긴 합니다. 제가 한국 사회의 구조 자체에 관심이 많아요. 제가 데뷔한 1990년대부터 지금의 2000년대까지 한국 사람들이 어떤 모습, 생각, 정서를 가지고 사는가에 대해 관심이 많아서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사건 중 의미가 있거나 메시지가 있는 사건들에 관심을 많이 가지는 편이에요. 그래서 시사 프로나 사회면을 다룬 뉴스 등을 참고하는 편입니다.

이화정 마지막 질문을 받아보도록 할까요?

관객5 안녕하세요. 질문할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까 "위기가 있지만 돌파할 수 있다" 말씀해 주셨어요. 위기를 돌파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꼭 그렇지 못하더라도 이 위기 안에서 영화를 꿈꾸고, 잘 만들기 위해 필요한 덕목 중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라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남동협 '중꺽마(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포기하지 않는 마음.

이화정 그렇게 해오신 거죠? 지금.

남동협 어떤 의미로 여쭤보신 건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우선 영화감독을 꿈꾸시는 분인가요? 혹은 한국 영화제를 걱정하는 일반인은 아니지요.

이화정 네, 연출 꿈꾸신대요.

남동협 꿈꾸시는구나. 그럼 걱정될 만하죠. 이해합니다. 감독을 꿈꾸는 입장이라면 이전보다 상업영화 감독이 되는 과정의 난이도가 어려워진 것 같은데요. 2020년 초 한창 코로나 시기에 '입봉하기 힘들겠구나' 마음을 내려놨던 순간이 있었는데요. 다행히 또 다른 지지자들을 만나고, 적극적인 지지 덕분에 촬영을 들어갈 수 있게 됐어요. 준비하시는 입장이라면 산업적인 부분에 대해 깊게 고민하시기보다 스스로 영화감독이 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굳은 마음으로 준비하다 보면 조금씩 좋은 상황으로 나아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그동안 제 앞날만 걱정하기에 바빴는데 6월 26일부로 데뷔를 했으니, 임순례 감독님과 함께 한국 영화계에 대해 고민하는 감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웃음)

이화정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에 '한국영화감독조합'에도 가입하셨더라고요.

남동협 조합에 계신 감독님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보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이화정 이 답변이 감독님 스스로에게 하는 말 같기도 해서 짠하기도 했는데요. 임순례 감독님의 말씀도 들어보겠습니다.

임순례 비슷한 이야기인데, 제가 84년도에 감독이 되겠다고 결심했어요. 당시 상황을 보면 지금보다 몇 배나 더 암울한 상황이었거든요. 이미례 감독님 같은 여성 감독이 많지 않았고요. 영화 산업이 지금처럼 활발하지 않았던 상황에도 감독이 되겠다는 결심에서 중요했던 건 '영화를 하고 싶은 내 마음이 얼마나 굳건한지' 자신에 대한 신뢰였던 것 같아요. 내가 선택한 길에 대한 책임, 혹여 감독이 되지 못하더라도 10년 혹은 15년간 노력한 시간이 소중히 남을 수 있을 거란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박찬욱 봉준호 정도의 웬만한 감독들 외에는 비정규 프리랜서직, 언제 해고될지 모르는, 데뷔를 했거나 성공작을 만

들었다 해도 다시 기회가 돌아오지 않는 상황이 계속되기도 하거든요. 그걸 견디기 위해서는 내가 얼마나 영화를 만들고 싶은지, 그동안 삶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는 무엇인지 고민이 필요해요.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이라고 하죠. 내 모든 재원, 시간과 열정을 영화에만 쏟을 순 없으니까요. 나머지 삶을 구성하는 부분과 어떻게 균형을 맞출 수 있을지 자신 있다면, 자신을 믿고 한번 도전해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화정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객 여러분의 질문을 듣다 보니 '영화가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여전히 꿈꾸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두 감독님께서 해주신 말씀들이 작품을 하는 데 도움이 돼서 나중에 이 자리에 또 나오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주성철 오늘 운이라는 단어도 쓰셨지만 말미에는 도전이라는 말씀도 해주셨어요. 저는 오늘 처음 알게되었는데 <우중산책>이라는 단편이 영화제 출품을 위한 것이 아닌 영화감독의 꿈을 이루기 위한 도전이었다는 사실이 인상적이었어요. 이후 수상한 영화제의 기획자를 찾아가, 영화제의 위상을 높이려면 필요하다 제안하며 직접 투자를 받으신 것도 놀라운 부분이었고요. 결국 위기 속에서도 그 길을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선택을 해오셨던 점이 오늘 참 인상 깊었습니다.

이화정 앞으로 여성 감독이란 수식이 남아있는 한 임순례 감독님이 걸어 오신 길은 유일무이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도 그 기록이 깨지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걸어오신 그 길이 있기에 남성 여성 모든 사람을 통틀어 또 다른 꿈을 꿀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한 시간 반 정도 남짓한 이 조명의 시간이 여러분에게 의미 깊게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기꺼이 함께해 주신 남동협 감독님께도 감사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시려면 임순례 감독님보다 더 많이 영화를 만들 생각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웃음)

남동협 일단 최선을 다해서 건강하게 오래 살아보겠습니다.

이화정 오늘 어떠셨어요?

남동협 6월 개봉 이후 한창은 감독으로서 무대인사도 다니다가 최근 한 달은 또다시 일반인의 삶으로 돌아온 느낌이었는데요. 임순례 감독님 덕분에 다시 감독으로 돌아와 이야기 나눌 수 있었네요. 뒤로 갈수록 말이 풀리고 있었는데 끝나는 것 같아 아쉽긴 하지만 배가 고프니까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중 웃음). 불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화정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순례 감독님의 28주년을 함께 하는 자리를 마련했는데 흔쾌히 자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관객분들과 만난 토크의 소감을 들어봐야 할 것 같아요.

임순례 제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젊은 분들이 많으셔서, 인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주말 오후 귀중한 시간이잖아요. 이렇게 시간을 내어 오신 만큼 영양가 있는 이야기를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영화를 하겠다고 다짐했을 때도, 감독이 되어서도 앞만 보고 달렸던 것 같은데요. 어느덧 이렇게 뒤를 돌아보니 저보다 훨씬 영화도 잘 만들고 재능이 뛰어난 친구들이 많이 있어서 제 지나간 28년의 시간 속에 그만한 환경이 조성됐다는 것이 굉장히 기쁩니다.

이화정 감독님이 준비하고 있는 작품 <노무사 노무진>은 언제 볼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임순례 제가 영화를 할 때만 해도 드라마를 만들 줄은 상상도 못 했는데요. <노무사 노무진>이란 작품을 OTT로 기획하다가 MBC와 연결이 돼서 준비 중이고 내년 5월에 방영 예정입니다. 10부작인데 추석 지나면 바로 촬영이 시작됩니다. 나중에 많이 봐주십시오.

이화정 그때 본방 사수해 주시고 오늘의 이야기 기억하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미리 드리면서, 오늘 스페셜 토크로 마련한 2부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 2부 다 봐주신 분들 정말 대단하십니다. 내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평등한 영화세상! 벡델데이2024에서 만나는 임순례 28년, 여성감독 뉴웨이브



〈리틀 포레스트〉 촬영현장의 임순례 감독

영화와 시리즈를 보는 균형 잡힌 눈! 해마다 양성평등주간에 맞춰 열리는(올해는 9월 1일부터 7일까지) 색다른 영상매체 관람의 기준을 제시하는 행사로, 한국영화감독조합(DGK)에서 주최·주관하는 '벡델데이'는 2020년부터 시작되어 올해로 5회째를 맞는다. 올해는 '벡델 초이스'와 '벡델리안'에 대한 발표 및 시상과 더불어, 9월 7일(토) 서울 홍대입구역 인근의 인디스페이스에서 여러 감독과 작가, 그리고 평론가와 함께 하는 다양한 토크 프로그램이 관객과 만날 준비를 마쳤다. 먼저 오후 3시 '토크 1. 벡델리안과의 만남'에서는 올해의 영화 부문 감독상 <비밀의 언덕>의 이지은 감독, 작가상 <교토에서 온 편지>의 김민주 감독, 시리즈 부문 감독상 전고운·임대형 감독, 작가상 <졸업>의 박경화 작가, 제작자상 <힘쎈여자 강남순>의 백미경 제작자와 함께 성평등 콘텐츠의 변화를 함께 논의한다. 진행은 봉태규 배우와 이화정 벡델데이 2024 프로그래머가 맡는다. 이후 오후 6시부터 이어지는 '토크 2. 임순례 28년, 여성감독 뉴웨이브' 섹션에서는 꾸준히 새로운 길을 만들어 나가는 임순례 감독의 창작 세계를 돌아보고 그 의미를 되짚어 본다. 패널로는 임순례 감독과 <핸섬가이즈>의 남동협 감독이 참석하며, 진행은 주성철 씨네플레이 편집장과 이화정 벡델데이2024 프로그래머가 맡는다. 본 행사는 무료이며 각 회차별로 벡델데이2024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사전 신청 마감은 9월 6일(금) 오후 5시지만, 사전 신청 취소 및 잔여 좌석에 한하여 현장 신청도 가능하니, 이번 주 토요일 인디스페이스를 찾아주시길!

임순례 감독과의 만남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의 꾸준한 활동과 작품세계도 중요하지만, 여전히 '한국영화계의 여성감독'이라는 자리를 이야기할 때, 후배 여성감독들에게 어떤 선명한 좌표나 상징처럼 존재하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영화진흥위원회가 '세계 여성의 날'(매년 3월 8일)을 맞아 발표한 '2023년 한국 영화 성인지 결산'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개봉한 제작비 30억 원 이상 상업영화 35편 중 여성 감독이 연출한 영화는 임순례 감독의 <교섭> 단 1편뿐이다. 지난해 극장 개봉한 전체 한국영화 183편을 대상으로 하면 여성 감독의 숫자가 49명(22.8%)이지만, 순제작비 30억 원 이상 상업영화 35편에 한정하자면 오직 임순례 감독의 이름만 확인할 수 있는 것. 게다가 지난해 공개된 OTT 오리지널 영화 7편에도 여성감독의 이름은 찾아볼 수 없었다. 그처럼 여성감독에게 있어 독립영화가 아닌 이른바 상업영화로의 진입장벽은 여전히 견고하고 변화의 길은 요원하다. 한편, <교섭>을 통해 임순례 감독은 국내 여성 감독으로는 처음으로 제작비 100억대가 넘는 액션 블록버스터 작품을 연출한 기록을 남겼다. 한국영화의 성평등을 이야기하기 위해 벡델데이 2024가 그에게 만남을 청한 이유는 분명하다. 그렇게 임순례 감독의 지난 길을 되돌아보고 싶었다.



〈미망인〉과 박남옥 감독

우리나라 최초의 영화 <의리적 구토>가 1919년 선보인 이후,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감독으로 기록된 이는 바로 <미망인>(1955)을 만든 박남옥이다. 안석영 감독의 <심청>(1937)의 주인공인 김신재 배우와 녹음 조수로 참여한 최인규 감독을 만나 편집과 스크립터 일로 영화를 시작했다. 드디어 1955년, 언니와 함께 '자매 프로덕션'이라는 제작사를 차린 그는 뭇 남성들의 온갖 유혹 속에서도 오직 어린 딸 하나만을 키우며 세상의 풍파를 헤쳐 나간다는 내용의 <미망인>을 연출하게 된다. 박남옥 감독은 제작비를 아끼기 위해 촬영 현장에서 스태프들을 위해 직접 밥을 하고, 갓 태어난 아이를 봐줄 사람이 없어서 아이를 업은 채 전국을 다니며 촬영했다고 한다. 이후 <여판사>(1962)를 연출한 홍은원 감독, 신상옥 감독의 아

내이자 당대 최고의 배우였던 최은희 감독도 <민며느리>(1965), <공주님의 짝사랑>(1967), <총각선생>(1972)을 만들었다. 이후 오래도록 여성감독의 역사는 끊긴 것이나 다름없다가 이미례 감독이 <수렁에서 건진 내 딸>(1984), <물망초>(1987), <영심이>(1990) 등 6편의 장편을 만들며 황량한 한국영화의 1980년대를 새로이 기억하게 해주었다. 이후 1990년대 들어 다큐멘터리 <낮은 목소리>(1995)의 변영주 감독, <세 친구>(1996)의 임순례 감독이 거의 동시에 등장하며 '여성감독 뉴웨이브'라 불러도 될 정도로 현재와의 접점을 만들어냈다.

임순례 감독이 데뷔하던 1990년대 초는 한국영화계에서 여성이 감독을 꿈꾼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시대였다. 임순례 감독 역시 처음엔 영화 연출의 꿈을 접고 영문학과에 들어갔지만, 대학 시절 프랑스문화원을 통해 색다른 영화들을 접하면서 영화에 대한 꿈을 키워갔다. 이후 프랑스 유학을 다녀온 뒤 여균동 감독 <세상 밖으로>(1994)에 조감독으로 참여하고, 데뷔 단편 <우중산책>(1994)을 만들면서 충무로에 입성하게 된다. 동시상영을 하는 변두리의 작은 극장에 근무하는 매표직원 여성의 이야기를 담은 <우중산책>은 제1회 서울단편영화제에서 최우수작품상을 수상했고, 대기업 자본이 충무로에 유입되기 시작하던 즈음이라 이른바 충무로 도제 시스템을 거치지 않고 빠르게 장편 연출의 기회를 얻었다. 그렇게 완성된 장편 데뷔작 <세 친구>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진학을 하지 못한 세 남자 무소속(현성), 삼겹(이장원), 섬세(정희석)라는 세 친구의 이야기로, 당시 붐을 일으켰던 청춘영화의 공식을 완전히 무너트리며 제1회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아시아영화진흥기구상인 넷팩상을 수상했고, 임순례라는 이름을 한국영화계에 본격적으로 알리게 된다.



〈우중산책〉과 〈세 친구〉



〈와이키키 브라더스〉

<와이키키 브라더스>(2001)

1990년대가 되고 대기업 자본이 유입되어 한국의 상업영화와 활성화되면서도 정작 여성감독이 만든 영화가 없었던 때, <와이키키 브라더스>가 개봉한 2001년을 기점으로 다른 여성감독들도 여럿 등장하기 시작한다. 같은 해 개봉한 <고양이를 부탁해>의 정재은 감독을 비롯해 첫 장편 극영화 <밀애>(2002)를 연출한 변영주 감독과 <집으로...>(2002)의 이정향 감독, 그리고 <질투는 나의 힘>(2003)의 박찬옥 감독까지 여성감독들이 활발히 활동하기 시작했다. 그중 <와이키키 브라더스>는 남성 4인조 밴드인 와이키키 브라더스가 팀의 리더인 성우(이얼)의 고향인 충주 수안보로 가게 되면서 겪는 일을 다루고 있는데, 청년 시절의 꿈이 이제는 고단한 현실이 되어버린 서글픔과 쓸쓸함을 담담하게 그린다. 전작 <세 친구>에 이어 '여성 감독의 여성 주인공 영화'가 아니라 여러 명의 남성 주인공을 연달아 등장시켰다는 점이 주목할 만한 지점이다.

"넌 하고 싶은 거 하며 살아 행복하니?"라고 묻는 장면이 있다. 어렸을 때부터 음악을 하고 싶었던 주인공 성우가 고향으로 돌아가 친구를 만났을 때, 그 친구는 성우에게 그렇게 묻는다. 하지만 성우는 끝까지 아무 대답도 하지 않는다. 긍정하건 부정하건 간에 현재의 고단한 삶에서 그 어떤 작은 행복도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처럼 <와이키키 브라더스>는 따뜻한 시선으로 관객 모두 자기 삶을 되돌아보게 만드는 힘이 있다. 이 영화를 통해 얼굴을 알린 많은 배우들이 20년도 더 지나 현재 멋진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점도, 뒤늦게 <와이키키 브라더스>를 보게 되는 이들의 큰 감동이기도 하다. 먼저 자신이 몸담았던 극단 학전의 지방 공연 중 오디션 합격 소식을 들은 황정민 배우는, 앞서 여러 영화에 단역으로 출연한 바 있지만 이른바 '주요 역할'로 <와이키키 브라더스>를 통해 실질적인 데뷔를 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듬해인 2002년, 김인식 감독의 <로드무비>에 출연하면서 그는 청룡영화상 신인남자배우상을 수상하며 단숨에 한국영화계의 주목을 받게 된다. 박해일도 빼놓을 수 없다. 수안보로 간 성우가 고향 친구들을 만나고 과거 회상 장면이 등장할 때, 고등학교 밴드부인 성우의 어린 시절 역할로 박해일

배우가 등장한다. 바로 그의 데뷔작이기도 한데, 고등학교 시절 실제로 아마추어 밴드 경험을 한 적 있는 그는 연주 장면들을 실제로 직접 해냈다. 이듬해인 2003년에는 무려 <질투는 나의 힘>과 <국화꽃 향기> <살인의 추억> 모두 개봉하며 박해일은 당시 가장 '핫한' 배우가 됐다.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2008)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

청룡영화상 최우수작품상을 수상한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이하 <우생순>)은 '우생순'이라는 친근한 약칭으로 한국 스포츠 영화를 대표하는 작품이 됐다. 대한민국 올림픽 2연패의 주역인 최고의 핸드볼 선수 미숙(문소리)은 소속팀이 해체되자, 인생의 전부였던 핸드볼을 접고 생계를 위해 대형 마트에서 일하게 된다. 이때 일본 프로팀의 감독으로 활약하고 있던 혜경(김정은)이 한국 국가대표팀의 감독대행으로 귀국한다. 팀의 전력을 보강하기 위해 혜경은 자신의 오랜 동료이자 라이벌인 미숙을 비롯해 과거의 영광을 재현할 노장 선수들을 하나씩 불러 모은다. 이후 노장 선수들과 신진 선수들 간의 감정싸움이 생기고 연습 경기에서 졸전을 펼치기도 하는 등 우여곡절 끝에, 2004년 아테네 올림픽으로 향한다.





우리 삶의 고단함을 보여주는 데 있어, 임순례 감독을 따라갈 연출자가 없는 것 같다. <와이키키 브라더스> 초반부에서 쇠락한 온천 호텔을 보여줄 때 감정이입과 더불어 '아,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지?' 문득 깨닫게 된다. <우생순>에서도 2004 핸드볼 큰잔치가 열리고 있는 실내체육관 장면이 오프닝 신인데, 우승팀이 결정된 뒤에도 관중석은 썰렁하고 어울리지 않는 축포가 터진다. 승리한 선수들이 감독을 헹가래치려고 하는데, 심지어 감독이 선수들을 밀쳐내기까지 한다. 이어진 회식 자리에서 감독은 팀 해체 소식을 전한다. 웅성웅성하는 가운데 미숙은 "직원이면 정직원이죠? 계약직 아니고?"라며 해맑게 묻는다. 세계 정상급 선수들이 거둬줄 팀도 없이 실업자로 내몰리는 비인기종목의 설움, 더 나아가 기를 써도 나아지지 않는 우리네 암담한 현실을 직접적으로 보여준다.

스포츠 영화에서 인물들의 정체성은 오직 '선수'여야 한다. 하지만 <우생순>은 선수와 더불어 '아줌마'라는 이름을 적극적으로 끌어온다. 이후 박찬욱 감독의 <아가씨>(2016)가 사회적으로 왜곡되어 불리는 '아가씨'라는 단어의 의미를 미학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제목에 그대로 쓴 것처럼, <우생순>은 스포츠 이전에 '삶'을 견뎌내야 하는 그 아줌마들의 존재를 오롯이 담아낸다. 사회적으로 다소 무례하거나 이기적인 사람들에게 쓰기도 하고, 종종 비아냥대는 의도로도 쓰이는 그 아줌마라는 단어의 생활력을 강조하고 스포츠 영화의 강인한 체력을 덧대 '아줌마도 할 수 있다'가 '아줌마여서 할 수 있다'로 나아간다. 영화에서 그 아줌마들이 성별 갈등도 이겨내고 세대 갈등도 이겨낸다. 그러면서 아줌마를 아저씨에 종속된 존재가 아닌 독립적인 존재로 만든다. 영화에서 결승전을 앞두고 미숙의 남편이 약을 먹어 위독하다는 소식이 전해지지만, 미숙은 남편에게 전화를 걸면서도 경기장으로 향하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는다. "미안한데, 난 포기 안 할 거거든. 당신도 포기하지 마."



〈교섭〉

<교섭>(2023)

분쟁지역 아프가니스탄에서 한국인들이 탈레반에게 납치되는 최악의 피랍사건이 발생한다. 교섭 전문이지만 아프가니스탄은 처음인 외교관 재호(황정민)가 현지로 향하고, 국정원 요원 대식(현빈)을 만난다. 원칙이 뚜렷한 외교관과 현지 사정에 능통한 국정원 요원은 사건을 해결을 위한 입장과 방법이 다르지만, 탈레반이 정한 살해 시한이 다가오고 협상 상대와 조건 등이 시시각각 변하는 상황에서 인질을 살려야 한다는 목표를 향해 함께 나아간다. <교섭>은 지난 2007년 샘물교회 선교단이 아프가니스탄에서 피랍된 실화를 바탕으로 했다. 분당샘물교회 교인들이 정부의 경고를 무시하고 복음을 전파하러 아프가니스탄에 입국했다가 탈레반에게 인질로 붙잡힌 사건인데, 영화는 실제 사건을 명시하지 않았고 당시 제작진은 '등장인물들은 창조했고, 이야기에도 허구를 더했다'고 밝혔다.

임순례 감독의 흥미로운 점은, 실제 사건을 다룬 2편의 영화를 연출한 바 있는데 하나같이 2000년대 이후 사회적으로 논란이 될 만한 사건을 소재로 삼았다는 것이다. 거꾸로 말하면 감독 본인이 얘기하고자 하는 바가 명쾌하다는 것의 반증이기도 하다. 가령 <제보자>(2014)는 2005년 줄기세포 연구로 각광받던 황우석 박사가 줄기세포 논문을 조

작한 것이 밝혀진 실제 사건을 영화화했는데, 지금도 황우석 박사를 지지하는 세력이 크다는 것을 감안하면 당시 영화화 자체가 꽤 용기 있는 일이었다. 영화에서 제보하려는 이장환 박사(이경영) 연구팀의 심민호(유연석)는 윤민철 PD(박해일)에게 "피디님은 진실이 먼저입니까, 공익이 먼저입니까"라고 묻는데, 윤민철 PD는 "진실이 먼저"라고 얘기한다. 진실을 추구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공익에 기여한다는 것이다. 공익 혹은 국익을 다소 해치는 제보일지라도 언론은 끊임없이 '진실'을 추구해야 한다는 선언과도 같았다. <교섭>은 이미 비판받을 만큼 비판받은 집단을 다루면서도 그들을 딱히 드러내지 않는다. 일단 이런 장르영화에서 빠지지 않는 상황의 장면들을 굳이 넣지 않았다. '에구, 왜 저리를 갔어?', '우리 혈세를 저런 사람들을 구한다고 낭비하면 안돼'라는 식으로 광화문 광장이나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TV뉴스를 쳐다보는, 다소 작위적이라고 생각되지만 클리셰처럼 반드시 들어가는 장면 자체가 아예 없다.

<제보자>에서 "진실이 먼저"라는 윤민철 PD의 얘기처럼, "어떤 경우라도 희생자를 안 만드는 게 이 협상의 기조 아닙니까?"라는 재호의 원칙만 서사의 중심에 둔다. 가령 '신은 위대하다'라고 외치는 한 테러리스트로 인해 인파로 가득한 거리에서 폭발사고가 일어난 장면에서, 흙먼지 파편을 뒤집어쓴 재호는 전화를 걸어 "철군 계획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시고 OIC(이슬람협력기구) 측에도 빨리 접촉하십시오"라고 얘기한다. 지금 우리가 협상 기조를 바꾸면 실수를 인정하는 거라는 상관의 얘기에도 그는 "지금 여기 상황을 보시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라며, 단 한 명의 피해도 없이 인질들을 모두 무사히 한국으로 데려가야 한다는 생각밖에 없다. 사후 평가가 어떻든 간에 난 지금 내가 맡은 일을 해야 하는 공무원이다, 라는 그 우직한 모습이 울컥하게 만든다. 어떤 사건이 어떤 과정을 거쳐 발생했느냐에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외교관으로서 '위험에 처한 국민을 구해야 한다'는 당연한 공무원의 윤리가 먼저다. 그것이 바로 영화가 다루고 있는 시기인, 노무현 정부 시절 외교통상부가 추구한 '국격'이었던 것이다.



〈제보자〉

돌이켜 보면, 임순례 감독은 어느덧 20년 전 국가인권위원회의 기념비적인 첫 번째 옴니버스 인권영화 <여섯 개의 시선>(2003)에 정재은, 여균동, 박진표, 박광수, 박찬욱 감독과 함께 참여했다. 이후 여러 명의 감독이 참여하는 옴니버스 형식은 변하지 않았는데, 임순례 감독은 그 관행을 깨고 최초로 한 편의 장편영화로 만들어진 <날아라 펭귄>(2009)의 연출자였다. 남들처럼 해야 하는 것 아닌지 자식의 사교육을 고민하는 학부모, 채식만 하고 술도 못 마셔서 회사 생활이 고달픈 남자 신입사원, 흡연이 들킨 뒤 회사 생활이 불편해진 여성 사원, 늦은 나이에 운전면허를 땄음에도 차를 팔아버린 남편에게 이혼을 선언한 여사님 등 우리 주변의 공감 가득한 인물들을 다채롭게 그려내며, 기존의 무겁고 주제가 도드라지는 형식에서 벗어난 경쾌한 인권영화를 만들어 크게 호평받은 바 있다. 그처럼 사람이 사람으로서 가져야 할 마땅한 권리와 원칙에 대한 이야기, 그것이 바로 임순례 감독이 영화로 걸어온 길이며 우리 사회의 모든 차별을 금지하고 성평등한 영화계를 꿈꾸는 벡델데이 2024에 초대한 이유이기도 할 것이다.


〈날아라 펭귄〉

CINEPLAY

출처 [씨네플레이] 성평등한 영화세상!
벡델데이2024에서 만나는 임순례 28년, 여성감독 뉴웨이브
글 씨네플레이 편집장 주성철


CINEMA

협업

#방구석1열

1) 돌아온 방구석 1열

9월 4일(수) <돌아온 방구석 1열> 벡델데이 2024 특집편으로 '차클 플러스' 유튜브 채널에서 17만회의 조회수(10월 7일 기준)를 기록했으며, JTBC2 종합편성 채널 2회 방영 등을 통해 대중적으로 벡델데이의 인지도를 높일 수 있었다. 영화 부문 벡델초이스 10 선정작 <교토에서 온 편지>의 주연 한선화 배우와 함께 변영주 감독, 봉태규 배우, 주성철 씨네플레이 편집장, 이화정 벡델데이 2024 프로그래머가 출연해 작품에 관한 이야기부터 벡델데이 전반에 대한 소개와 감상까지 전하며 보다 쉽고 대중적인 방식으로 벡델데이를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시네필이라면 주목해야 할 벡델데이 2024✨ 배우 한선화와 보는 영화 〈교토에서 온 편지〉 | 돌아온 방구석1열 EP. 35

차클 플러스
구독자 87.7만명
구독중
4.7천
공유

조회수 173,153회 2024. 9. 4. #방구석1열 #벡델데이 #한국영화감독조합
성평등한 영화·시리즈가 만드는 나은 세상
✨벡델데이 2024 특집✨

팔색조 매력 한선화 배우와
'백델초이스 10' 선정 영화



<돌아온 방구석 1열> 벡델데이 2024 영상 캡쳐



JTBC 유튜브 채널과 방구석 1열 인스타(jtbc_movieroom)의 쇼츠와 릴스

1) 돌아온 방구석 1열







<돌아온 방구석 1열> 촬영현장. 왼쪽부터 주성철 편집장, 변영주감독, 한선화 배우, 이화정 프로그래머, 봉태규 배우

2) 제49회 부산국제영화제

제 29회 부산국제영화제 연계 행사 '영화제 속 관객이 직접 만드는 복합문화축제' 7회 커뮤니티비프와 동네방네 비프 기간 벡델데이 2024 영화 부문 벡델초이스 10 중 3편의 영화를 상영하는 협업을 진행했다. '커뮤니티비프'에서는 '벡델초이스DAY' 섹션에서 <밀수>와 <지옥만세>를 '동네방네비프'에서는 영도구 베리베리굿 봉산센터에서 <소풍>을 상영했다. 세 작품 모두 상영 전후 '관객과의 대화'를 진행해 성평등한 영화를 만들고 나누려는 창작자들의 의지를 전달할 수 있었다.

① 커뮤니티비프 | 벡델초이스DAY '쎈 언니들의 액션활극'(밀수)

일시 /장소 10월 5일(토) 14:30 메가박스 부산극장 3관
진행 이화정 벡델데이 2024 프로그래머
게스트 정가영 감독, 김재화 배우, 강혜정 제작자









② 커뮤니티비프 | 벡델초이스DAY '세상을 구원하다, 소녀들!'〈지옥만세〉

일시 /장소 10월 5일(토) 19:00 메가박스 부산극장 3관
진행 이화정 벡델데이 2024 프로그래머
게스트 임오정 감독, 정이주 배우




③ 동네방네비프 | 〈소풍〉

일시 /장소 10월 6일(일) 19:00 영도구 베리베리굿 봉산센터
진행 박은영 로케트필름 PD
게스트 공상아 배우, 김영진 로케트필름 대표




④ 비프광장 벡델데이 영상 상영

장소 부산 중구 남포동 비프광장 및 벡델초이스 상영작 상영관
내용 영화제 기간 상시 송출 / 커뮤니티비프 벡델초이스 상영작 상영 전 송출







홍보 및 마케팅


인디스페이스
벡델
테이
2024
2024년 09월 07일 (토) 인디스페이스
성평등한 영화·시리즈가 만드는 보다 나은 세상
벡델데이

매체 홍보

벡델데이 2024는 7월 22일부터 행사가 끝난 9월 11일까지 총 11회차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를 통해 총 42건의 언론 보도가 이루어졌다. 3일간 시상과 상영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한 작년과 대비해 보도 건수 자체는 작년(59건)보다 줄어든 수치이나, 9월 4일(수) <돌아온 방구석 1열> 벡델데이 2024 특집편으로 '차클 플러스' 유튜브 채널에서 17만회의 조회수(10월 7일 기준)를 기록했으며, 오후 9시 JTBC2 종합편성 채널 방영을 통해 대중적으로 벡델데이의 인지도를 높일 수 있었다. MBC 라디오 <FM 영화음악 김세윤입니다> 지상파 라디오와 영화 전문 매체 『씨네플레이』를 통해 벡델데이의 의미와 올해의 선정작, 벡델리안 인터뷰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이 소개되었다.

1) 보도자료 배포 내역

총 11회차의 보도자료가 발송되었다. 전반부에는 벡델데이 2024 포스터 공개와 예심 대상작 및 선정 방법 등 벡델데이의 의미를 짚어주는 보도자료로 개최 소식을 알렸으며 8월 초 발표한 벡델초이스와 벡델리안 발표에 대한 보도의 호응이 높았다.

회차	배포일	아이템	제목
1	7월 22일(월)	개최 안내 및 포스터 공개	성평등한 영화·시리즈가 만드는 보다 나은 세상 벡델데이 2024, 9월 7일(토) 인디스페이스에서!
2	7월 29일(월)	예심 대상작 및 선정방법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드는, 올해 가장 양성평등한 작품과 인물 '벡델초이스10 & 벡델리안'은 어떻게 선정될까?!
3	8월 6일(화)	영화 부문 벡델초이스10 발표	2024 영화 부문 벡델초이스10 발표! <비밀의 언덕>부터 <밀수> <시민덕희>까지 독립-상업 아우르는 10편의 양성평등 영화 선정
4	8월 8일(목)	시리즈 부문 벡델초이스10 발표	2024 시리즈 부문 벡델초이스10 공개! <밤에 피는 꽃> <LTNS>등 양성평등의 지평 넓힌 10편의 시리즈 선정
5	8월 12일(월)	영화 부문 벡델리안 발표	대중과 만나 함께 양성평등한 가치 실현한 올해의 영화인들을 주목하라! 벡델데이 2024 영화 부문 벡델리안 공개
6	8월 14일(수)	시리즈 부문 벡델리안 발표	<밤에 피는 꽃> 이하늬 배우 작년에 이어 두 번째 벡델리안 수상! 벡델데이 2024 시리즈 부문 올해의 벡델리안 공개
7	8월 26일(월)	프로그램 공개	벡델데이 2024 9월 7일(토) 인디스페이스 공식 행사 일정 공개!
8	9월 2일(월)	트레일러 공개	한국 콘텐츠의 양성평등 한 단계 업그레이드! 벡델데이 2024 홍보 영상 공개!
9	9월 4일(수)	방구석 1열 벡델데이 특집편 예고	영화 부문 벡델초이스10 <교토에서 온 편지> 한선화 배우 출연! '돌아온 방구석1열'에서 만나는 벡델데이 2024
10	9월 6일(금)	D-1 개최 예고	벡델데이 2024 내일 개최! 9월 7일(토) 인디스페이스에서 열려
11	9월 11일(화)	행사 결산 및 부산영화제 상영 안내	'성평등한 영화·시리즈가 만드는 보다 나은 세상' 벡델데이 2024 성황리 종료!

2) 주요 기사

8월부터 9월에 걸쳐 중소 영화제 및 행사가 집약되어 있어 보도량 자체는 예년과 유사한 수준에 머물으나 심사위원 및 행사 패널, 모더레이터로 행사에 참여한 드라마 평론가, 영화평론가, 기자 등 전문가들이 자신이 활동하는 미디어 채널을 통해 적극적으로 벡델데이를 홍보하고 의미를 알리는 데 동참했다. 지상파 라디오인 MBC FM4U <김세윤의 영화음악입니다>,『중앙일보』등 주요 일간지, 영화 전문매체『씨네플레이』를 통해 특집 인터뷰과 기사가 발행되어 심도 있는 내용의 기사가 보도 되었다.

날짜	매체	기자	제목 및 내용	비고
8월 1일	씨네 플레이	주성철 편집장		영화전문매체
8월 1일	JTBC	조연경 기자		방송사
8월 6일	맥스무비	박미애 기자		영화전문매체

2) 주요 기사

날짜	매체	기자	제목 및 내용	비고
8월 6일	연합뉴스	오보람 기자		통신사
8월 6일	KBS	임재성 기자		방송사
8월 7일	여성신문	김민정 기자		주요 일간지
8월 8일	SBS 연예뉴스	김지혜 기자		방송사

2) 주요 기사

날짜	매체	기자	제목 및 내용	비고
8월 9일	이데일리	최희재 기자		경제 일간지
8월 12일	MBC연예	유정민 기자		방송사
8월 14일	뉴시스	최지윤 기자		통신사
8월 28일	중앙일보	나원정 기자		주요 일간지

2) 주요 기사

날짜	매체	기자	제목 및 내용	비고
8월 31일	MBC FM4U	김세윤 작가		라디오
9월 2일	한국영화	김소희 영화 평론가		웹진
9월 3일	KOFIC 뉴스레터	-		뉴스레터
9월 4일	싱글 리스트	정현태 기자		인터넷신문

순번	날짜	매체	제목
1	7월 22일	iMBC	양성 평등 영화 선정하는 '벡델데이 2024' 9월 7일(토) 인디스페이스에서!
2	8월 1일	씨네플레이	'벡델데이 2024' 9월 7일, 인디스페이스에서 열린다
3	8월 1일	JTBC	올해의 양성평등 '벡델초이10·벡델리안' 어떻게 선정되나
4	8월 6일	싱글리스트	'밀수' → '잠'...2024 영화 부문 벡델초이스 10 발표
5	8월 6일	셀럽미디어	2024 영화 부문 '벡델초이스10' 발표…'비밀의 언덕'→'시민덕희'까지
6	8월 6일	뉴스엔	'밀수'·'시민덕희' 등 양성평등 영화 '벡델초이스10' 선정
7	8월 6일	맥스무비	女 서사·캐릭터 활약 돋보인 영화 10편은
8	8월 6일	쿠키뉴스	'밀수'부터 '시민덕희'까지…양성평등 영화 10편 선정
9	8월 6일	노컷뉴스	"다채로운 여성 서사"…'비밀의 언덕'→'시민덕희' 벡델초이스10
10	8월 6일	SBS 연예뉴스	'밀수'·'시민덕희'·'정순' 등 10편, '벡델 초이스10' 선정…"성평등한 가치 잃지 않아"
11	8월 6일	연합뉴스	올해 성평등 한국 영화에 '밀수'·'시민덕희' 등 10편 선정
12	8월 6일	뉴스 저널리즘	[뉴스저널리즘] 한국영화감독조합, 올해의 성평등 영화 10선 선정
13	8월 6일	KBS	'성평등 성과' 한국 영화 10편 선정…'밀수'·'시민덕희'
14	8월 6일	월요신문	벡델데이 2024, 영화 부문 벡델초이스10 선정작 공개
15	8월 6일	스포츠동아	여성 서사와 여성 캐릭터에 집중한 한국영화 10선
16	8월 7일	여성신문	'밀수'·'시민덕희'... 올해의 성평등 한국 영화 10편은?
17	8월 8일	싱글리스트	박은빈 '무인도의 디바'→박보영 '정신병동'...벡델초이스10 공개
18	8월 8일	SBS 연예뉴스	'남남'·'정신병동'·'LTNS' 등 10편, 시리즈 부문 벡델초이스 "남성이 만든 여자 서사 증가"
19	8월 8일	셀럽미디어	벡델데이 2024 시리즈 부문 '벡델초이스10' 공개…'남남'→'LTNS
20	8월 8일	월요신문	벡델데이 2024, 시리즈 부문 벡델초이스10 선정작 공개
21	8월 9일	우먼타임스	올해의 성평등 한국 영화 10편은? '밀수' '시민덕희'…
22	8월 9일	이데일리	사람엔터 공동제작 '밤에 피는 꽃', 벡델초이스10 선정
23	8월 9일	MBC연예	'밤에 피는 꽃', 벡델초이스10 선정…"성취 놓치지 않고 전진하는 드라마"

순번	날짜	매체	제목
24	8월 9일	헤럴드POP	'밤피꽃', '벡델초이스10' 선정 .. "성취를 놓치지 않고 전진하는 드라마" 호평
25	8월 9일	뉴스 인사이드	밤에 피는 꽃', '벡델초이스10' 선정..."전진하는 드라마"
26	8월 9일	스포츠경향	'밤피꽃' 벡델초이스10 선정···"성평등 가치 실현"
27	8월 12일	MBC연예	벡델데이 2024 영화 부문 벡델리안에 라미란, 강혜정 제작자, 이지은 감독 등 선정
28	8월 12일	시사위크	이지은 감독부터 라미란까지… 한국영화 성평등 기여한 올해의 벡델리안
29	8월 14일	OSEN	[OSEN] 이하늬, 딸이 복덩이..출산 후 복귀작 '밤에 피는 꽃'으로 벡델리안 수상
30	8월 14일	싱글리스트	'밤에 피는 꽃' 이하늬, 2년 연속 벡델리안 수상 등
31	8월 14일	뉴시스	이하늬, 양성평등 가치 실현…올해의 벡델리안
32	8월 14일	스타뉴스	밤에 피는 꽃' 이하늬, 2년 연속 벡델리안 수상 "배우 자체가 곧 장르"
33	8월 25일	국제신문	도청도설 | 벡델테스트
34	8월 27일	씨네플레이	영화·시리즈를 보는 균형 잡힌 눈! 색다른 영상매체 관람의 기준을 제시하는 행사, '벡델데이'란?
35	8월 28일	중앙일보	비하인드컷 | K무비 판 뒤집는 여자들
36	8월 31일	MBC FM4U	FM영화음악 김세윤입니다 <비밀의 언덕> 이지은 감독, <교토에서 온 편지> 김민주 감독
37	9월 1일	더팩트	"양성평등 가치 실현"…벡델데이가 주목하는 올해의 작품은?
38	9월 2일	한국영화	Briefing |트랜스하는 한국영화와 여성의 자리
39	9월 3일	KOFIC 뉴스레터	975호 | 다양하고 평등한 K무비를 만들기 위해
40	9월 4일	싱글리스트	'교토에서 온 편지' 한선화 출연...'방구석1열'서 만나는 벡델데이 2024
41	9월 6일	싱글리스트	'E롭게 GENDER E퀄리티' 벡델데이 2024 개최
42	9월 11일	씨네플레이	벡델데이2024 현장, <LTNS> <졸업> <힘쎈여자 강남순> 등을 만든 벡델리안들과의 만남

영화 전문매체『씨네플레이』에서는 올해의 시리즈 부문 벡델리안 감독상 수상자 <LTNS> 전고운 임대형 감독의 인터뷰와 벡델데이 2024 스페셜 토크의 주인공인 임순례 감독의 조명하는 특집 기사, 행사 당일 현장을 생생히 담은 스케치 기사도 발행되었다. 지상파 라디오인 MBC FM4U <김세윤의 영화음악입니다>에서는 올해의 영화 부문 벡델리안 감독상 수상자 <비밀의 언덕> 이지은 감독과 작가상 수상자 <교토에서 온 편지> 김민주 감독과 함께하는 벡델데이 2024 특집 방송이 송출되었다. 영화진흥위원회의 공식 웹진『한국영화』에서는 벡델데이의 의의와 영화 산업 전반의 상황을 살피는 심도있는 김소희 영화평론가의 평론이 게재되었다.

① 영화&OTT 전문 온라인 매거진『씨네플레이』

날짜	제목
8월 30일	영화·시리즈를 보는 균형 잡힌 눈! 색다른 영상매체 관람의 기준을 제시하는 행사, '벡델데이'란?  영화·시리즈를 보는 균형 잡힌 눈! 색다른 영상매체 관람의 기준을 제시하는 행사, '벡델데이'란? 여러분은 영화와 시리즈를 어떤 기준으로 관람하고 판단하는가? 배우? 스토리? 영상미? 대사? 여기, 영화와 시리즈를 보는 기준을 '성평등'에 둔 이들이 있다. 한국영화감독조합(DGK)에서 주최 주관하는... 김지연 기자 | 2024.08.30 16:00
9월 2일	[인터뷰] '벡델데이2024' 올해의 벡델리안! 고정관념을 전복하는 시리즈 〈LTNS〉의 전고운·임대형 감독  [인터뷰] '벡델데이2024' 올해의 벡델리안! 고정관념을 전복하는 시리즈 〈LTNS〉의 전고운·임대형 감... 한국영화감독조합(DGK)이 주최하는 '벡델데이'는 매년 성평등한 작품을 만드는 데 기여한 인물들을 '벡델리안'으로 선정한다. 올해 시리즈 부문의 감독상으로는 티빙 오리지널 시리즈 외 전고운, 임대형... 김지연 기자 | 2024.09.02 11:42
9월 10일	성평등한 영화세상! 벡델데이2024에서 만나는 임순례 28년, 여성감독 뉴웨이브  성평등한 영화세상! 벡델데이2024에서 만나는 임순례 28년, 여성감독 뉴웨이브 영화와 시리즈를 보는 균형 잡힌 눈! 해마다 양성평등주간에 맞춰 열리는(올해는 9월 1일부터 7일까지) 색다른 영상매체 관람의 기준을 제시하는 행사로, 한국영화감독조합(DGK)에서 주최·주관하는 '벡... 주성철 편집장 | 2024.09.10 15:25
9월 19일	벡델데이2024 현장, 〈LTNS〉〈졸업〉〈힘쎈여자 강남순〉 등을 만든 벡델리안들과의 만남  벡델데이2024 현장, 〈LTNS〉 〈졸업〉 〈힘쎈여자 강남순〉 등을 만든 벡델리안들과의 만남 성평등의 가치를 좇는 창작자들과 한 공간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가 얼마나 될까. 매년 차별과 소외를 벗어난 성평등 콘텐츠를 발굴해 온 벡델데이가 올해로 5회째를 맞았다. 벡델데이는 한국영화감... 김지연 기자 | 2024.09.19 16:44

②MBC 라디오 〈FM영화음악 김세윤입니다〉

날짜	제목
8월 31일	벡델데이 2024 특집 <비밀의 언덕> 이지은 감독, <교토에서 온 편지> 김민주 감독  

③영화진흥위원회 웹진『한국영화』

게재	제목
2024년 9월호	[Briefing] 트랜스하는 한국영화와 여성의 자리  벡델데이로 확인되는 것들   

온라인 홍보

벡델데이 2024 온라인 홍보는 인스타그램 공식 채널 운영과 인스타그램 광고를 중심으로 트위터, 홈페이지, 한국영화감독조합(DGK) 유튜브 채널을 통해 진행됐다. 먼저 인스타그램에서는 6월 20일 커밍순 이벤트 게시물로 벡델데이 2024 개최를 예고하는 것을 시작으로 7월 22일 메인포스터 발표, 벡델초이스 및 벡델리안 발표 등 총 61개의 포스팅을 디자인하고 배포하였다. X(트위터) 채널에서도 인스타그램과 동일한 콘텐츠로 다양한 플랫폼에서 벡델데이를 만날 수 있도록 했으며, 안정적인 홍보 채널 운영에 주력했다.

홈페이지에서는 벡델데이 2024의 취지와 벡델초이스 10 선정작과 벡델리안 등 리스트를 공개하고, 프로그램 참여 신청 방법 등 관객을 위한 기초 자료 제공과 역대 행사를 살펴볼 수 있는 아카이브, 미디어 카테고리에서는 벡델데이 2024 전체 기사들을 살펴볼 수 있도록 정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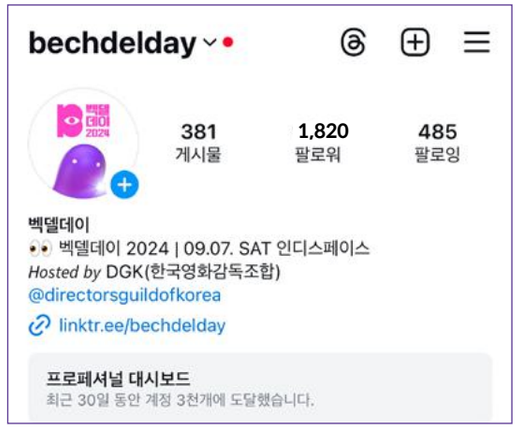
1) SNS 홍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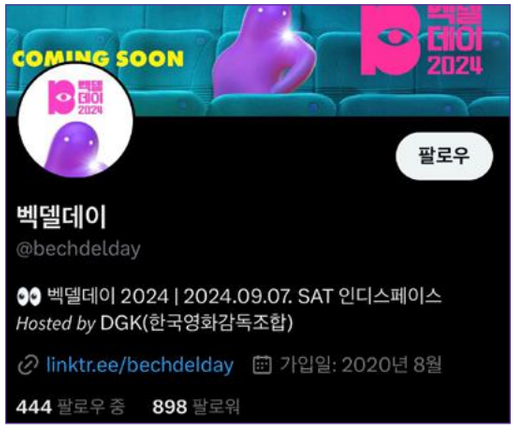
벡델데이 메인 홍보 채널인 인스타그램과 X(트위터)를 중심으로 SNS 홍보를 진행했으며, 인스타그램은 게시물 외에도 스토리 업로드와 더불어 한국영화감독조합(DGK) 계정과의 업로드 연계로 추가적인 홍보 효과를 거뒀다. 벡델초이스 작품과 벡델리안 선정 소식에 대한 관심도가 가장 높았으며, X(트위터)에서도 리트윗되는 등의 호응이 있었다. 인스타그램에서는 현장에 참여한 관객들의 스토리 업로드와 관련 언급이 활발히 이루어졌다. 타겟 관객층의 관여도가 높은 영화 전문 채널 등을 통해 외부 홍보 협력도 진행했으며, 벡델데이 인스타그램 계정에서도 광고를 집행하여 보다 많은 대상에게 행사를 홍보하고자 하였다.

① 팔로워 현황

개요
인스타그램 1715 → 1,820(6.12%) 증가
X(트위터) 872→ 898 (2.98%) 증가
총계 2,587 → 2,718(5.06%) 증가

*집계는 벡델데이 2023 자료집 기준 팔로워~2024년 9월 15일까지





② 게시물 업로드 일정

순번	일정	아이템	비고
1	6월 20일	벡델데이 2024 커밍순 이벤트	
2	7월 22일	벡델데이 2024 포스터 공개	
3	8월 6일	영화 부문 벡델초이스10 공개	포스터 버전
4	8월 6일	영화 부문 벡델초이스10 공개	텍스트 버전
5	8월 6일	<교토에서 온 편지> 벡델초이스10 선정	판씨네마 리그램
6	8월 8일	시리즈 부문 벡델초이스10 공개	포스터 버전
7	8월 8일	시리즈 부문 벡델초이스10 공개	텍스트 버전
9	8월 12일	영화 부문 벡델리안 공개	사진 버전
10	8월 12일	영화 부문 벡델리안 공개	텍스트 버전
11	8월 14일	시리즈 부문 벡델리안 공개	사진 버전
12	8월 14일	시리즈 부문 벡델리안 공개	텍스트 버전
13	8월 16일	벡델데이 2024 무빙 포스터 공개	영상
14	8월 16일	영화 부문 벡델초이스10 소개 <교토에서 온 편지>	
15	8월 16일	영화 부문 벡델초이스10 소개 <너와 나>	
16	8월 17일	영화 부문 벡델초이스10 소개 <물비늘>	
17	8월 17일	영화 부문 벡델초이스10 소개 <밀수>	
18	8월 17일	영화 부문 벡델초이스10 소개 <비밀의 언덕>	
19	8월 17일	영화 부문 벡델초이스10 소개 <소풍>	
20	8월 18일	영화 부문 벡델초이스10 소개 <시민덕희>	
21	8월 18일	영화 부문 벡델초이스10 소개 <잠>	
22	8월 18일	영화 부문 벡델초이스10 소개 <정순>	
23	8월 18일	영화 부문 벡델초이스10 소개 <지옥만세>	
24	8월 19일	영화 부문 벡델리안 감독상: 이지은 감독	
25	8월 19일	영화 부문 벡델리안 작가상: 김민주 감독	
26	8월 19일	영화 부문 벡델리안 배우상: 라미란 배우	
27	8월 19일	영화 부문 벡델리안 제작자상: 강혜정 감독	

순번	일정	아이템	비고
28	8월 21일	영화 부문 여러분의 벡델초이스	이벤트 결과 발표
29	8월 22일	시리즈 부문 벡델초이스10 소개 <남남>	
30	8월 22일	시리즈 부문 벡델초이스10 소개 <무인도의 디바>	
31	8월 22일	시리즈 부문 벡델초이스10 소개 <밤에 피는 꽃>	
32	8월 23일	시리즈 부문 벡델초이스10 소개 <사랑한다고 말해줘>	
33	8월 23일	시리즈 부문 벡델초이스10 소개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	
34	8월 23일	시리즈 부문 벡델초이스10 소개 <졸업>	
35	8월 24일	시리즈 부문 벡델초이스10 소개 <킬러들의 쇼핑몰>	
36	8월 24일	시리즈 부문 벡델초이스10 소개 <피라미드 게임>	
37	8월 24일	시리즈 부문 벡델초이스10 소개 <힘쎈여자 강남순>	
38	8월 24일	시리즈 부문 벡델초이스10 소개 <LTNS>	
39	8월 25일	시리즈 부문 벡델리안 감독상: 전고운·임대형 감독	
40	8월 25일	시리즈 부문 벡델리안 작가상: 박경화 작가	
41	8월 25일	시리즈 부문 벡델리안 배우상: 이하늬 배우	
42	8월 25일	시리즈 부문 벡델리안 제작자상: 백미경 제작자	
43	8월 26일	시리즈 부문 여러분의 벡델초이스	이벤트 결과 발표
44	8월 26일	벡델데이 2024 프로그램 공개: 벡델 토크1	광고
45	8월 26일	벡델데이 2024 프로그램 공개: 벡델 토크2	광고
46	8월 28일	벡델데이 2024 체험 이벤트: 벡델라인 스탬프	
47	8월 30일	벡델데이 2024 트레일러 공개	영상
48	9월 2일	벡델데이 2024 공식 굿즈 공개	
49	9월 3일	씨네플레이 <LTNS> 전고운·임대형 감독 인터뷰	씨네플레이 리그램
50	9월 3일	FM영화음악 김세윤입니다 녹음 현장	
51	9월 3일	FM영화음악 김세윤입니다 기념 사진	오스프링필름 리그램
52	9월 4일	<돌아온 방구석1열> 벡델데이 2024 특집편 홍보 영상	영상

순번	일정	아이템	비고
53	9월 5일	<돌아온 방구석1열> 벡델데이 2024 특집편 홍보	
54	9월 6일	벡델데이 2024 사전 신청 참여 안내	
55	9월 6일	벡델데이 2024 당일 현장 참여 안내	
56	9월 7일	D-DAY 벡델데이 2024 안내	
57	9월 7일	벡델데이 2024 현장 사진	
58	9월 13일	벡델데이 2024 벡델 토크 1 스케치	
59	9월 13일	벡델데이 2024 스페셜 토크 2 스케치	
60	9월 13일	벡델데이 2024 현장 스케치	영상
61	9월 30일	부산국제영화제 벡델초이스 선정작 상영 소식	

③ 업로드 내용



6월 20일	벡델데이 2024 커밍순 이벤트



7월 22일	벡델데이 2024 포스터 공개



8월 6일	영화 부문 벡델초이스10 공개



8월 6일	영화 부문 벡델초이스10 공개



8월 6일	<교토에서 온 편지> 벡델10 선정



8월 8일	시리즈 부문 벡델초이스10 공개



8월 8일	시리즈 부문 벡델초이스10 공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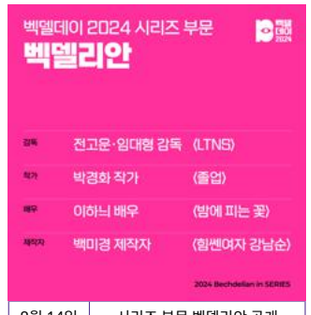
8월 12일	영화 부문 벡델리안 공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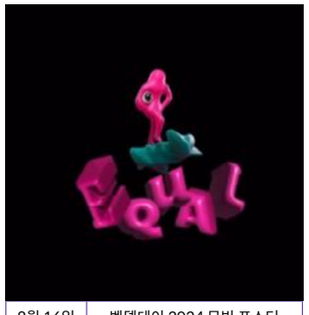
8월 12일	영화 부문 벡델리안 공개



8월 14일	시리즈 부문 벡델리안 공개



8월 14일	시리즈 부문 벡델리안 공개



8월 16일	벡델데이 2024 무빙 포스터



8월 16일	영화 10 <교토에서 온 편지>



8월 16일	영화 10 <너와 나>



8월 17일	영화 10 <물비늘>



8월 17일	영화 10 <밀수>



8월 17일	영화 10 <비밀의 언덕>



8월 17일	영화 10 <소풍>



8월 18일	영화 10 <시민덕희>



8월 18일	영화 10 <잠>



8월 18일	영화 10 <정순>



8월 18일	영화 10 <지옥만세>



8월 19일	영화 벡델리안 감독상: 이지은



8월 19일	영화 벡델리안 작가상: 김민주



8월 19일	영화 벡델리안 배우상: 라미란



8월 19일	영화 벡델리안 제작자상: 강혜정



8월 21일	영화 부문 여러분의 벡델초이스



8월 22일	시리즈 10 <남남>



8월 22일	시리즈 10 <무인도의 디바>



8월 22일	시리즈 10 <밤에 피는 꽃>



8월 23일	시리즈 10 <사랑한다고 말해줘>



8월 23일	시리즈 10<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



8월 23일	시리즈 10 <졸업>



8월 24일	시리즈 10 <킬러들의 쇼핑몰>



8월 24일	시리즈 10 <피라미드 게임>



8월 24일	시리즈 10 <힘쎈여자 강남순>



8월 24일	시리즈 10 <LTNS>



8월 25일	시리즈벡델리안감독상:전고운·임대형



8월 25일	시리즈 벡델리안 작가상: 박경화



8월 25일	시리즈 벡델리안 배우상: 이하늬



8월 25일	시리즈 벡델리안 제작자상: 백미경



8월 26일	시리즈 여러분의 벡델초이스



8월 26일	프로그램 공개: 벡델 토크1



8월 26일	프로그램 공개: 스페셜 토크2



8월 28일	이벤트: 벡델라인 스탬프



8월 30일	벡델데이 2024 트레일러 공개



9월 2일	벡델데이 2024 공식 굿즈 공개



9월 3일	씨네플레이 <LTNS> 인터뷰



9월 3일	FM영화음악 김세윤입니다 현장



9월 3일	FM영화음악 김세윤입니다 사진



9월 4일	<돌아온 방구석1열> 홍보 영상



9월 5일	<돌아온 방구석1열> 홍보



9월 6일	사전 신청 참여 안내



9월 6일	당일 현장 참여 안내



9월 7일	D-DAY 벡델데이 2024 안내



9월 7일	벡델데이 2024 현장 사진



9월 13일	벡델 토크 1 스케치



9월 13일	스페셜 토크 2 스케치



9월 13일	벡델데이 2024 현장 스케치 영상



9월 30일	부산국제영화제 상영 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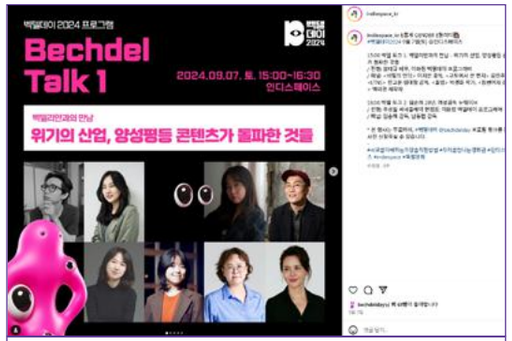
④ 이벤트 진행 내역

순번	일정	내용	경품	선정인원	실당첨자
1	6월 20일 ~6월 30일	여러분의 '벡델초이스'를 뽑아주세요 : 영화 부문	메가박스 관람권(1인 1매)	5	5
2	6월 20일 ~6월 30일	여러분의 '벡델초이스'를 뽑아주세요 : 시리즈 부문	메가박스 관람권(1인 1매)	5	5
3	9월 7일	프로그램 참여 이벤트 (1부 벡델리안과 만남)	벡델데이 2024 굿즈 패키지, 벡델데이 2024 티셔츠(5세트)	5	5
4	9월 7일	프로그램 참여 이벤트 (2부 스페셜 토크)	벡델데이 2024 굿즈패키지, 임순례 감독 기념 뱃지, <핸섬가이즈> 사인 엽서(5세트)	5	5
5	9월 7일	설문조사 참여 이벤트	벡델데이 2024 굿즈 패키지	103	103

⑤ 외부 홍보 협조



영화진흥위원회
홈페이지&뉴스레터&인스타그램 게재



인디스페이스
인스타그램 게재



무비쿡 @movie_cook
인스타그램 & 페이스북 & 유튜브 & 트위터 게재



영다사 @filmfestivalsinkorea
네이버 카페 & 인스타그램 게재



엣나인필름 @at9film
인스타그램 게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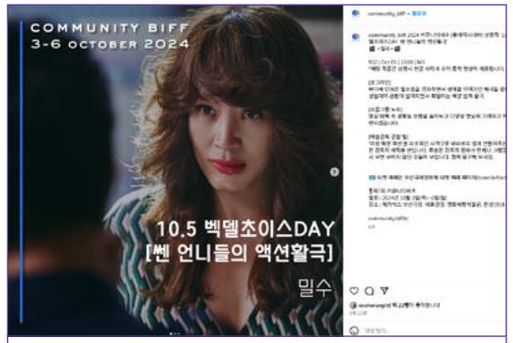
오스프링필름 @ohspringfilm
인스타그램 게재



넥스트엔터테인먼트월드 @itsnew.b
인스타그램 게재



한국영화아카데미KAFA @kafafilms
인스타그램 게재



커뮤니티비프 @community_biff
인스타그램 게재



동네방네비프 @biff_everywhere
인스타그램 게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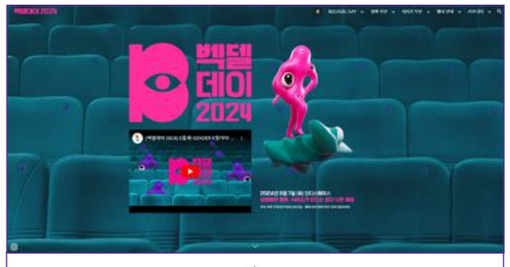
2) 홈페이지

벡델데이 2024의 상세한 취지와 프로그램 내용, 수상작과 수상자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안내하는 역할로 홈페이지를 운영했다. 선정위원들의 벡델초이스 및 벡델리안 소개글을 게시하여 보다 상세하게 올해 선정작과 선정자를 알리고자 하였다. 지난 벡델데이의 꾸준한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역대 벡델데이 페이지도 구성했으며, 지난해와 같이 홈페이지는 Google Sites 플랫폼을 통해 제작되었다.

① 메뉴 구성

대제목	소제목	내용
홈	메인	타이틀 / 트레일러
BECHDEL DAY	벡델데이 2024	개요 / 벡델테스트 7 / 포스터 소개
	프로그램	프로그램 내용 및 게스트 소개
	역대 벡델데이	역대 행사 아카이브
영화 부문	벡델초이스10	선정작 소개 및 심사평
	벡델리안	수상자 소개 및 심사평
시리즈 부문	벡델초이스10	선정작 소개 및 심사평
	벡델리안	수상자 소개 및 심사평
행사 안내	관람안내·사전신청	관람안내 및 사전신청 링크
	오시는 길	행사장소 안내
커뮤니티	미디어	언론보도 클리핑

② 페이지별 세부 내용



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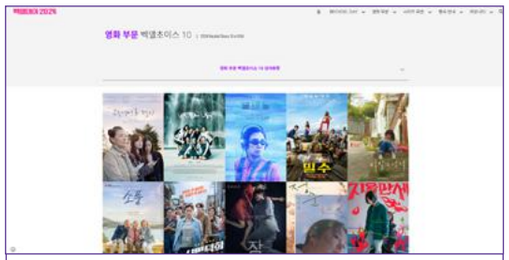
벡델데이 2024



프로그램



역대 벡델데이



영화 부문 벡델초이스10



영화 부문 벡델리안



시리즈 부문 벡델초이스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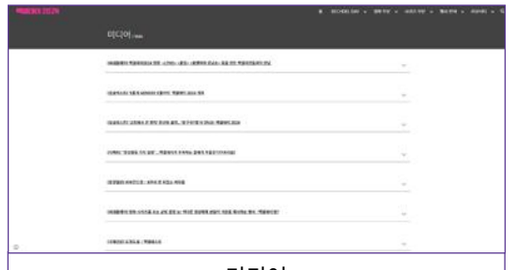
시리즈 부문 벡델리안



참여안내 · 사전신청



오시는 길



미디어

오프라인 홍보

5월 전주국제영화제와 8월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등 홍보엽서 배포로 영화제에 방문한 관객들에게 사전 홍보를 실시했다. 또한 벡델데이 2024 행사장에 전체 프로그램과 올해의 벡델초이스, 벡델리안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리플렛 및 X배너를 비치했으며,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상영관 내부에는 벡델데이 조형물과 캐릭터 등신대로 공간을 조성했다. 인디스페이스 로비 공간에는 공식 포토월과 벡델라인 스탬프 엽서 만들기, 포토부스 등 관객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체험 이벤트 공간을 마련하였다. 이와 같은 체험 이벤트는 이후 SNS 등을 통해 관객들이 직접 업로드하며 행사 홍보에도 도움이 되었다.

벡델데이 2024 공식 굿즈는 렌티큘러 엽서, 파우치, 마그넷, 스티커, 실제본노트를 제작했다. 프로그램 참여자 대상 설문을 마친 관객들에게는 벡델데이 2024 공식 굿즈를 증정했으며, 2부 스페셜 토크에서는 '임순례 감독'의 핀뱃지를 현장 이벤트로 증정해 관객들의 참여와 호응을 높였다.

① 사전 홍보엽서



2024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2024 전주국제영화제



인디스페이스

② 리플렛



4단 리플렛 외지



4단 리플렛 내지

2) 현장 조성

① 현장 조성 홍보물



포스터



포토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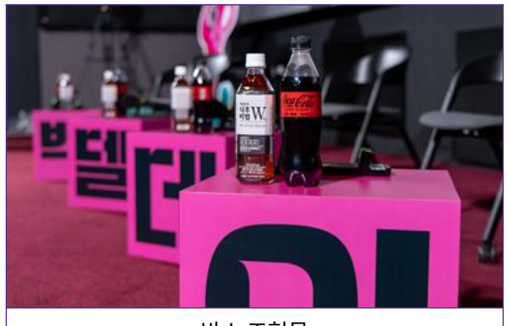
X배너



티켓



캐릭터 등신대



박스 조형물

3) 체험이벤트

① 벡델라인 스탬프 엽서 만들기



스탬프 12종



엽서 만들기 참여 모습

② 포토부스



포토부스



포토부스 결과물

4) 굿즈

① 관객설문 참여자 배포



스티커 / 실제본 노트 / 렌티큘러 엽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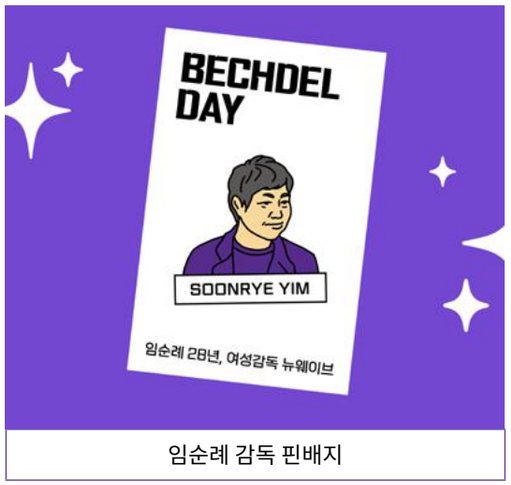
아크릴마그넷 / 파우치

② 벡델 토크 참여자 배포



티셔츠

③ 스페셜 토크 참여자 배포



임순례 감독 핀배지



벡델데이 2024
관객 대상 설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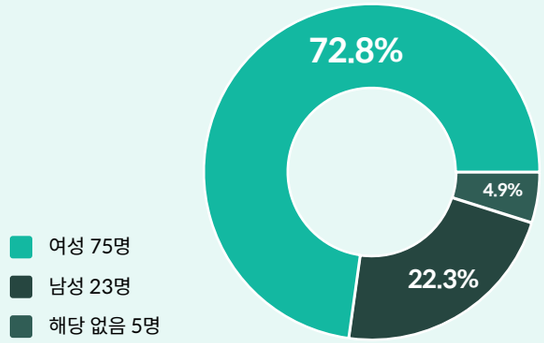
독립영화관 인디스페이스(서울 마포구)에서 2024년 9월 7일(토) 개최된 <벡델데이 2024> 현장에서 참여 관객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는 총 103명의 관객이 응답했다.

관객 기본 인적사항

1. 관객 성별

응답 수: 103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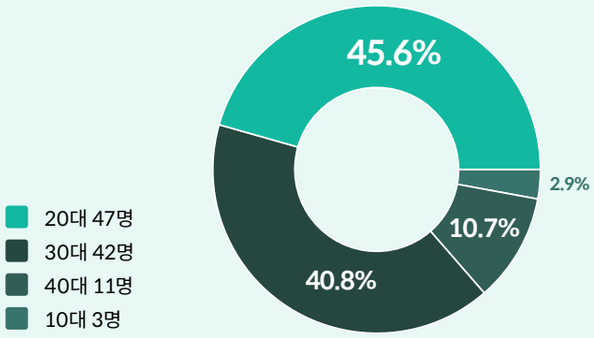
벡델데이 2024 설문 응답 관객의 **성별 분포를 살펴보면, 여성 관객 72.8% (75명), 남성 관객 22.3%(23명), '해당 없음'으로 응답한 관객 4.9%(5명)**로 나타났다. 여성 관객이 남성 관객보다 50.5% 더 많아, 벡델데이 2024의 주요 관객층이 '여성'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남성 관객의 참여율이 2023년 11.0%에서 올해 22.3%로 약 2배 증가한 점은 긍정적인 변화로 보인다.



2. 관객 연령대

응답 수: 103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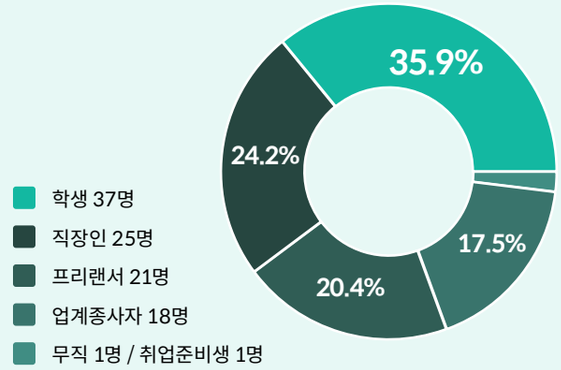
벡델데이 2024 설문 응답 관객의 **연령대 분포를 살펴보면, 10대 2.9%(3명), 20대 45.6%(47명), 30대 40.8%(42명), 40대 10.7%(11명), 50대 이상 0%(0명)**로 나타났다. 20대와 30대를 합한 비율이 86.4%(89명)에 달해, 벡델데이 2024의 주요 관객층이 '20~30대'임을 알 수 있다.



3. 관객 직업

응답 수: 103개, 단위: 명

벡델데이 2024 설문 응답 관객의 **직업 분포를 살펴보면, 학생 35.9% (37명), 직장인 24.2%(25명), 프리랜서 20.4%(21명), 영화·영상 업계종사자 17.5%(18명), 무직 1.0% (1명), 취업준비생 1.0%(1명)**로 나타났다. 올해 학생 관객의 참여율은 벡델데이 2023년의 28.8%에 비해 약 7% 증가했다. 이를 통해 벡델데이 2024 관객의 주요 직업군은 '학생과 직장인'임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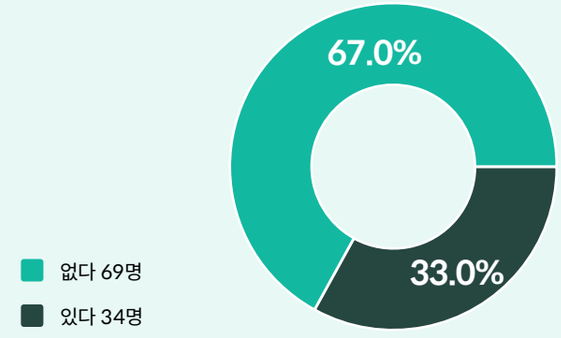
구분	학생 (초·중·고/대학생/대학원생)	직장인	프리랜서	영상·영화 업계종사자	무직	취업 준비생
응답	37 (35.9%)	25 (24.2%)	21 (20.4%)	18 (17.5%)	1 (1.0%)	1 (1.0%)

벡델데이 관람 요인

4. 이전에도 벡델데이에 참여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응답 수: 103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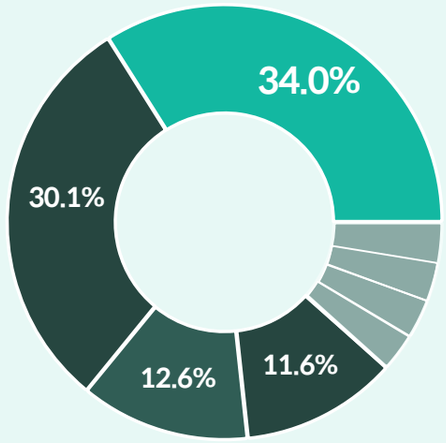
벡델데이 2024 설문 응답 관객의 **벡델데이 재참여율을 살펴보면, 이전 3년(2021~2023) 중 벡델데이 행사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관객은 33.0%(34명), '없다'고 응답한 관객은67.0%(69명)**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올해 관객 약 3명 중 1명은 이전의 벡델데이 행사에 참여한 경험이 있음을 알 수 있다.



5. 올해 벡델데이와 관련된 정보를 어떤 경로를 통해 얻으셨나요?

응답 수: 103개, 단위: 명

벡델데이 2024 설문 응답 관객의 벡델데이 정보를 얻은 경로를 살펴보면, **한국영화감독조합 SNS가 34.0%(35명)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는 벡델데이 SNS 30.1%(31명), 유튜브 채널 '돌아온 방구석 1열' 12.6% (13명), 지인 11.6%(12명), 영화진흥위원회 채널 3.9%(4명), 언론 보도 3.9%(4명), 행사가 진행된 인디스페이스 현장 2.9%(3명), 기타 1.0%(1명)**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응답으로는 대학 교양수업을 통한 정보 습득(1명)이 있었다. 벡델데이 SNS와 한국영화감독조합 SNS를 통한 유입이 약 64%에 달하는 점을 고려하면, 다수의 관객이 해당 SNS 채널을 통해 벡델데이에 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접하며, 이것이 실제 행사 참여로 연결되었음을 추론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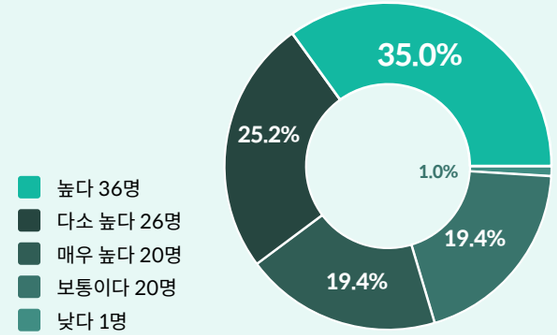


구분	한국영화 감독조합 SNS	벡델데이 SNS	유튜브 채널 '돌아온 방구석 1열'	지인	영화진흥 위원회 채널 (SNS, 웹진 등)	언론보도 (씨네플레이, 기사 등)	인디스페이스 현장	기타
응답	35 (34.0%)	31 (30.1%)	13 (12.6%)	12 (11.6%)	4 (3.9%)	4 (3.9%)	3 (2.9%)	1 (1.0%)

6. '양성평등'에 대한 귀하의 인식 수준은 어떻게 되셨습니까?

응답 수: 103개, 단위: 명

벡델데이 2024 설문 응답 관객의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 수준을 살펴보면, 매우 높다 19.4%(20명), 높다 35.0%(36명), 다소 높다 25.2%(26명), 보통이다 19.4%(20명), 약간 낮다 0%(0명), 낮다 1.0%(1명), 매우 낮다 0%(0명)**로 나타났다. 양성평등에 대해 높은 인식 수준을 가진 관객이 79.6%에 달하며, 이 결과는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이 높은 관객들이 벡델데이 2024에 참여했음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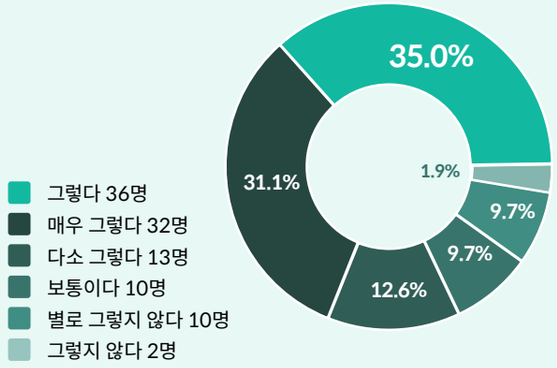


구분	매우 높다	높다	다소 높다	보통이다	약간 낮다	낮다	매우 낮다
응답	20 (19.4%)	36 (35.0%)	26 (25.2%)	20 (19.4%)	0 (0%)	1 (1.0%)	0 (0%)

7. 영상 콘텐츠 관람 시, '양성평등', '성차별'과 같은 지점에 대해 고려해 보신 적이 있나요?

응답 수: 103개, 단위: 명

벡델데이 2024 설문 응답에 따르면, 관객들이 **영상 콘텐츠를 관람할 때 '양성평등'이나 '성차별'과 같은 지점을 고려하는지에 대한 여부는 매우 그렇다 31.1%(32명), 그렇다 35.0%(36명), 다소 그렇다 12.6%(13명), 보통이다 9.7%(10명), 별로 그렇지 않다 9.7%(10명), 그렇지 않다 1.9%(2명), 매우 그렇지 않다 0% (0명)**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관객 5명 중 약 4명(78.7%)이 성평등에 대한 높은 수준의 의식을 갖고 영상 콘텐츠를 관람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구분	매우 그렇다	그렇다	다소 그렇다	보통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응답	32 (31.1%)	36 (35.0%)	13 (12.6%)	10 (9.7%)	10 (9.7%)	2 (1.9%)	0 (0.0%)

벡델데이 2024 관객 만족도

8. 참여하신 행사는 무엇인가요?

응답 수: 103개, 중복응답 포함 143개

No	관람	실제 관객 수(명)	응답 수 (개) ※중복포함	설문 참여율
1	9/7(토) 15:00 벡델토크<1> 벡델리안과의 만남-위기의 산업, 양성평등 콘텐츠가 돌파한 것들	105	81	77.1%
2	9/7(토) 18:00 벡델토크<2> 임순례 28년, 여성감독 뉴웨이브	89	62	69.7%
합계		**194**	**143**	**7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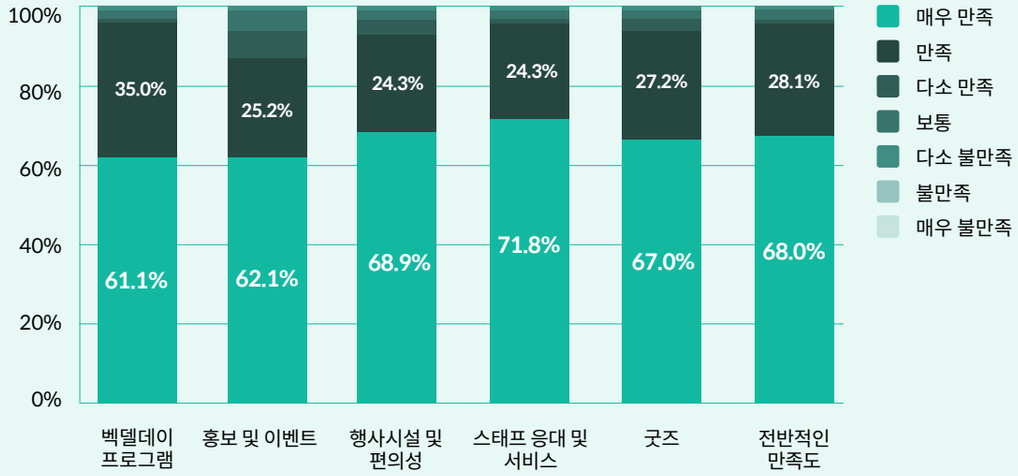
벡델데이 2024 설문 응답에 따르면, **103명 중 40명(38.8%)이 행사를 복수 관람**한 중복응답자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관객 5명 중 약 2명이 본 행사에 연속적으로 참여했음을 알 수 있다.

9. 벡델데이 2024 유형별 만족도 조사

1) 벡델데이 2024 유형별 만족도

응답 수: 103개, 단위: 명

구분 / 만족도	① 벡델데이 프로그램	② 홍보 및 이벤트	③ 행사시설 및 편의성	④ 스탭 응대 및 서비스	⑤ 굿즈	⑥ 전반적인 만족도
매우 만족	63 (61.1%)	64 (62.1%)	71 (68.9%)	74 (71.8%)	69 (67.0%)	70 (68.0%)
만족	36 (35.0%)	26 (25.2%)	25 (24.3%)	25 (24.3%)	28 (27.2%)	29 (28.1%)
다소 만족	1 (1.0%)	7 (6.8%)	4 (3.9%)	1 (1.0%)	3 (2.9%)	1 (1.0%)
보통	2 (1.9%)	5 (4.9%)	2 (1.9%)	2 (1.9%)	2 (1.9%)	2 (1.9%)
다소 불만족	1 (1.0%)	1 (1.0%)	1 (1.0%)	1 (1.0%)	1 (1.0%)	1 (1.0%)
불만족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매우 불만족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전체	103 (100.0%)	103 (100.0%)	103 (100.0%)	103 (100.0%)	103 (100.0%)	103 (100.0%)



2) 유형별 만족도 평균점수

응답 수: 103개,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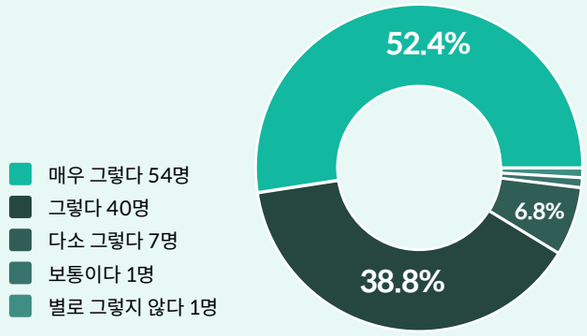
구분 / 평균점수	① 벡델데이 프로그램	② 홍보 및 이벤트	③ 행사시설 및 편의성	④ 스탭 응대 및 서비스	⑤ 굿즈	⑥ 전반적인 만족도
리커트 7점 척도 기준	6.53	6.43	6.58	6.64	6.57	6.60
100점 환산 기준	92.2	90.5	93.0	94.0	92.9	93.7

벡델데이 2024 관객을 대상으로 진행된 유형별 만족도 조사결과, **100점 환산 기준 고득점순으로 스탭 응대 및 서비스 94.0점, 전반적인 만족도 93.7점, 행사시설 및 편의성 93.0점, 굿즈 92.9점, 벡델데이 프로그램 92.2점, 홍보 및 이벤트 90.5점**으로 나타났다. 모든 유형에서 90점 이상의 높은 점수를 기록했으며, 벡델데이 2024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매우 만족' 68.0%(70명), '만족' 28.1%(29명), '다소 만족' 1.0%(1명)로 나타났다. '보통' 이하의 응답은 2.9%(3명)에 불과해 행사 전반에 대한 관객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10. 벡델데이 2024이 귀하의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 및 이해 제고에 도움이 되었습니까?

응답 수: 103개, 단위: 명

벡델데이 2024 설문 응답에 따르면, **98%의 관객이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 및 이해를 제고하는 데 벡델데이 2024가 도움이 되었다"** 고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 양성평등 이해 제고에 대한 **관객의 평균 만족도는 7점 만점 (리커트 7점 척도 기준)에 6.40점이며, 100점 환산 기준으로는 90.1점**이다. 이 결과는 벡델데이 2024가 양성평등 인식 개선 및 제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시사한다.



구분	매우 그렇다	그렇다	다소 그렇다	보통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응답	54 (52.4%)	40 (38.8%)	7 (6.8%)	1 (1.0%)	1 (1.0%)	0 (0.0%)	0 (0.0%)

벡델데이 2024 관객 종합의견

응답 수: 27개

구분 (응답 수)	내용
행사 내용 관련 의견 (9)	작년처럼 상영도 많이 하면 좋겠어요~ 작년엔 두 작품 빼고 다 봤었는데 너무 좋았던 기억으로 남아있습니다.
	같이 영화 보고 감독님이랑 소통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을 것 같다!
	좀 더 많은 시간대가 필요할 듯요
	다음 벡델도 기대가 됩니다! 감사해요, 다음엔 질의응답 시간 더 길어도 좋겠어요!!
	유익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출연자별로 나누어 좀 더 깊게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는 시간도 있다면 좋겠습니다.
	상영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처음에 진행했던 벡델리안 토크가 좀 길었습니다. 줄여달라고 요청드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다음번에는 좀 더 시간을 길게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았습니다. 6분의 이야기가 재미있다보니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진행이 되었고 재미있게 잘 들었습니다.
	1부에서 벡델에 관한 내용에서 영화 산업으로 넘어가는 점은 필요했지만, 영화 산업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길어져 조금 지루했습니다.
	내년에는 영화 보고하는 gv가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응원 및 참여 소감 (18)	다양성 프로그램의 연령의 색깔들이 무지개가 되길 바랍니다.
	이런 프로그램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행사 꾸준히 유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벤트, 행사 진행 부탁드립니다
	다음 해도 기대하겠습니다!
	벡델데이 파이팅!
	좋은 행사인 것 같아요.
	일정이 있어서 먼저 나와야 해서 아쉬웠어요
	최고.
	내년에도 기대할게요.
	내년에도 재밌는 기획 부탁드려요!
	1부가 재밌었다.
	굿즈가 이뻐요
	토크 너무 재밌게 잘 봤습니다!
	무대가 너무 이뻐요
	관점을 더 넓혀주는 토크였어요.
	꾸준히 이 행사가 있으면 좋겠네요
	임순례 감독님 짱

DGK 한국영화감독조합
DIRECTORS GUILD OF KOREA

사단법인 한국영화감독조합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125길 15, 3층
전화번호 02-6080-4422
홈페이지 www.dgk.or.kr
E-mail dgk@dgk.or.kr
SNS **facebook** @directorsguildofkorea
instagram @directorsguildofkorea
twitter @directorsguildofkorea

벡델데이 2024

SNS **instagram** @bechdelday
twitter @bechdelday